BE QUICK OR BE DEAD

비 퀵 오어 비 데드

by Bruce Dickinson/Jannick Gers

〈연주순서〉

〈주법해설〉

스피드가 넘치는 분위기가 무거운 곡이다,

리듬 파트는 파워플하게 치도록 한다. 흔히 있는 패턴이지만 16 분음표의 주법이 많으므로 주의할 것. 물론 베이스와 세로의 라인을 가지런히 한다. ①부분은 대체로 유니즌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킥과 베이스의 얽힘이 눈에 띈다. 잘 정돈하였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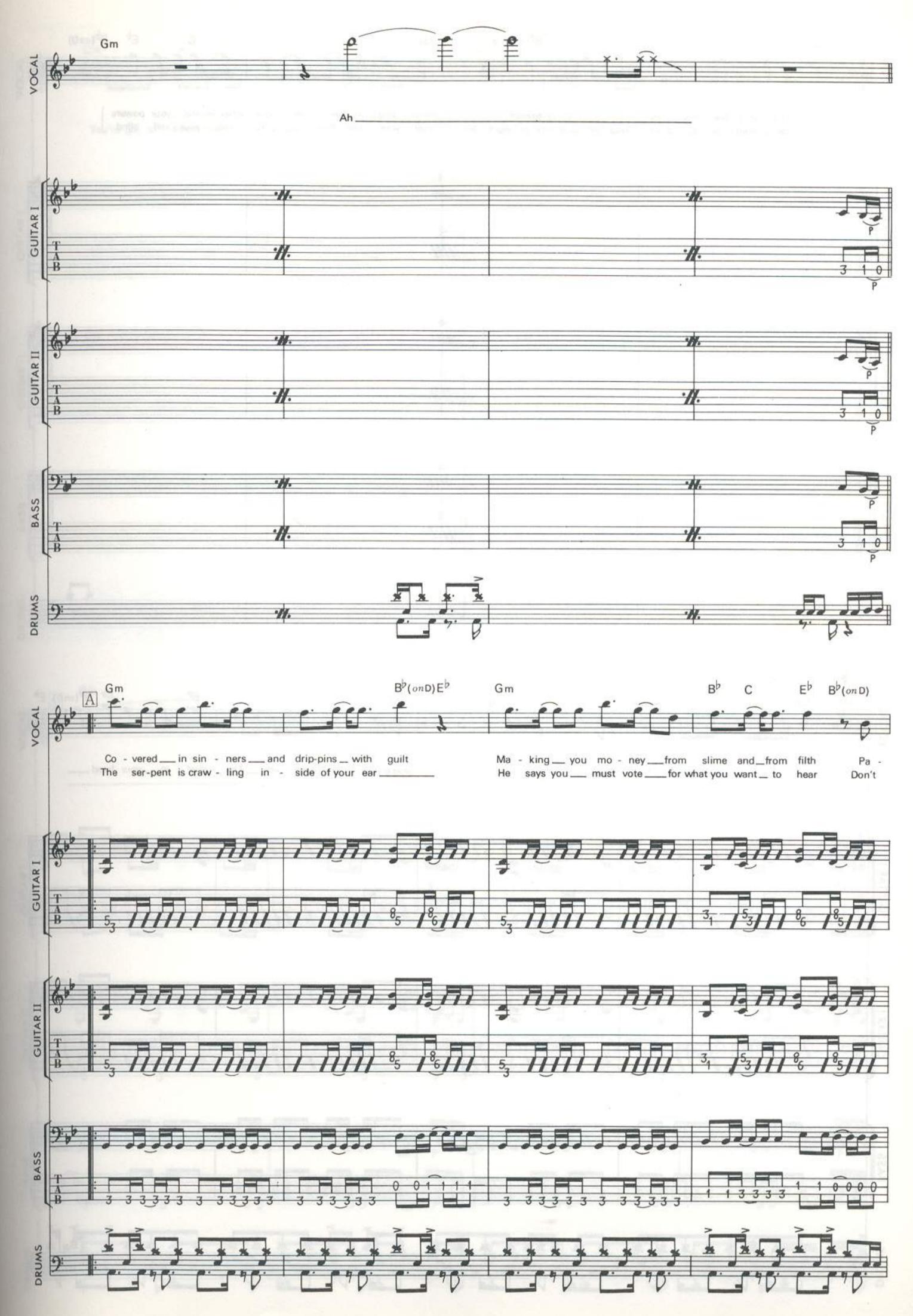
기타는 배킹에서 2대 모두 거의 같은 것을 연주하고 있으나 음색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파워플한 곡에서는 어 레인지면에서 기타의 앙상블을 하기 보다는 이와같이 음색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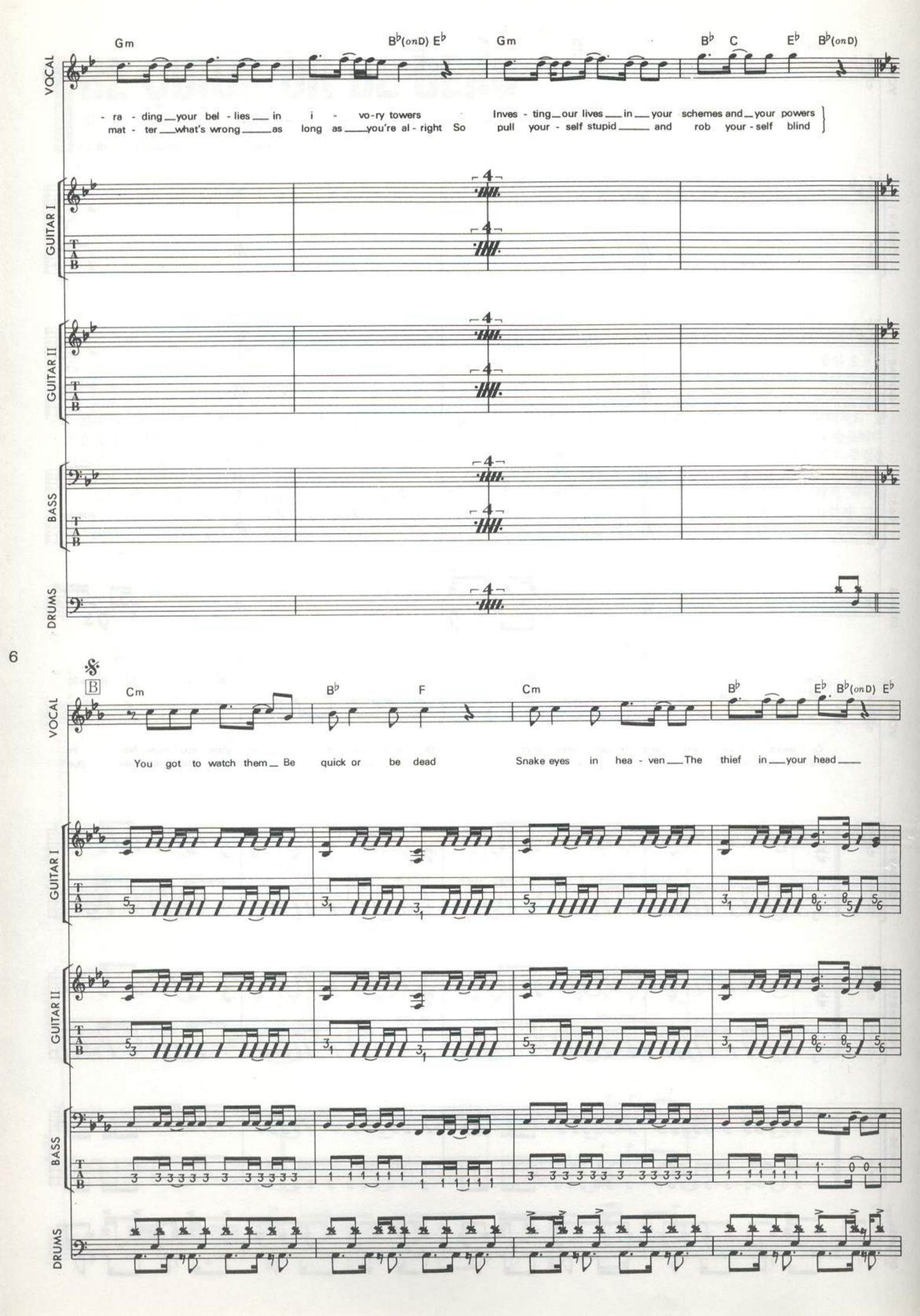
어프로치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은 인트로의 리프를 확고히 해야 한다. 풀링 오프를 잘 이용한 인상깊은 프레이즈이다. 낮은 포지션에서 개방현을 묶은 프레이즈로 비교적 연주하기 쉬운 패턴이지만 약간 포지션 체인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간 목타브 유니즌에서의 프레이즈이다. 간주부분은 [기간 기타 II, [기간 기타 II] 솔로이다. 양쪽 모두 빠른 연주이지만, 라이트 핸드 주법과 같은 특수 주법은 사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피킹이다. 해머링 온이나 풀링 오프등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처음에는 느린 템포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서서히 템포를 올려간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연습하자. 그때 피킹은 올터네이트 피킹으로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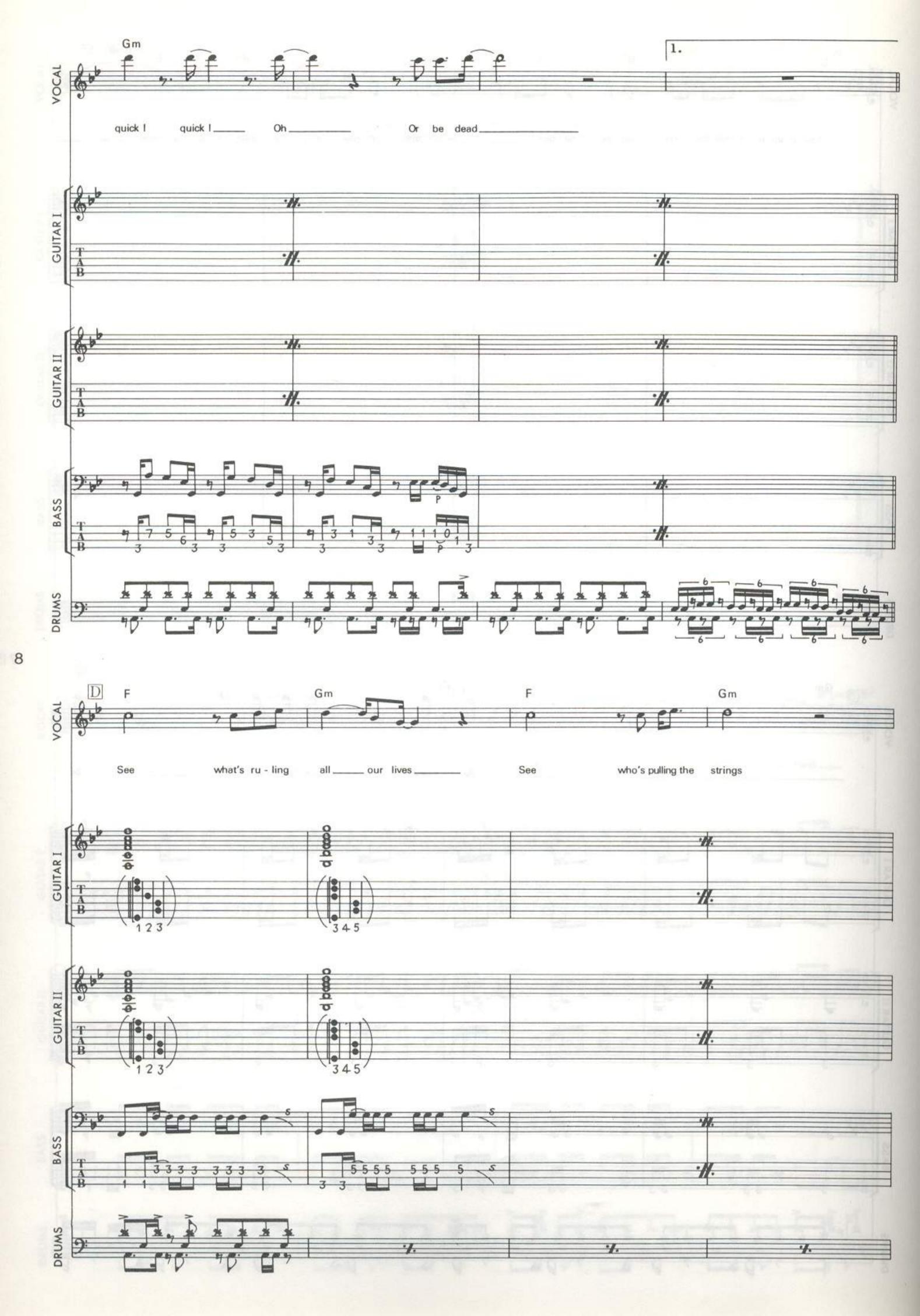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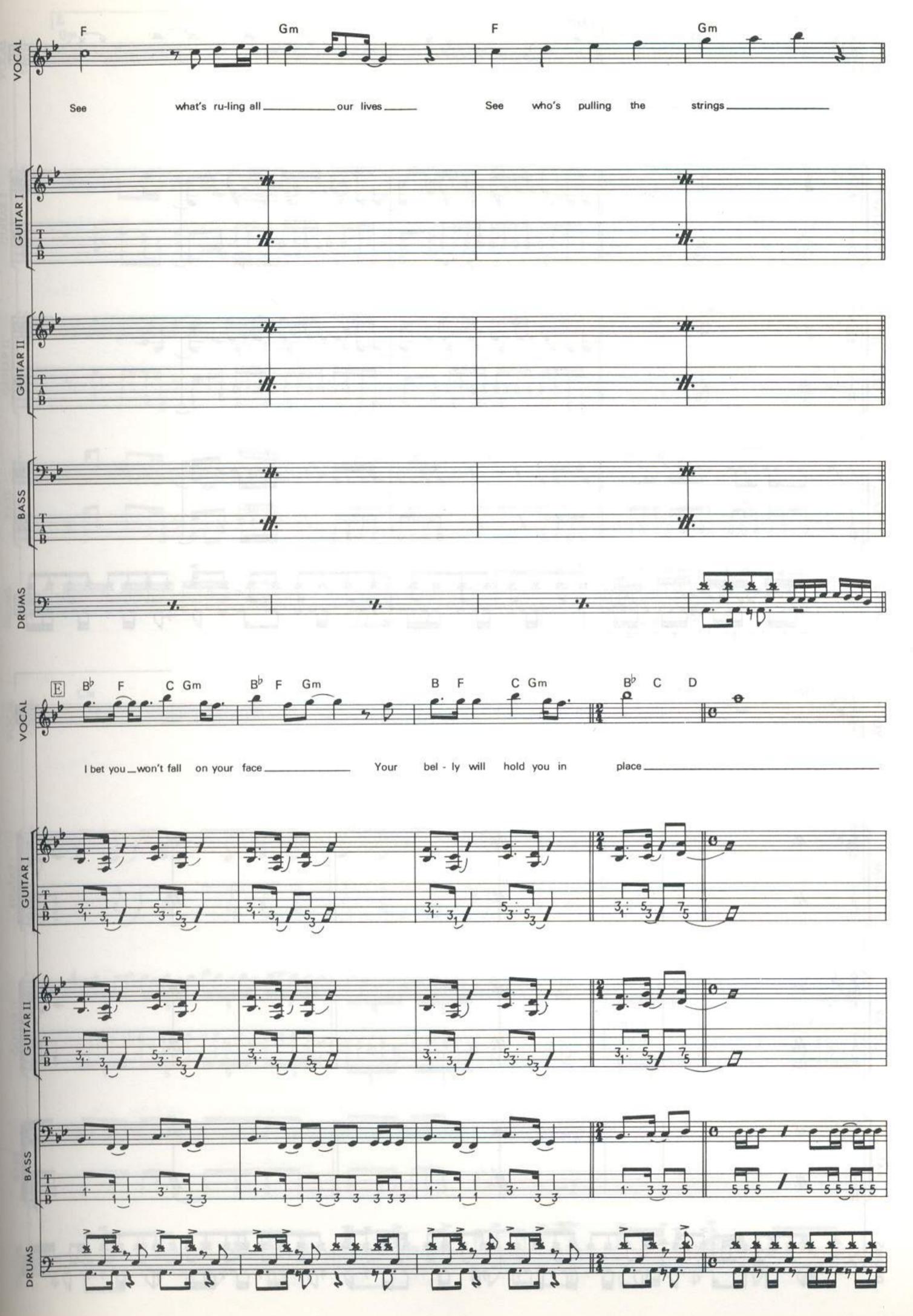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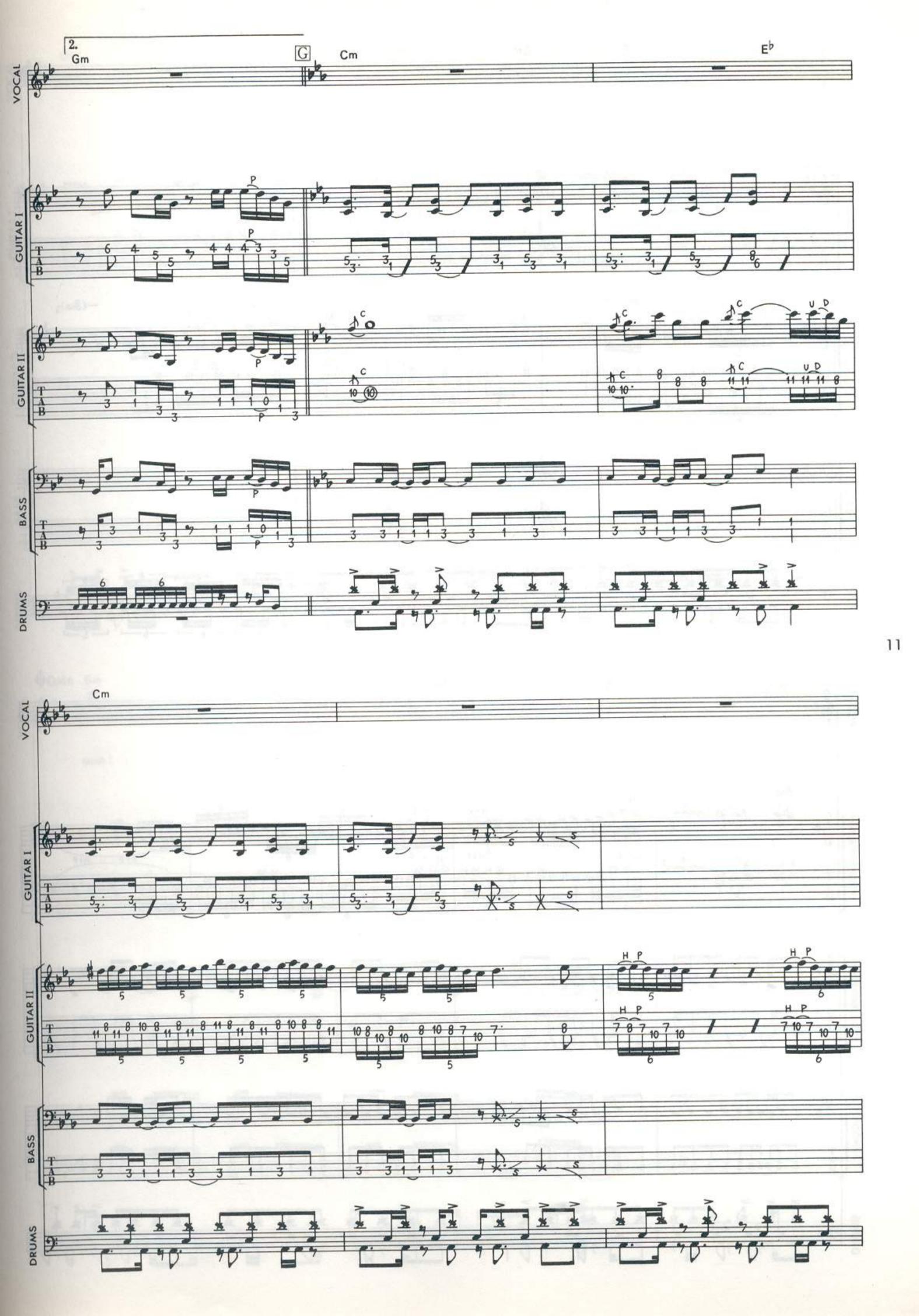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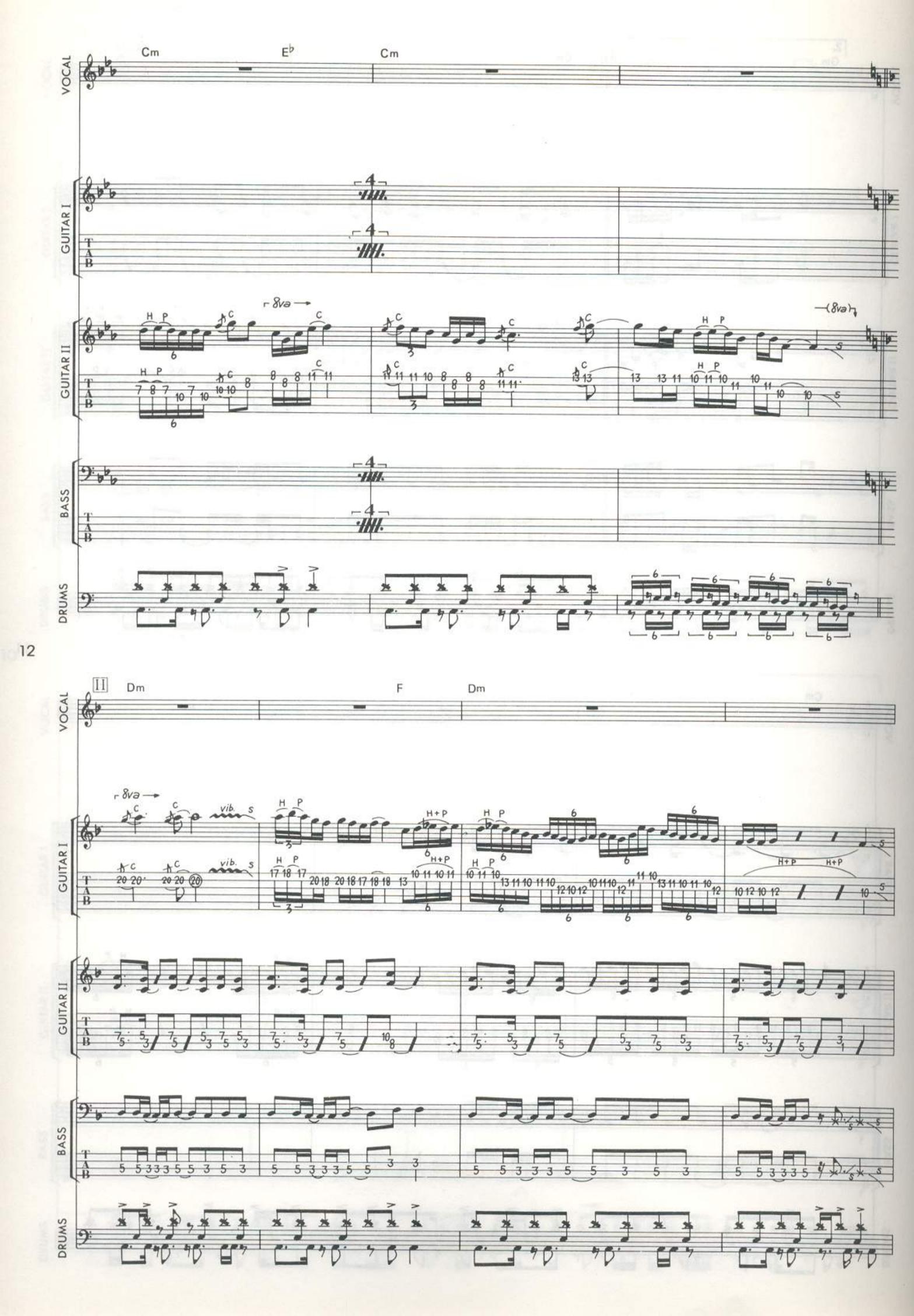
















CAN I PLAY WITH MADNESS

캔 아이 플레이 위드 매드니스

by Adrian Prederick Smith/Paul Bruce Dickinson/Steven Percy Harris

(연주순서)

Intro → A → B → Intro → A → B → C → D → E → F → G → H $\langle \text{Ptimes} \rangle$

템포 체인지도 많고 꽤 복잡한 곡이다. 우선은 연주 순서를 파악하고 템포와 드라이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듬파트는 템포 체인지에서의 요점이 됨으로 전체를 잘 리드해 가도록 하고 특히, [C]는 템포가 뚝 떨어짐으로 드럼은 그 앞에서부터 다음템포를 잘 생각 하도록 한다. 때가 되어 템포를 바꾸려고 생각하면안된다. 항상 앞을 내다보며 리듬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

©의 베이스는 리드믹한 프레이즈를 치고 있으나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솜씨좋게 포지션 체인지를 하고 있다. 오른손과 왼손의 타이밍을 맞추며 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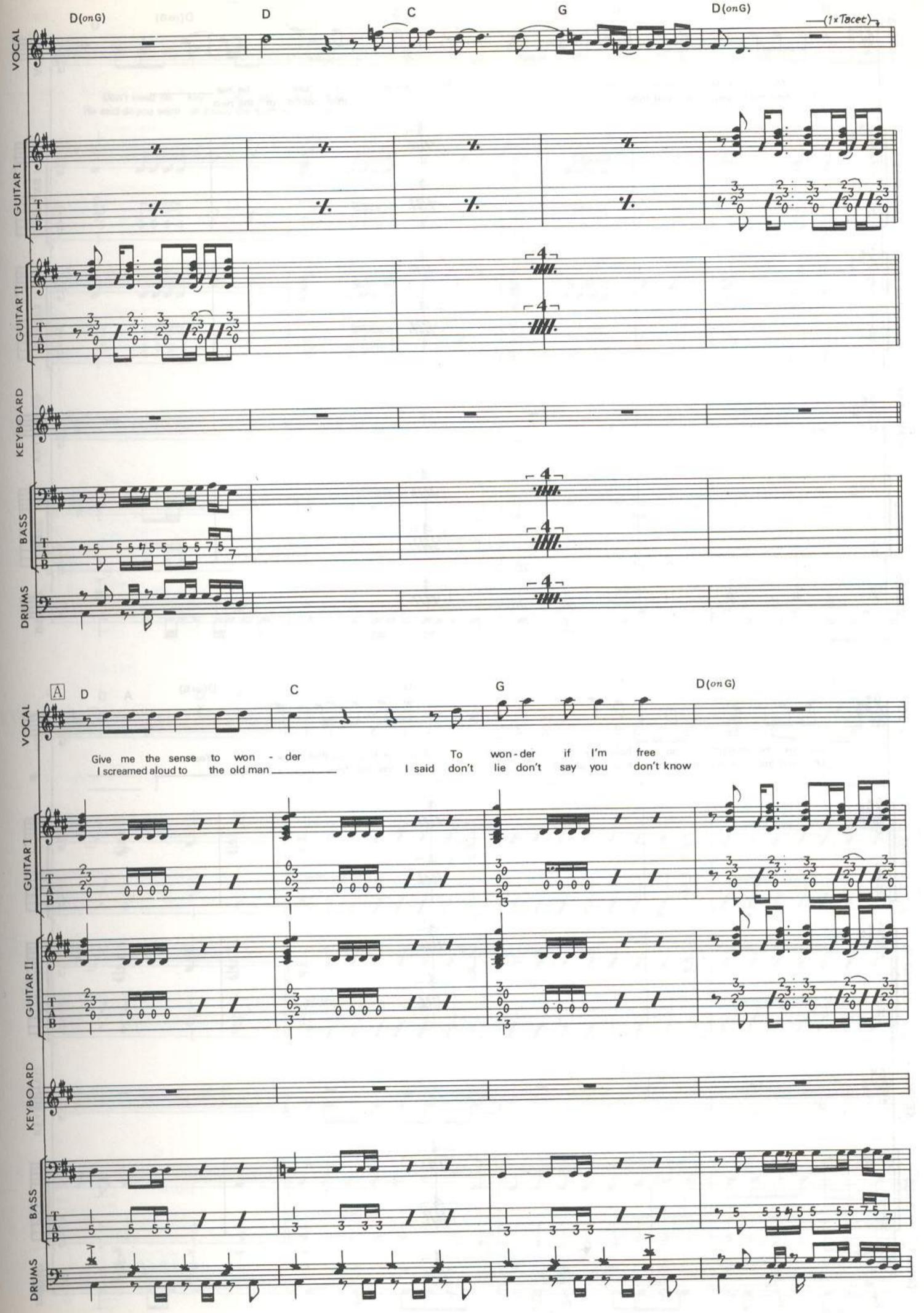
기타 솔로는 E와 F에서 약간 나오는 정도로 곡의 대부분을 배킹으로 끝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 배킹도 기타 I 과 기타II에서 거의 같은 것을 하고 있으나 한가지만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인트로에서 기타 I 이 단음을 연타하고 기타II는 화음도 묶은 프레이즈를 치고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제법 중요해서, 기타 앙 상블의 기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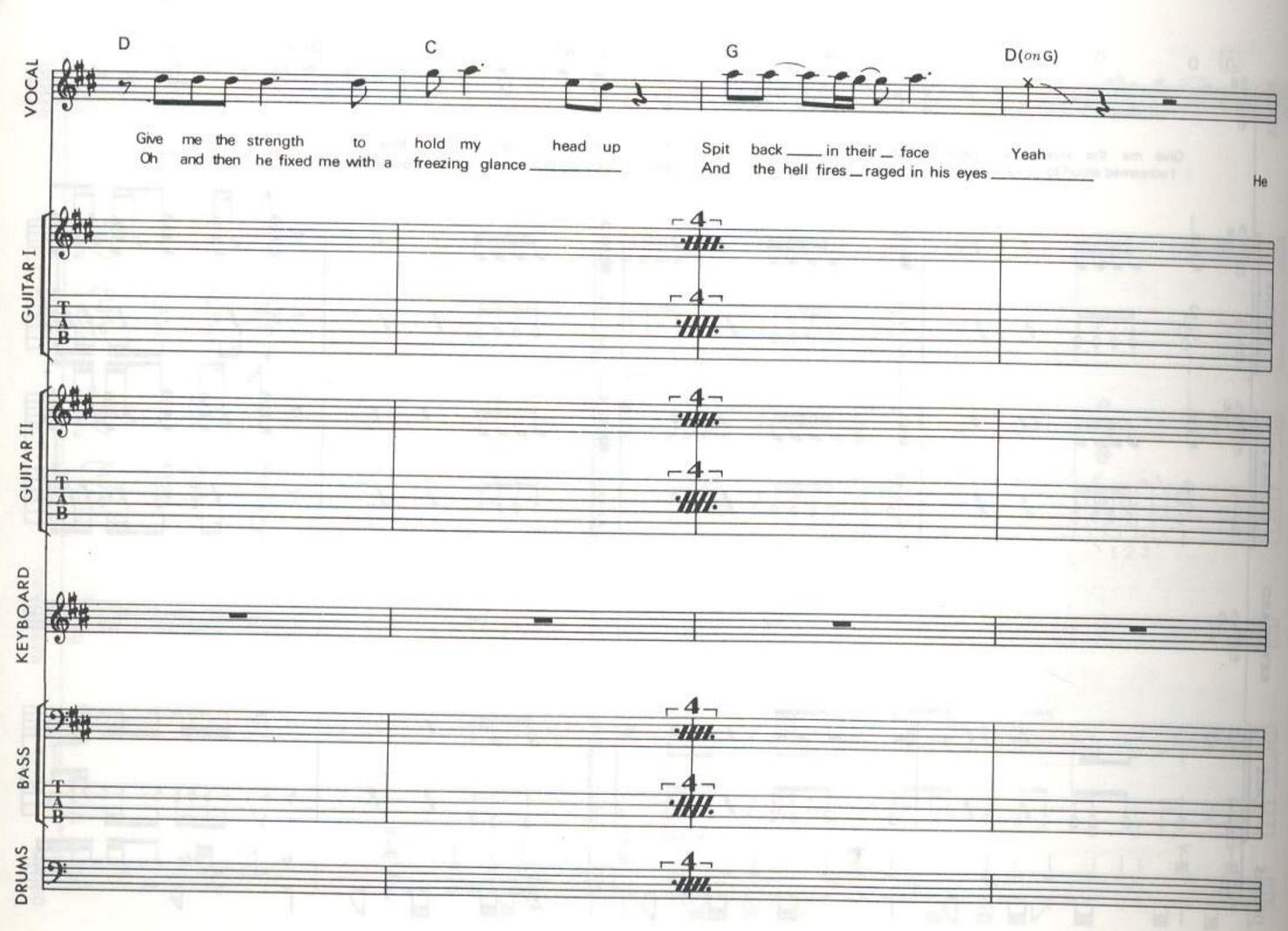
다음은 어려운 곳이 없으므로 템포 체인지와 세로의 라인을 가지런히 하는 일에 주의하면 문제 없이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끝에 브리지 부분에서 신세 브라스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부가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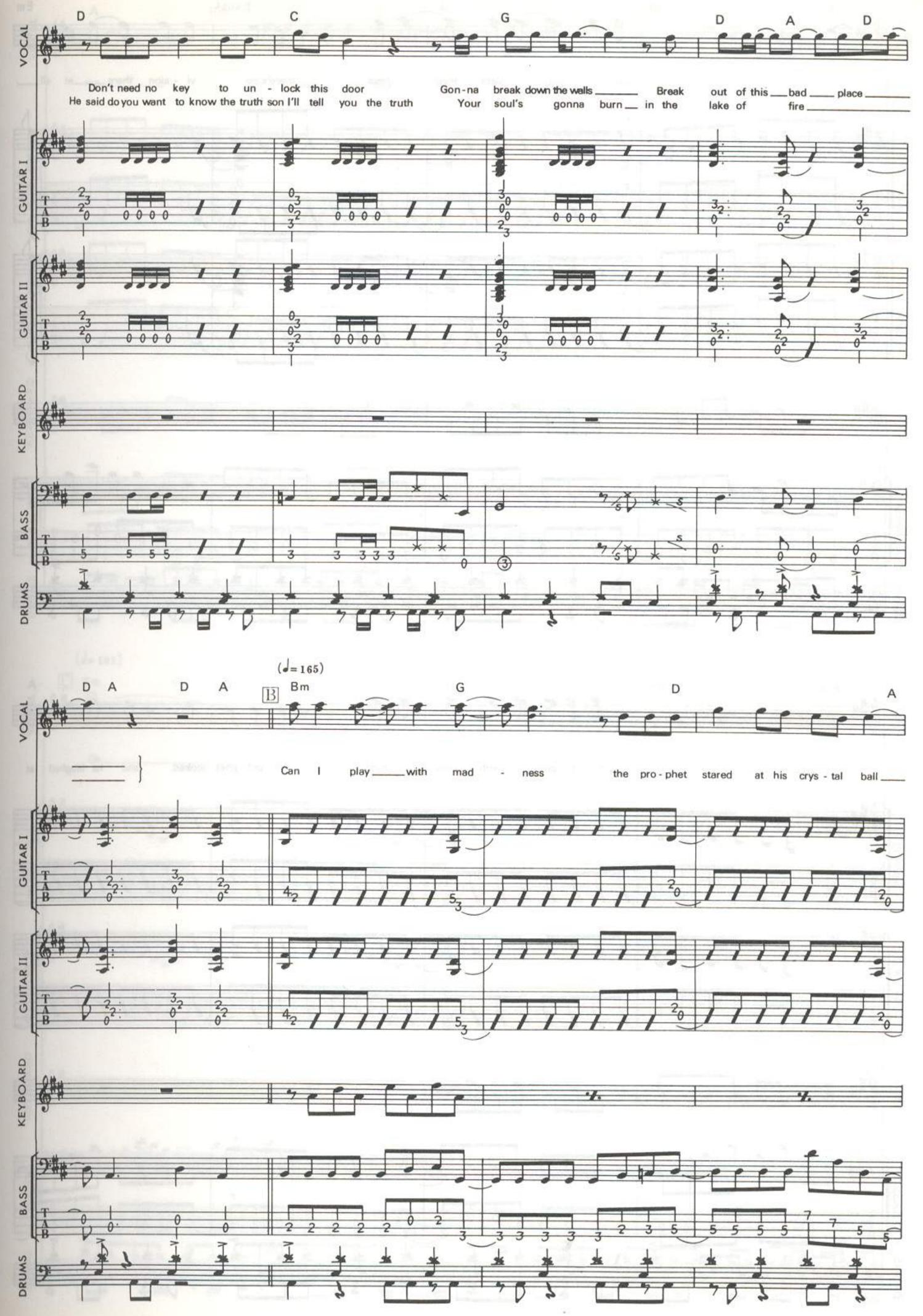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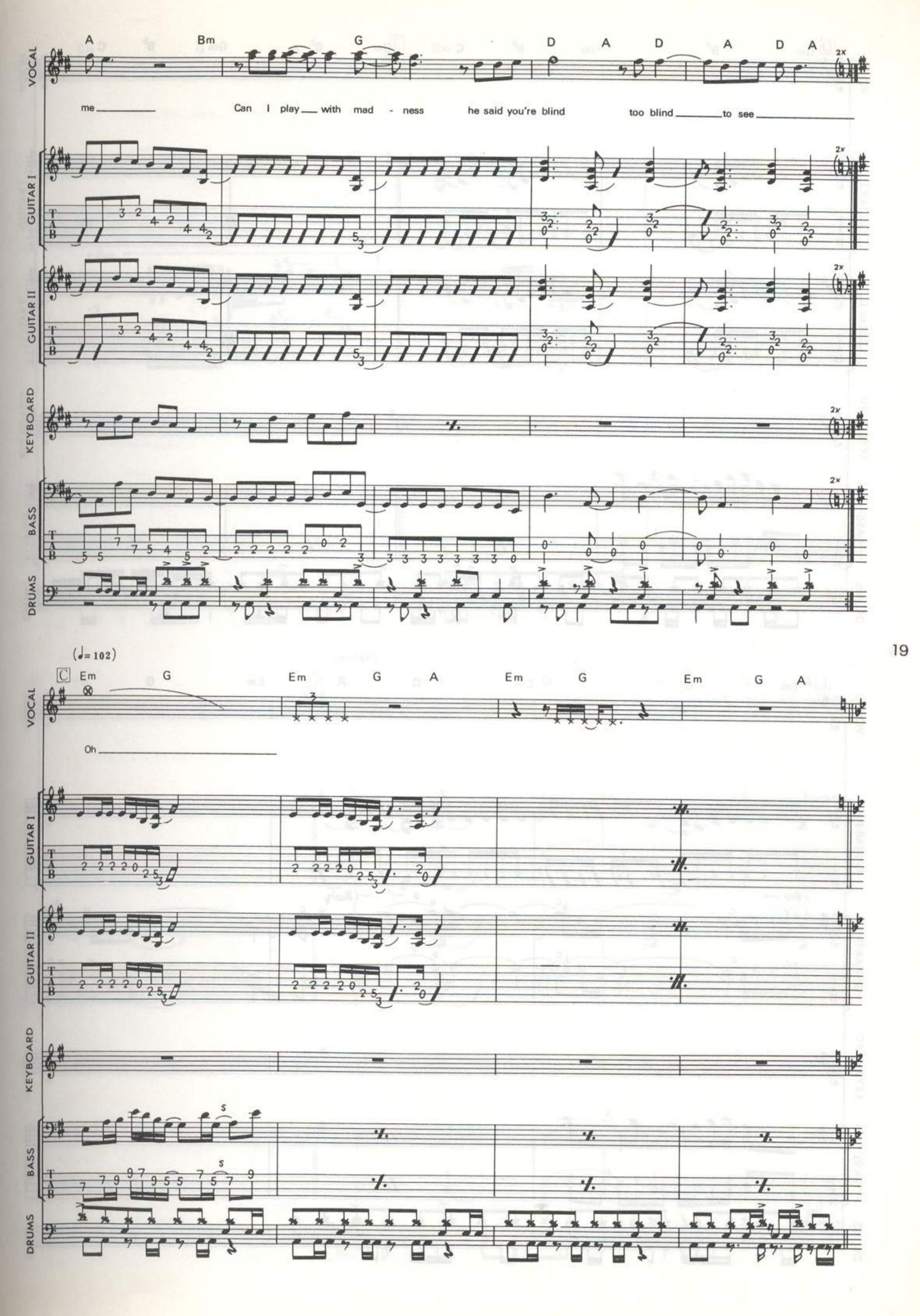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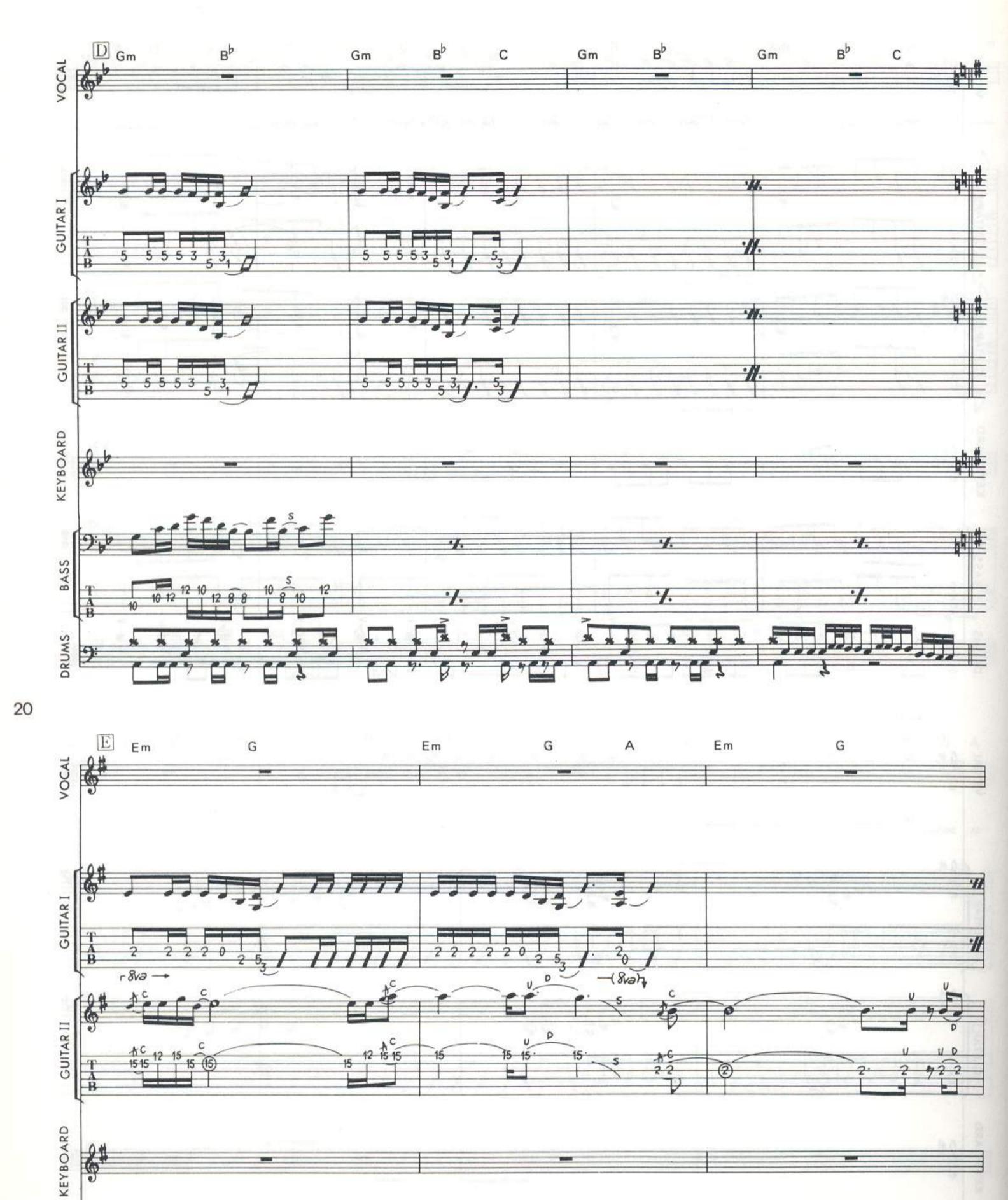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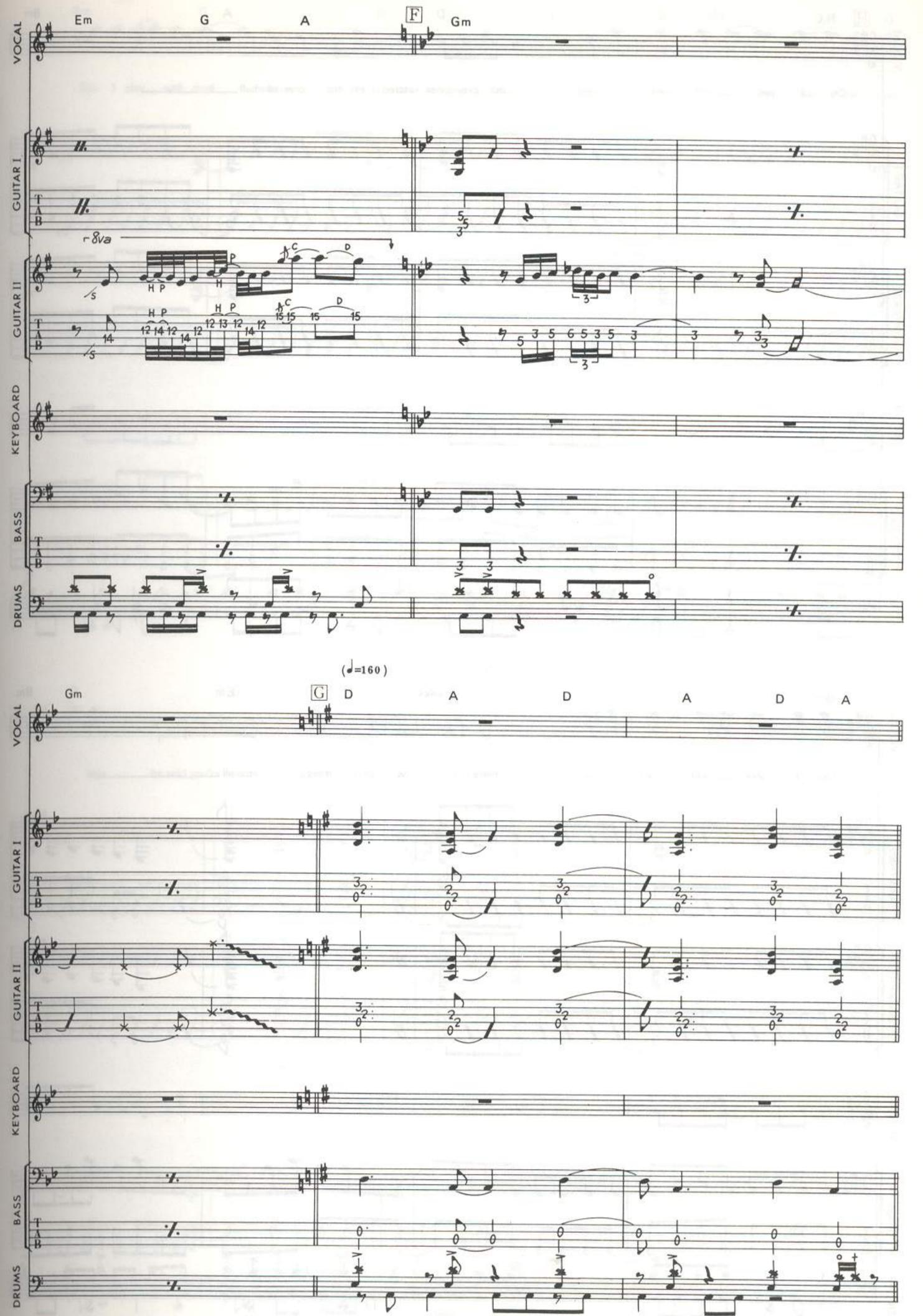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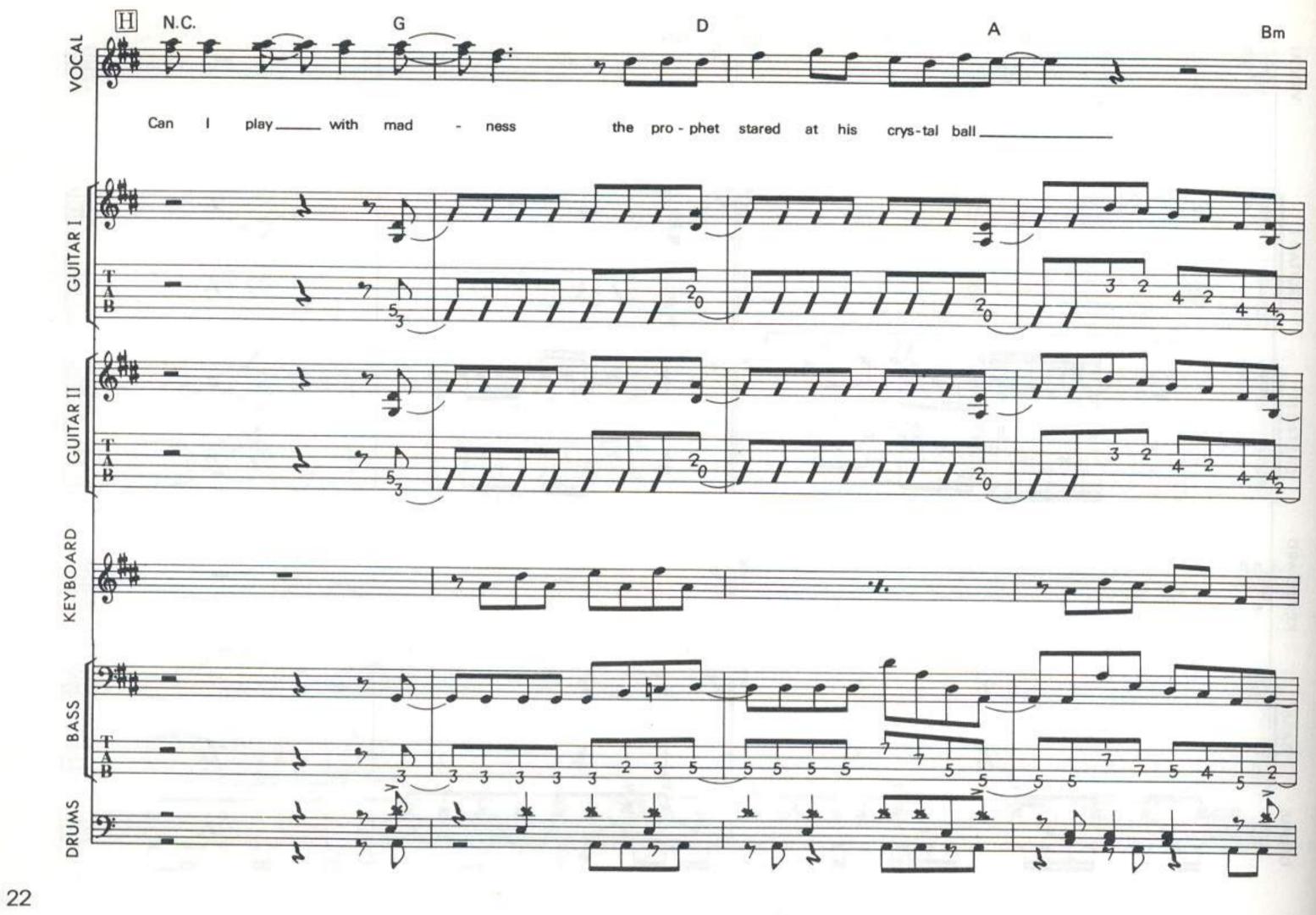
·/.

BASS

DRU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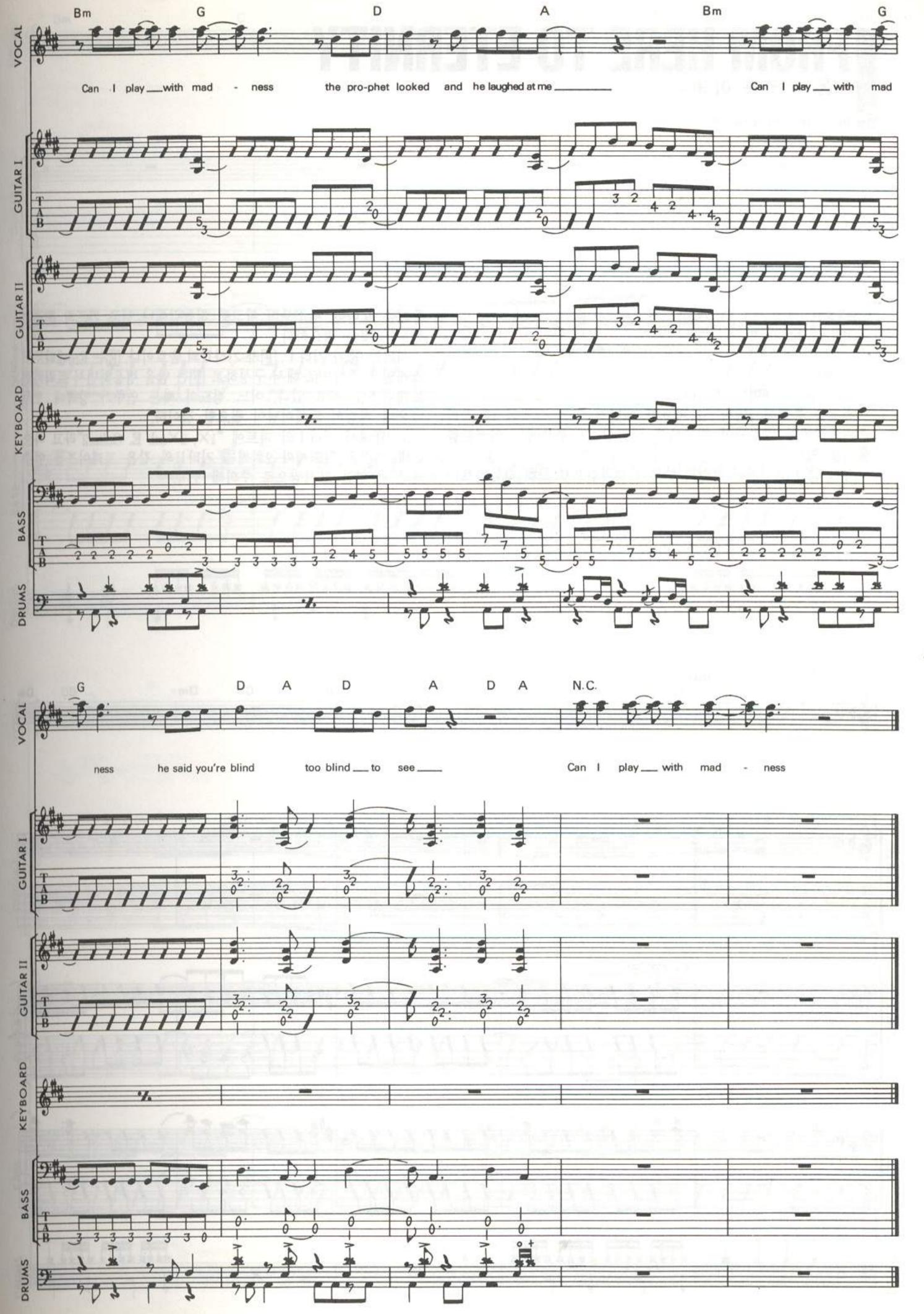












FROM HERE TO ETERNITY

프롬 히어 투 이터니티

by Steven Percy Harris

〈연주순서〉

Intro \rightarrow [B]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C] \rightarrow [D] \rightarrow [D]

〈주법해설〉

빠른 템포의 8비트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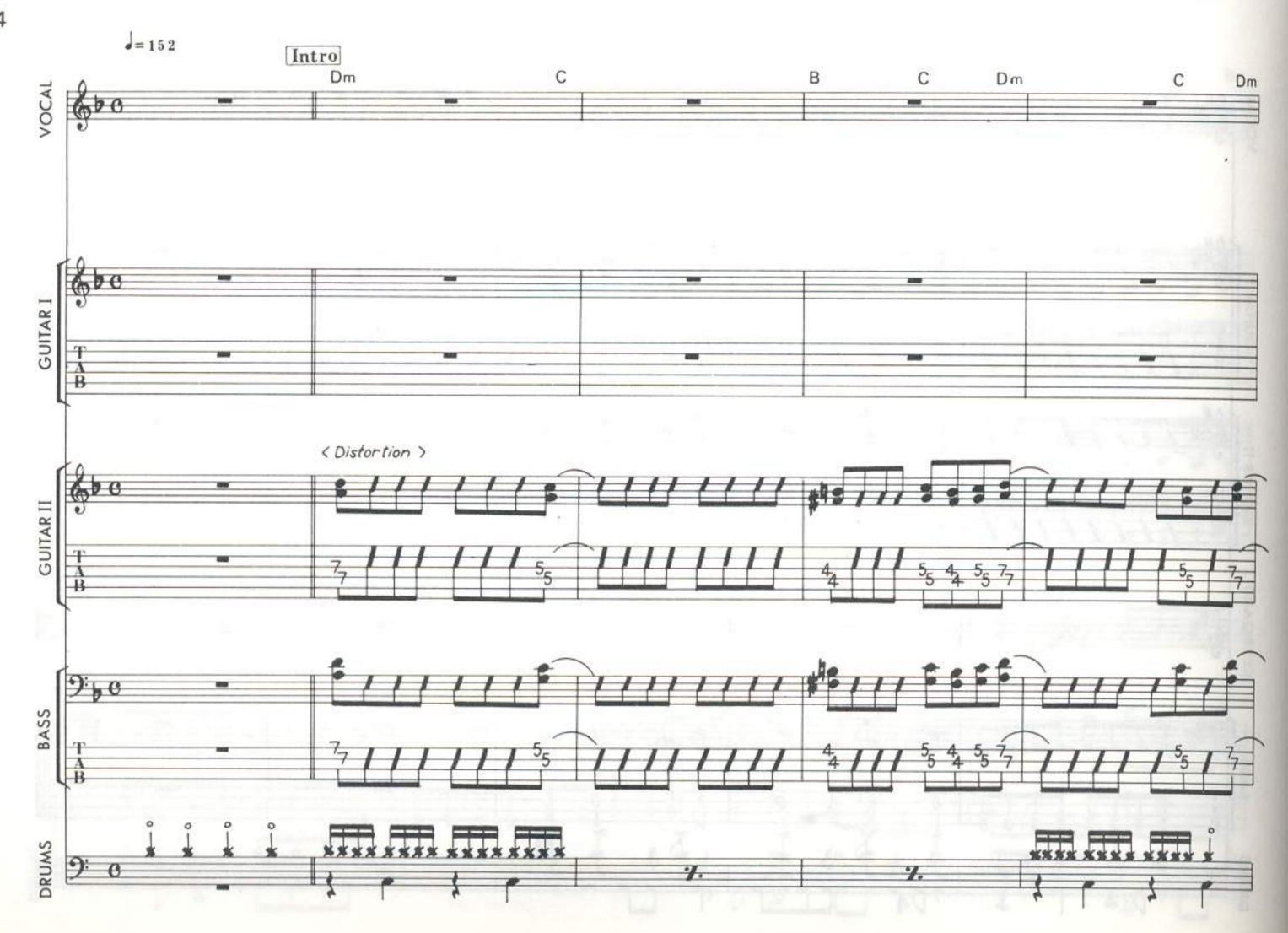
전체를 통해서 4박자 업 비트가 대단히 많고 그것이 이 곡의 스피드감에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 부분에는 악센트를 붙이게 된다.

곡의 앞과 엔딩에서 완전히 템포가 달라짐으로 특히 리듬파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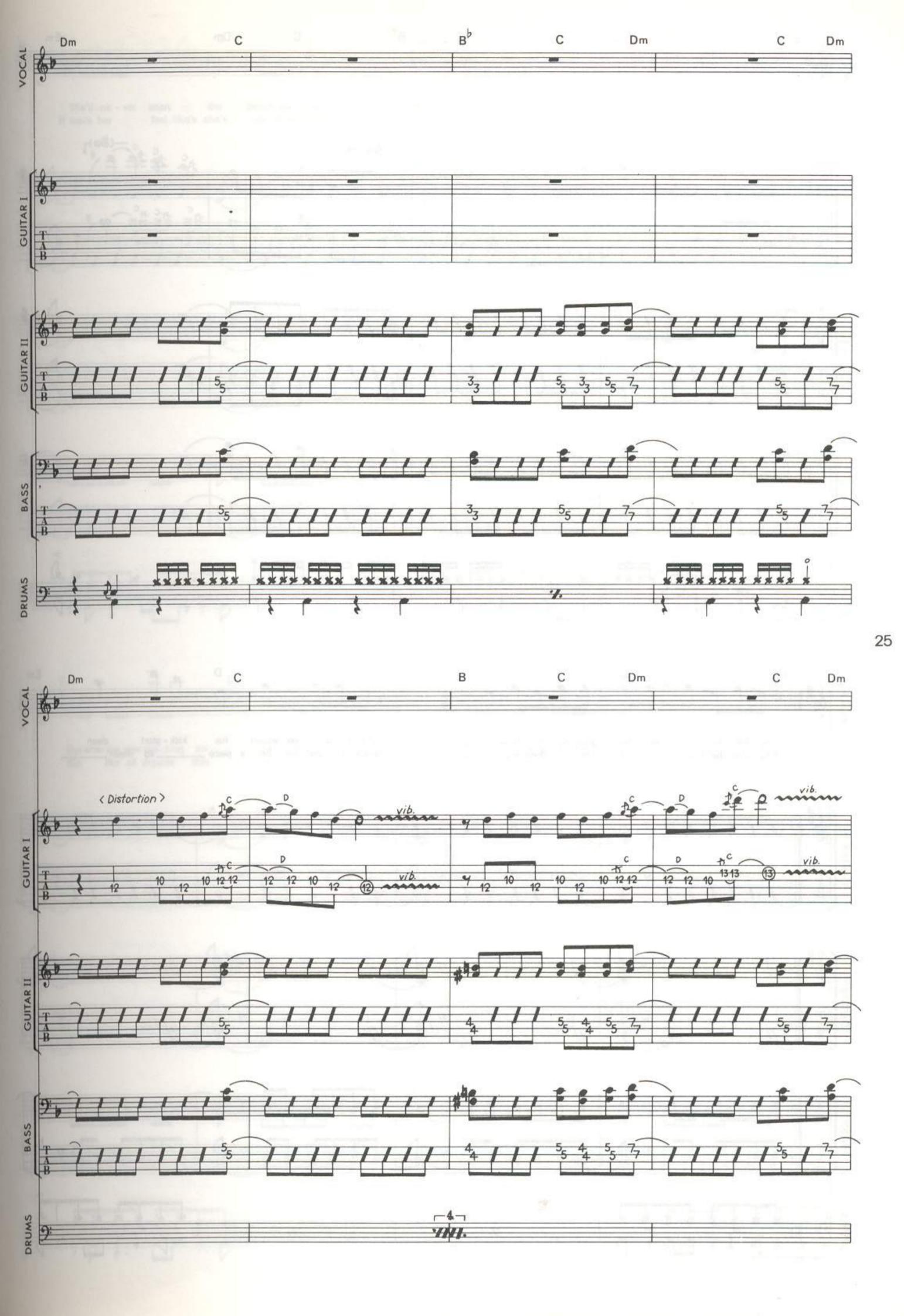
주의를 요한다. 평소부터 확고한 리듬감이나 템포 키프의 훈련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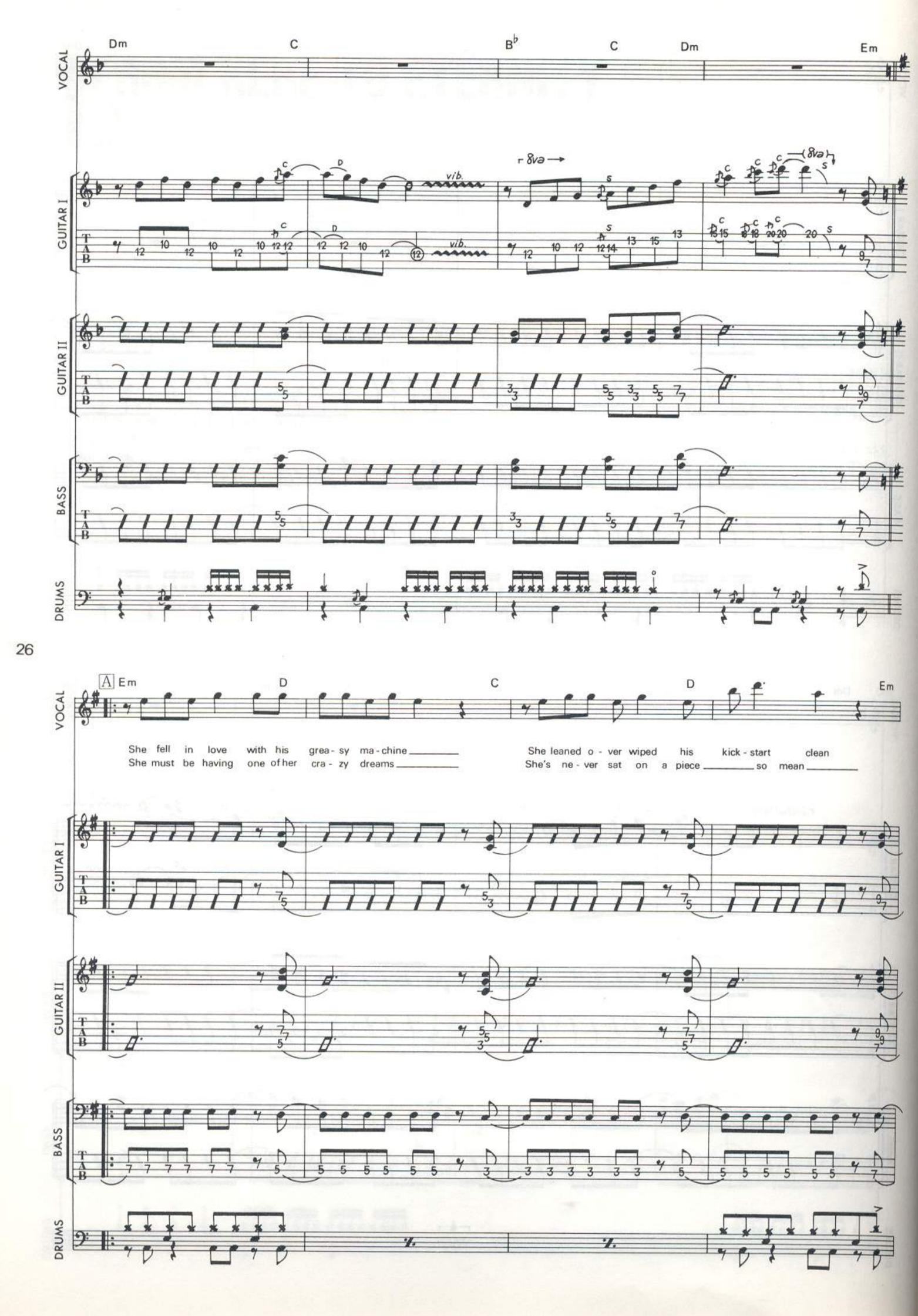
기타는 [E]가 기타 I, [F]가 기타 II의 솔로이다. [E]는 Em펜타토닉스케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F]는 암을 병용하면서 트릭키한 트레이즈를 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빠른 연주가 양쪽에 모두나오니 피킹의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이다.

또 🖪에서 기타 I 의 파트에 "1×, 2×col. E. Guitar2"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1회째와 2회째는 기타 II 와 같은 프레이즈를 연주하라"고 하는 표시임으로 주의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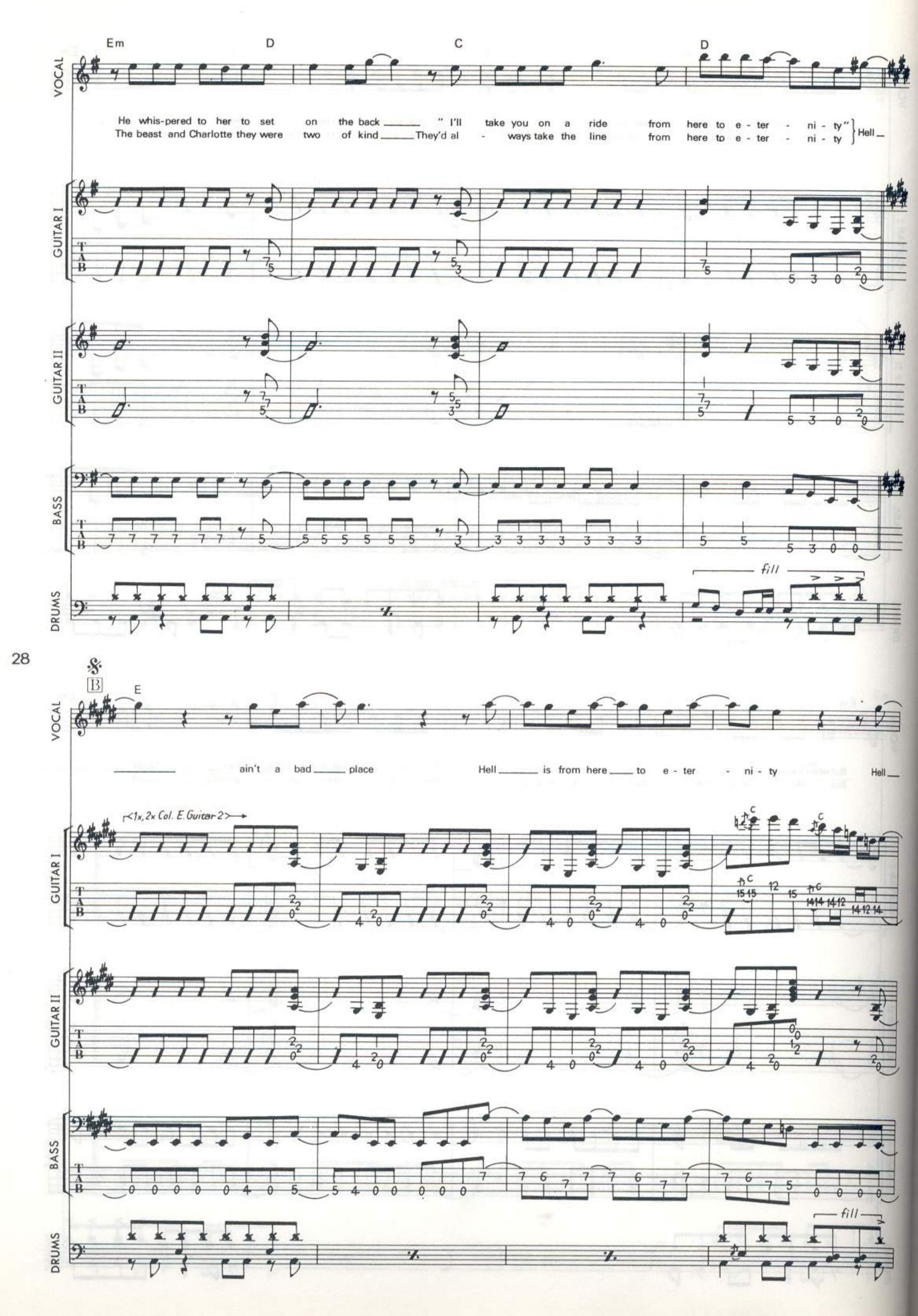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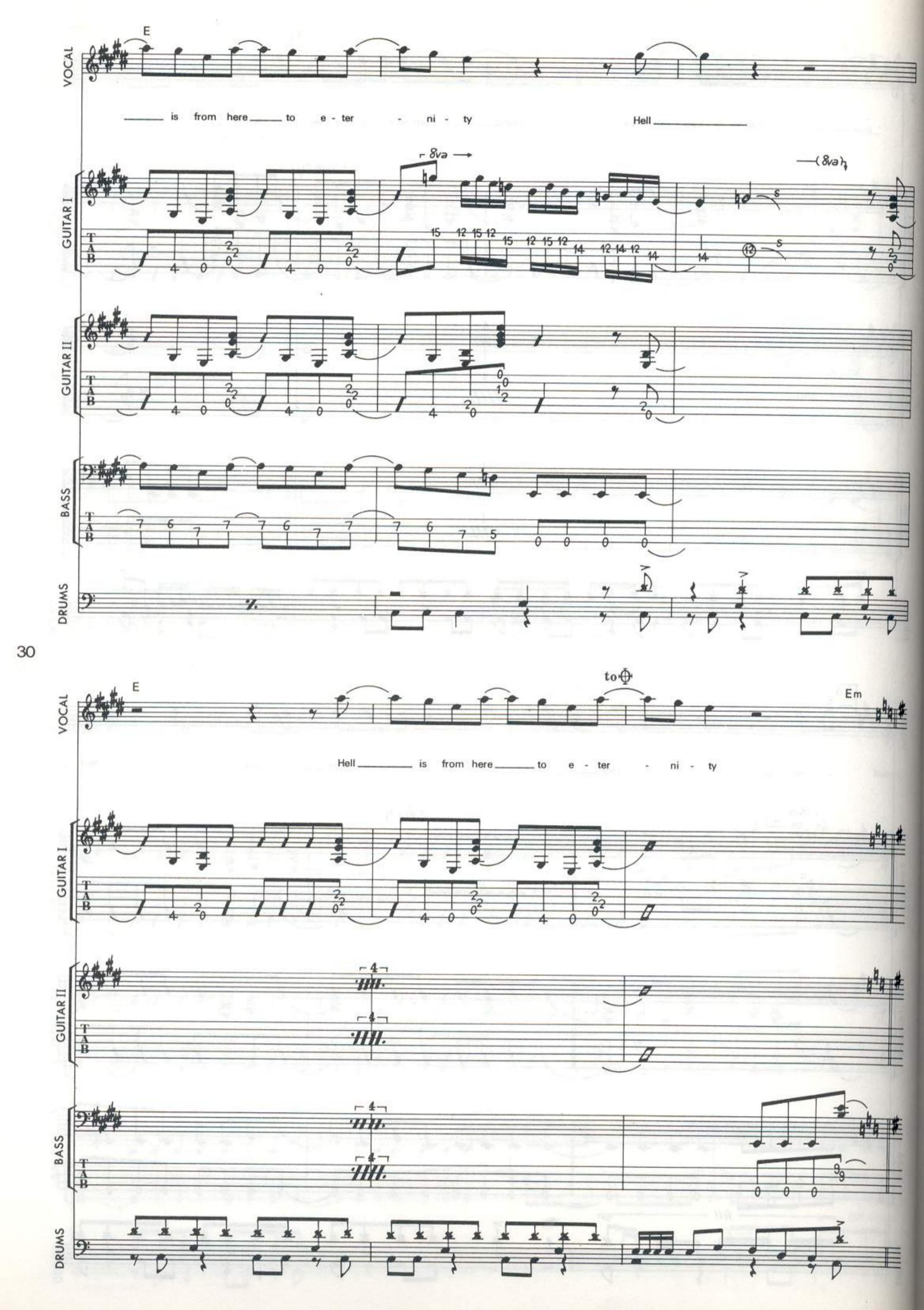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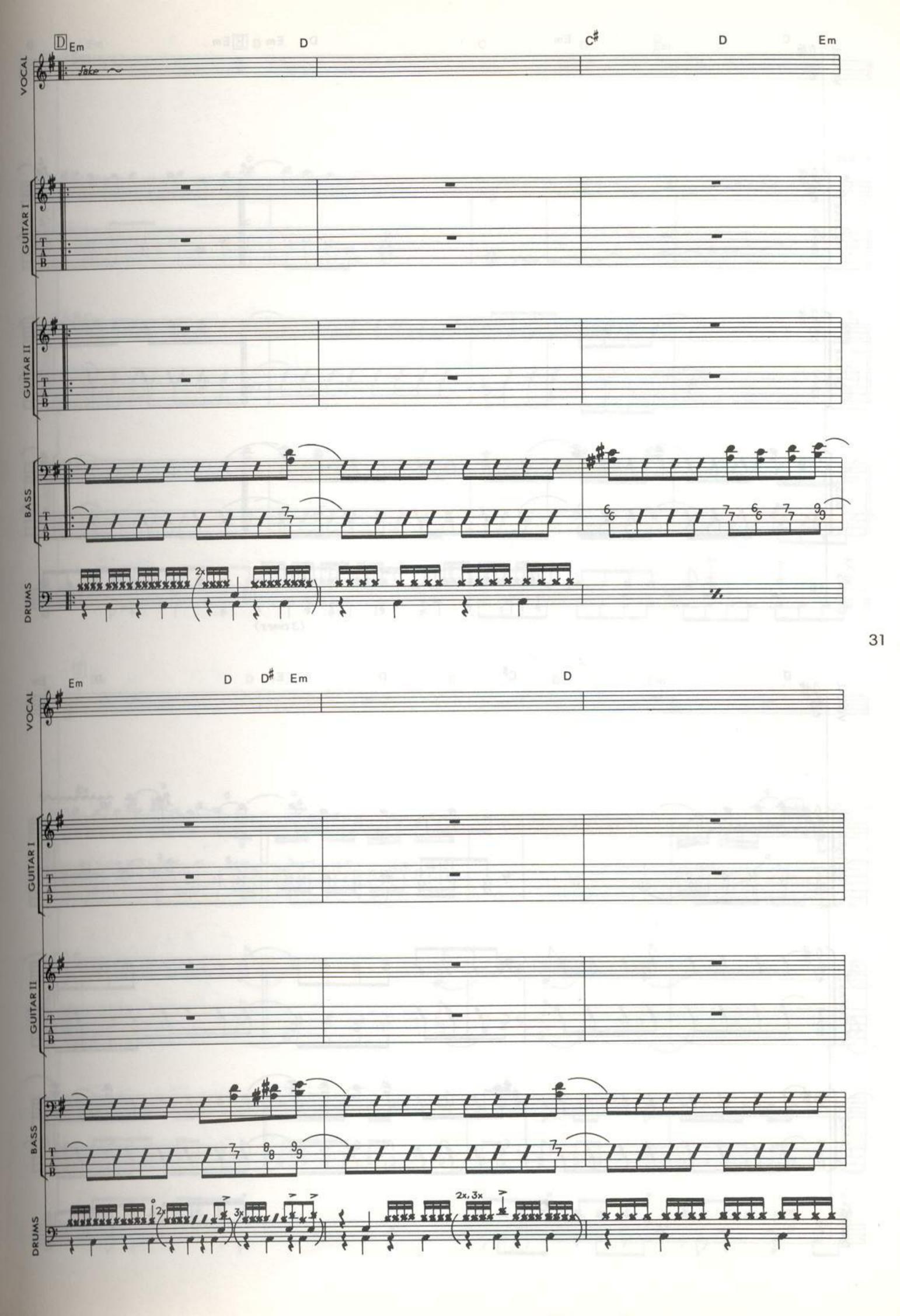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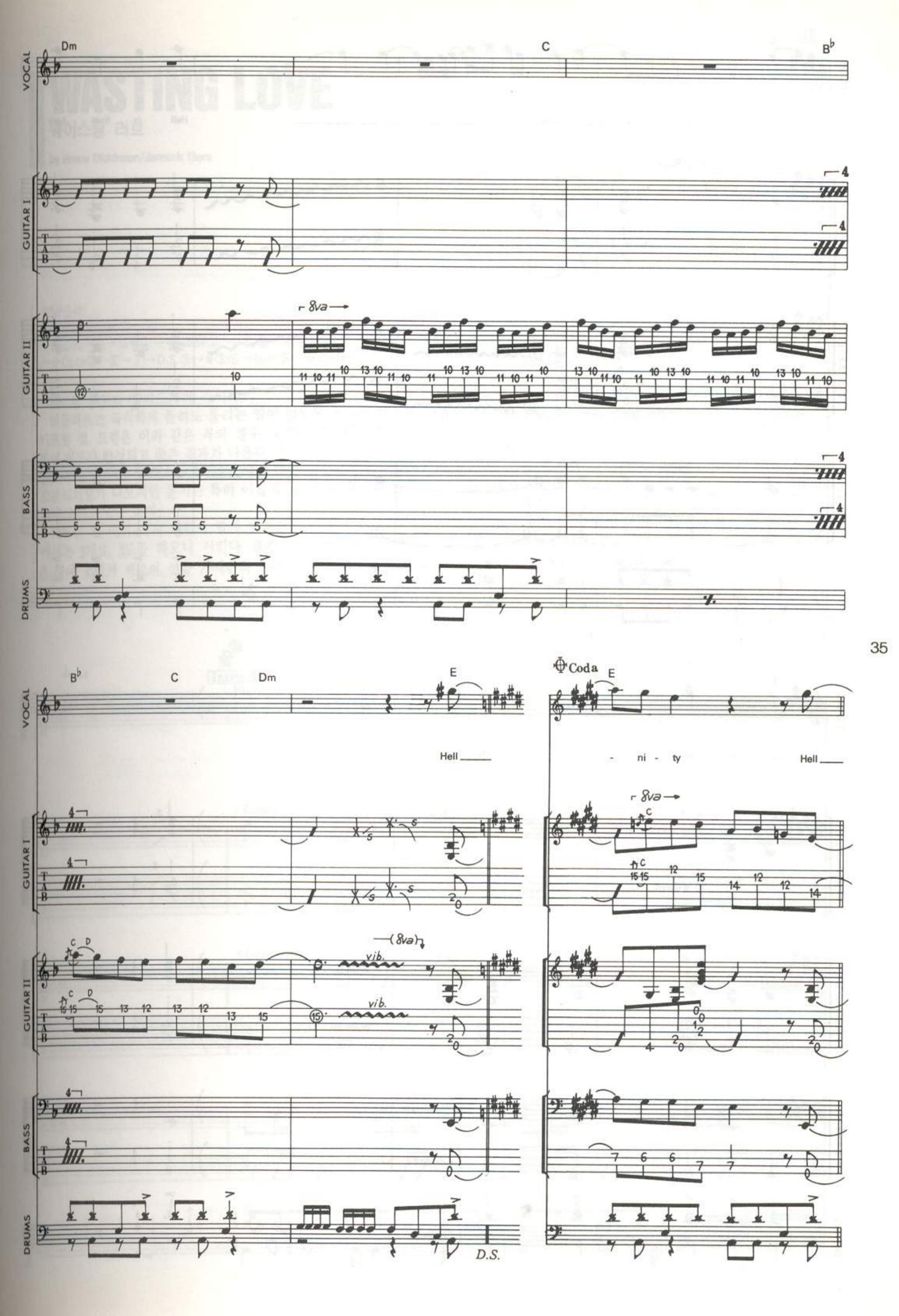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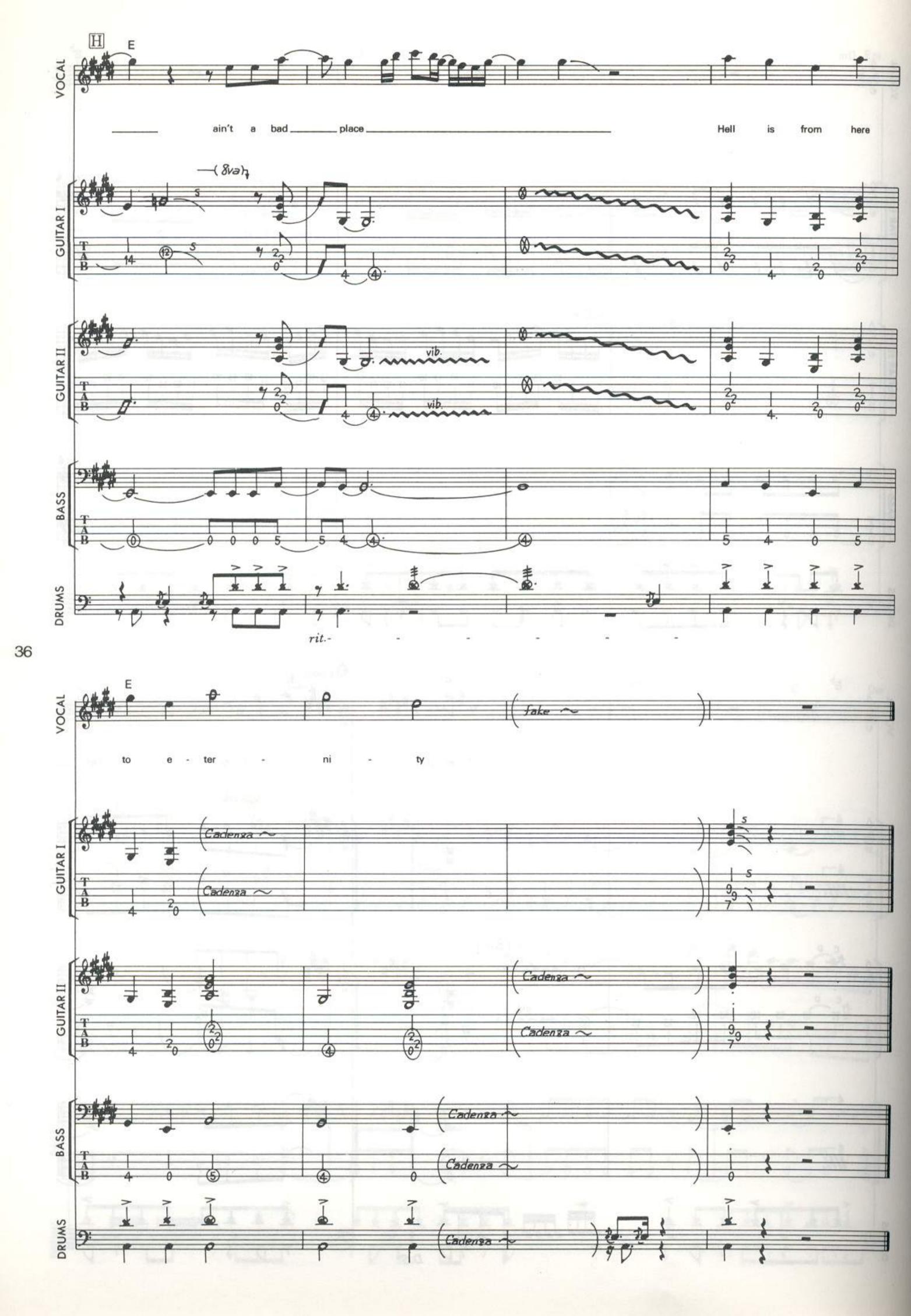












WASTING LOVE

웨이스팅 러브

by Bruce Dickinson/Jannick Gers

(연주순서)

Intro①→Intro②→A→ Γ 1. →A→ Γ 2. →B→C3 →D→D.S.① →\$①B→C0→to Φ ①→ Φ Coda①→D.S.②→ Φ ②Intro①→to Φ ② → Φ Coda②→E→F→D.S.③→ Φ 3 B→to Φ 3 → Φ Coda③→G4 〈주법해설〉

완만한 템포의 발라드계의 곡이다.

리듬파트는 묵직하게 들려도 틀리는 일이 없도록 확고히 템포를 키프할 것. 드럼은 이와 같은 곡의 경우, 오히려 "쿵쿵" 두드리는 편이 비트가 안정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조그맣게 연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베이스는 인트로 2에서 하이 포지션까지 사용한 오블리가토가 나오지만 운지는 특히 어렵지 않음으로 확실히 줄을 눌러 연주하도록 하자.

기타는 꽤 여러 가지 패턴이 함께 담겨진 곡이다. 우선 인트로 에서는 2개로, 3도를 하모니 시킨다. 초킹이나 슬라이드, 해머링 온 등의 곳에서 세로의 선을 가지런히 하여 잘 어울리도록 하자. 특히 초킹하는 곳에서, 초킹 업하는 스피드는 생각해서 훈련하면 좋은 하모니가 될 것이다.

인트로 2나 A·C·D에서는 내추럴 톤에서의 아르페지오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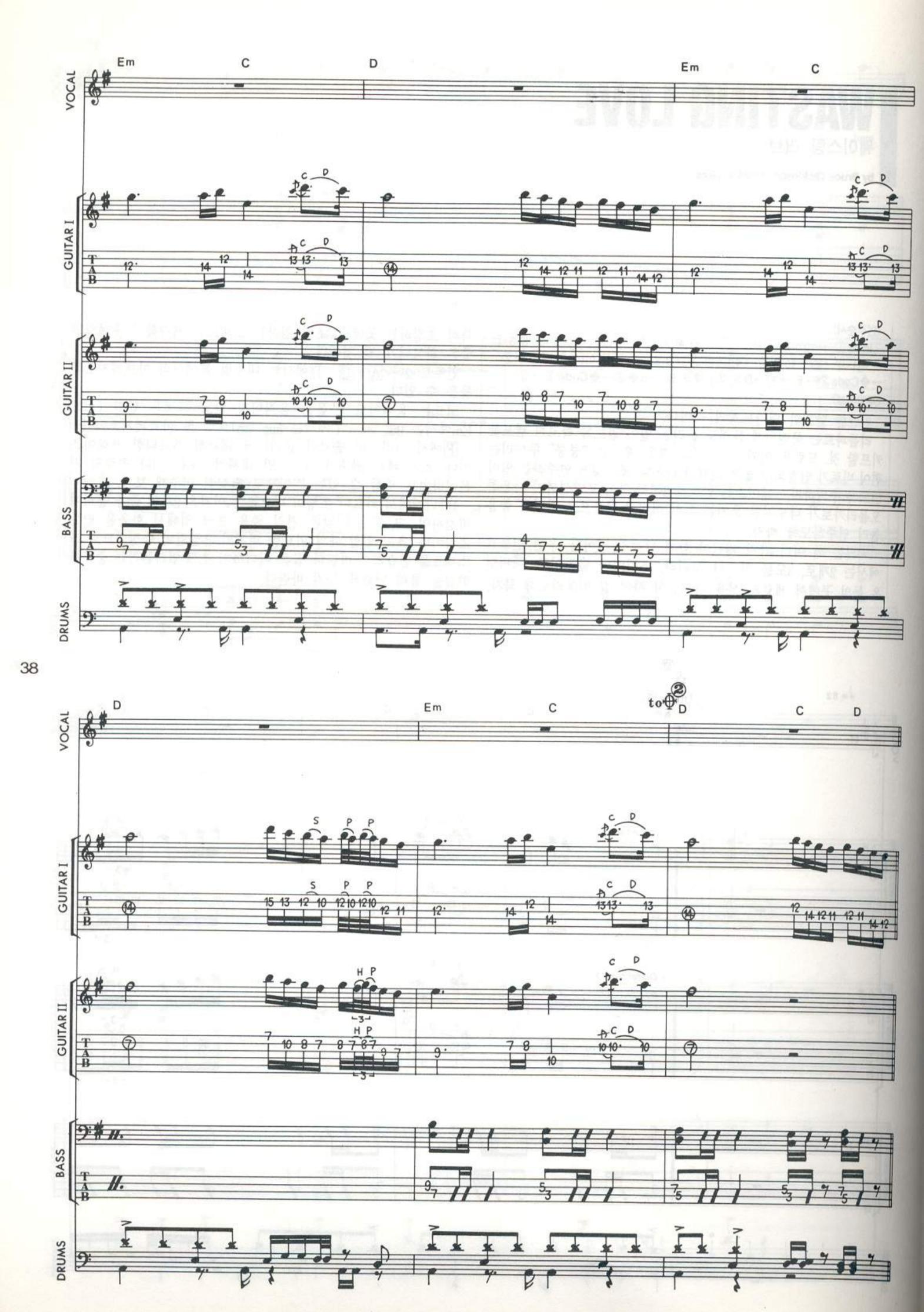
코드는 움직여도 F'음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은 텐션 (코드 Em에서는 9th, 코드 C에서는 aug llth)으로 한 아르페지오이다.

[F]에서 기타II의 솔로가 들리는데 대단히 멜로디한 프레이즈이다. 조금 빠른 연주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기타 솔로의 기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실히 연주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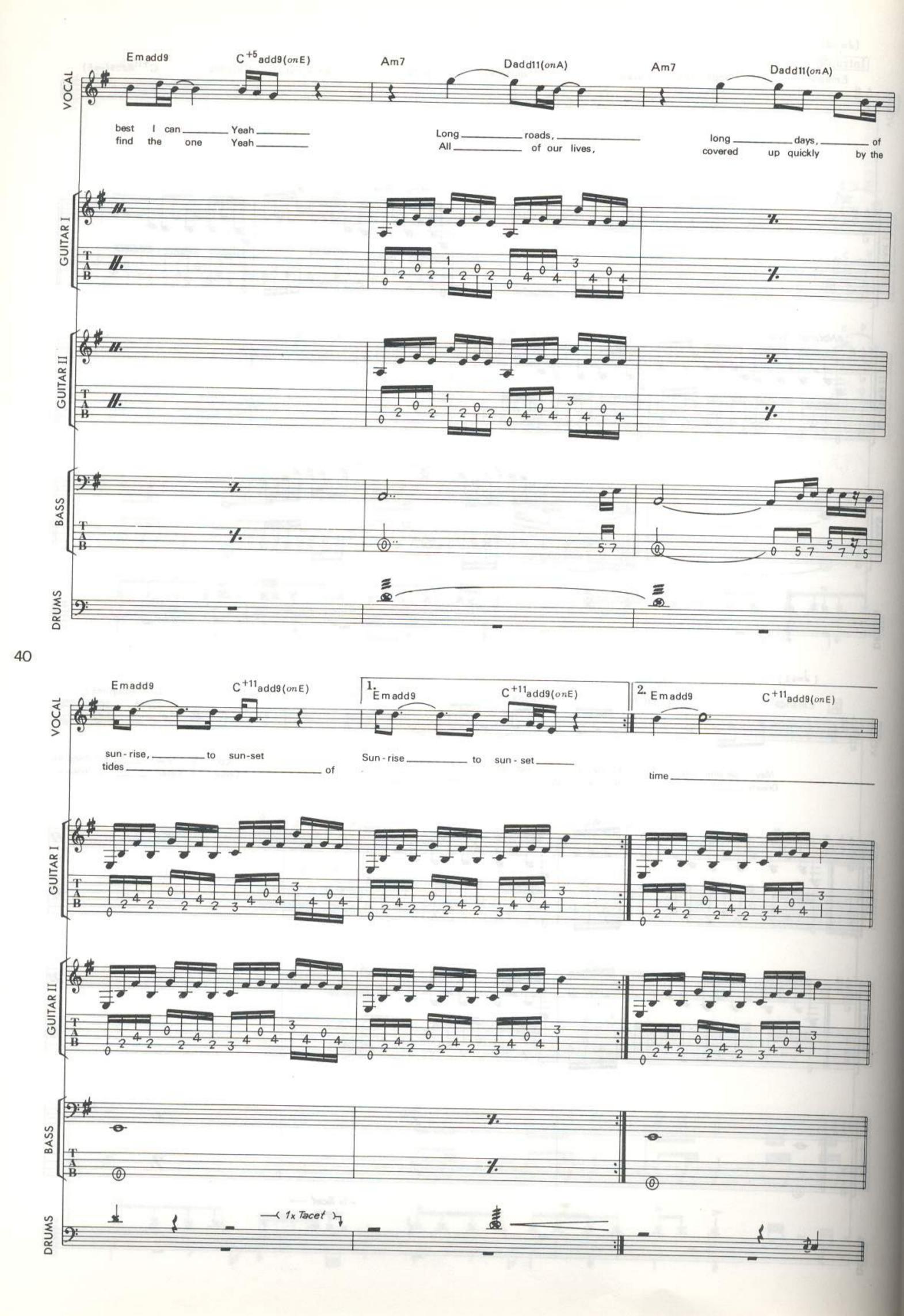
1마디째에서 하모니 초킹이 나오는데 이것은 2개의 줄을 동시에 피킹하여, 그 직후에 낮은 편의 줄을 초크 업해서 화음을 만든 초킹이다. 쵸크 업할 때의 미묘한 피치의 흔들림이 특징이므로 그 스피드를 연습하기 바란다. 물론 어디까지 초크 업하는가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 단련해 두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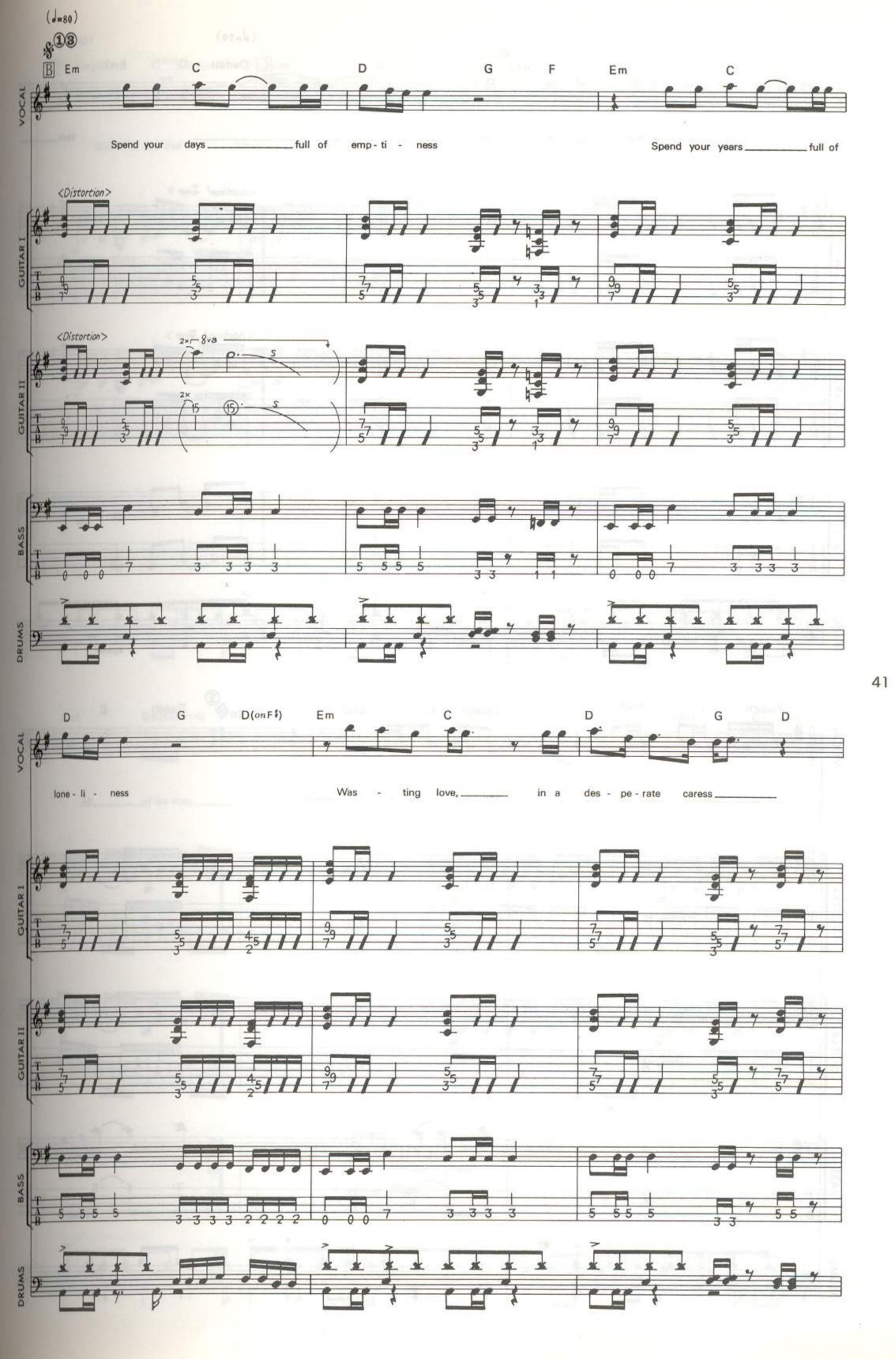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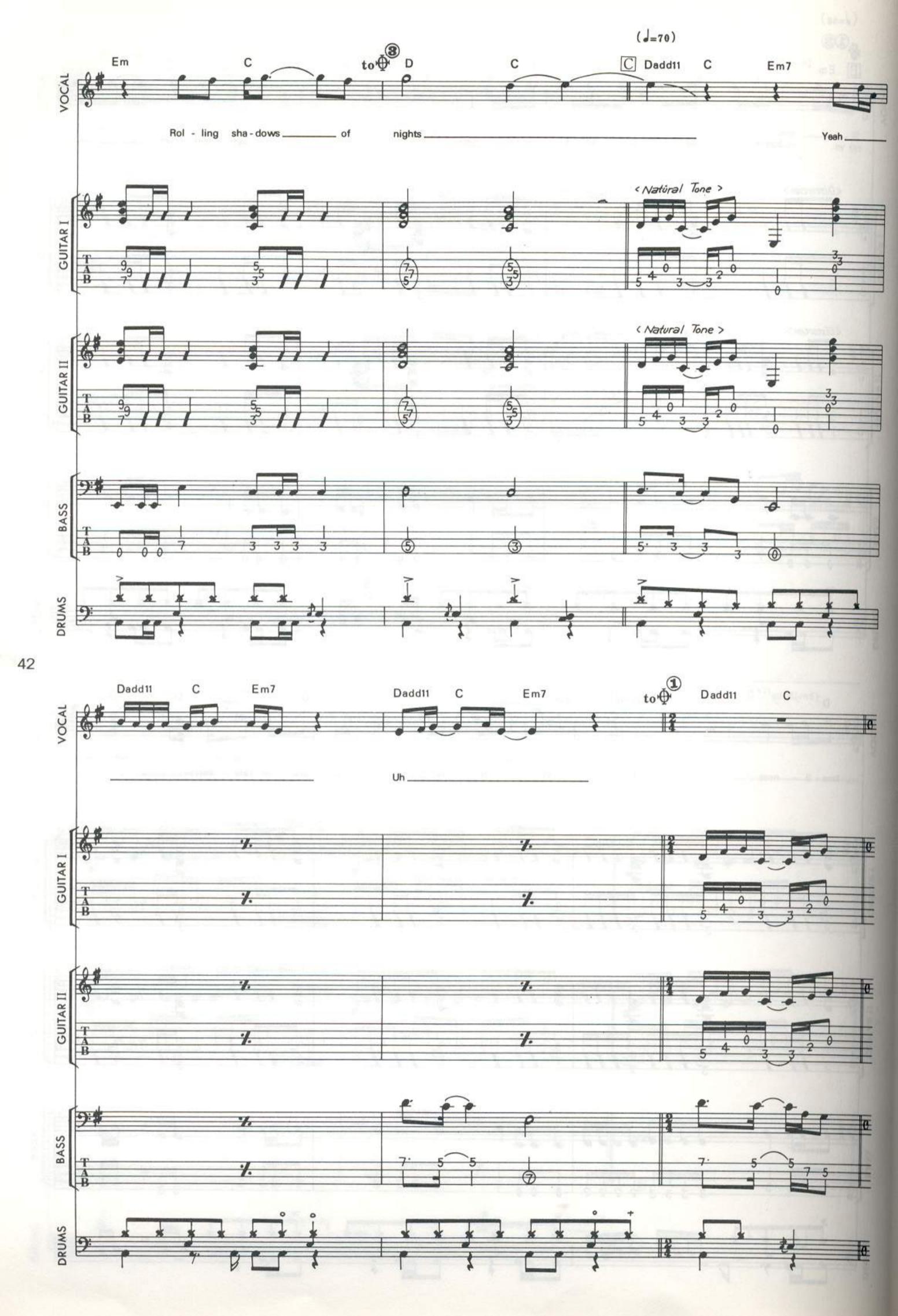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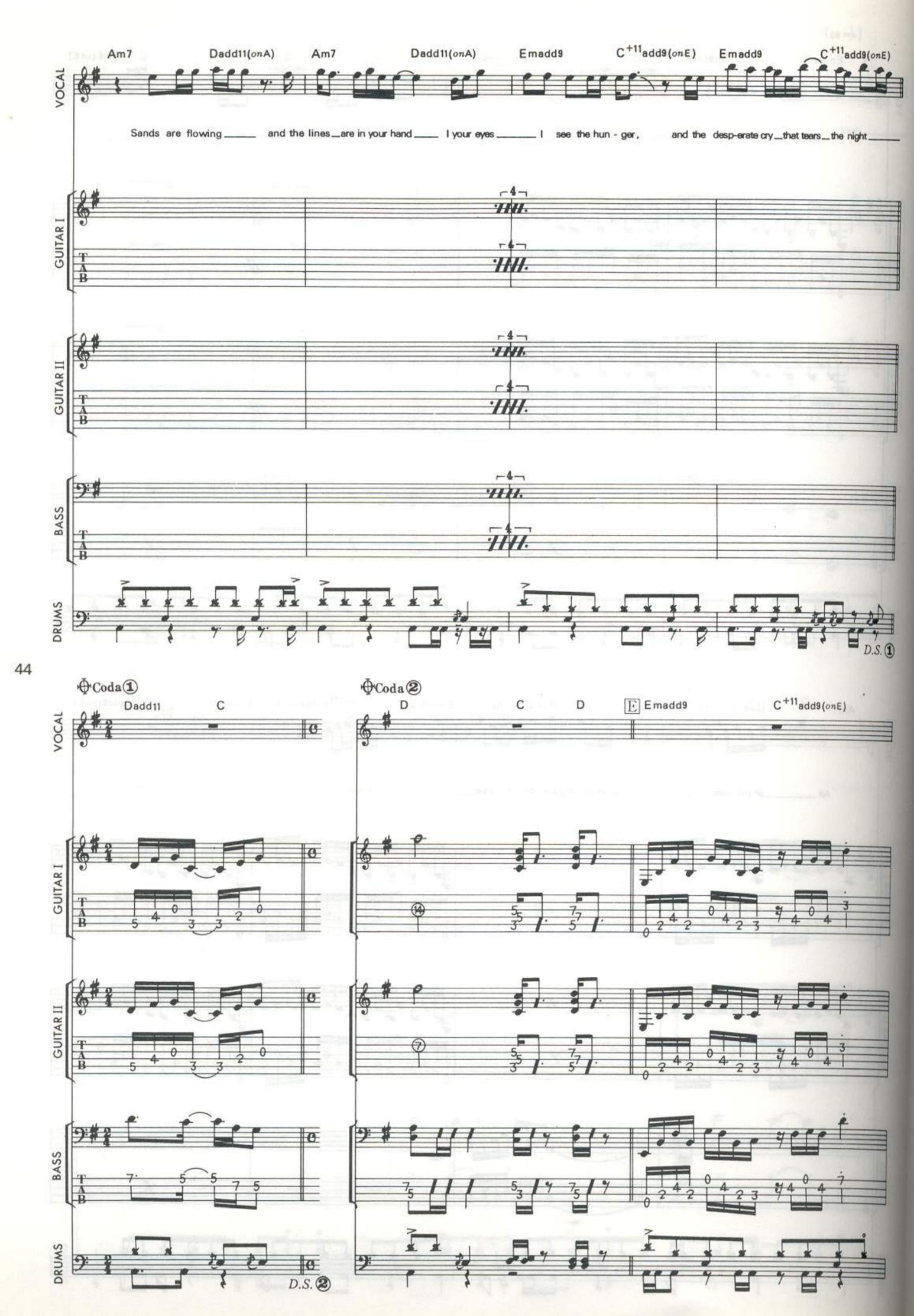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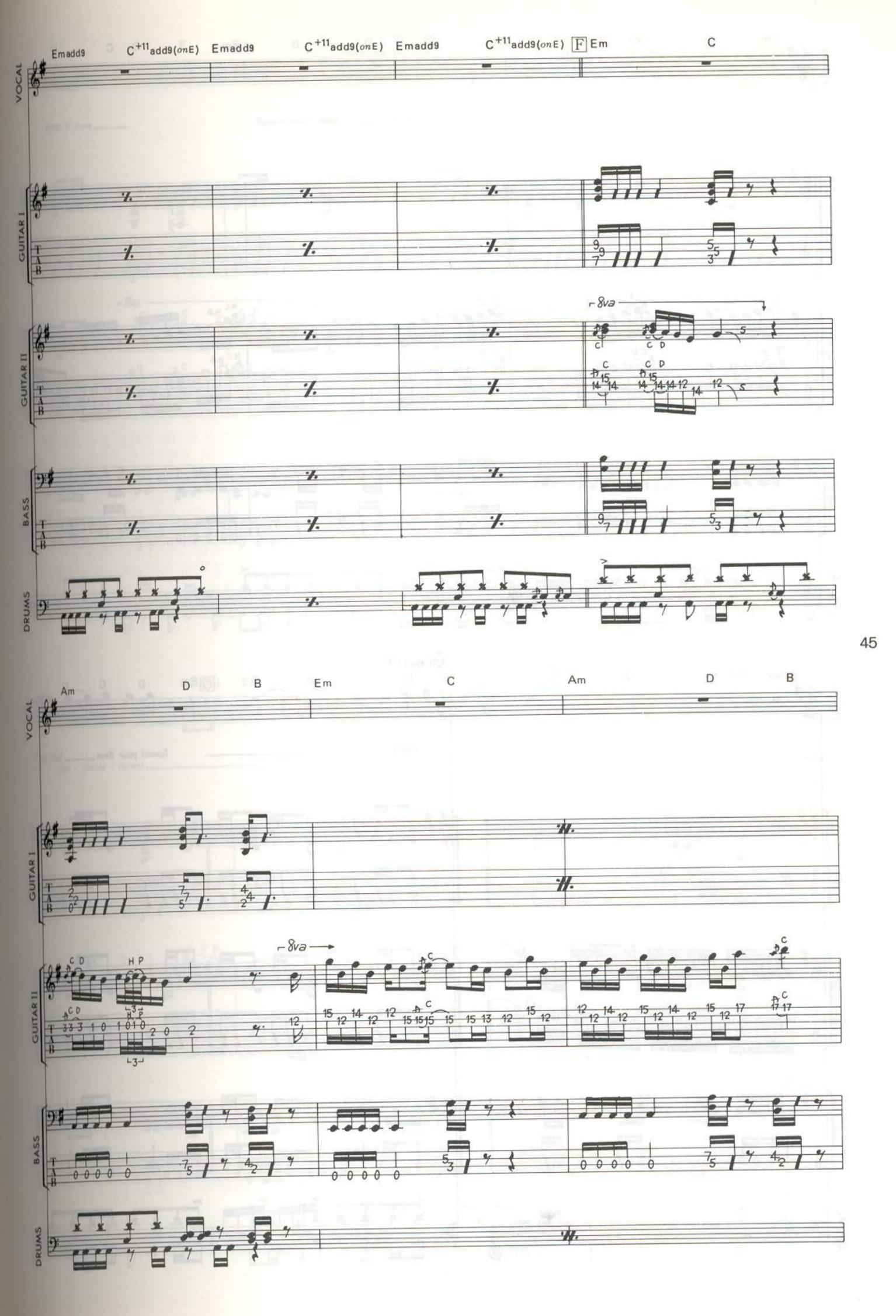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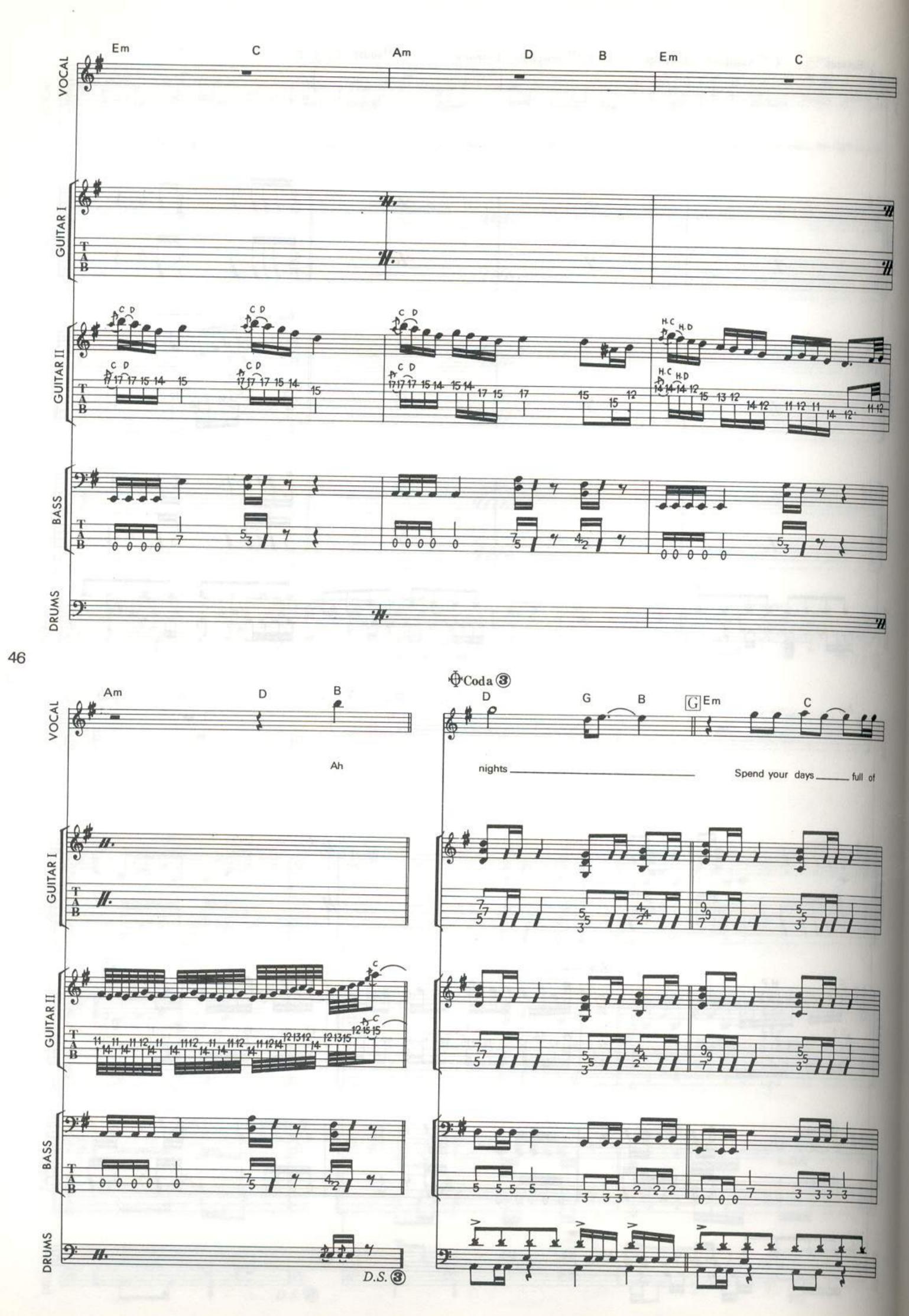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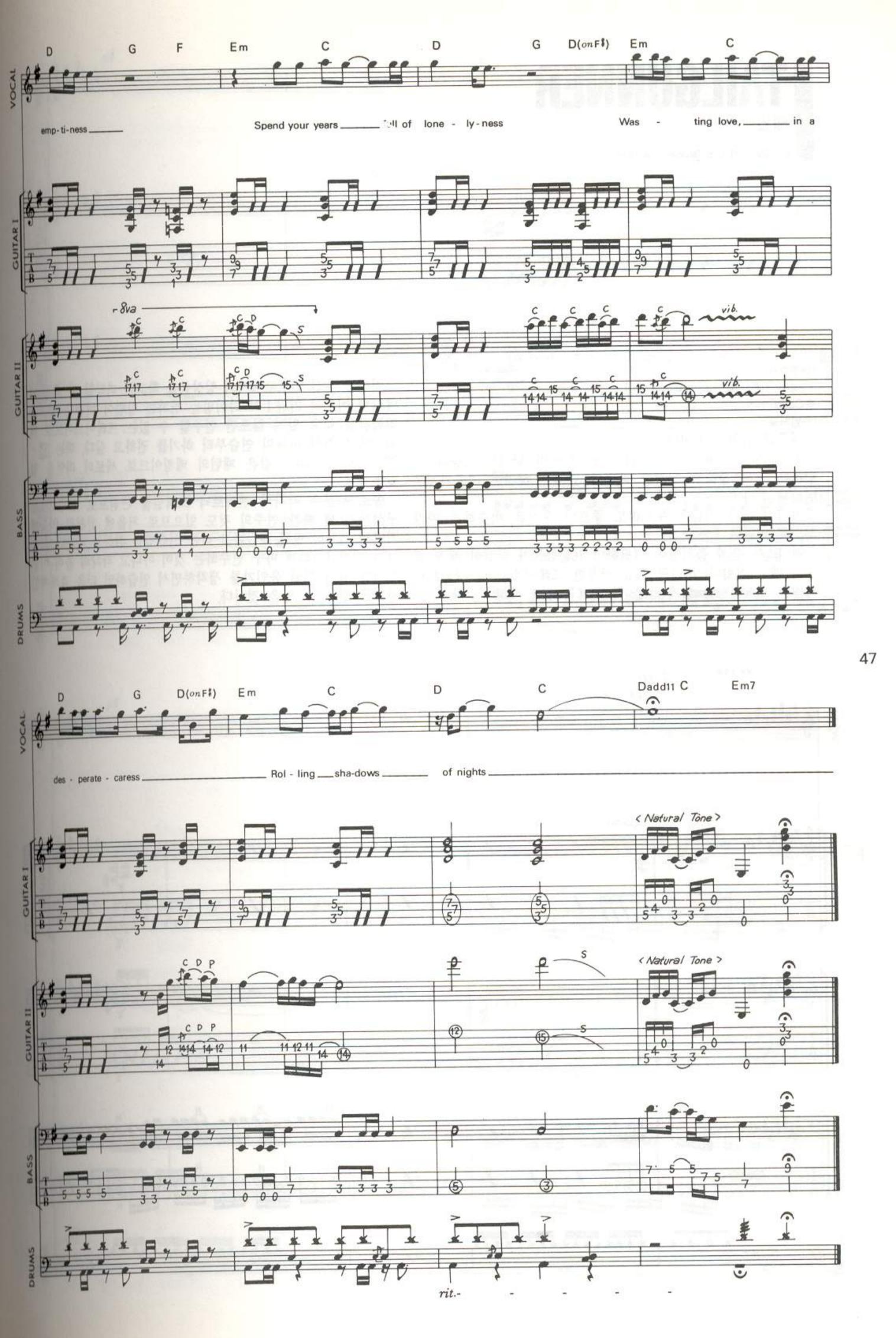












TAILGUNNER

테일 거너

by Steve Harris/Bruce Dickinson

〈연주순서〉

〈주법해설〉

질주감 넘치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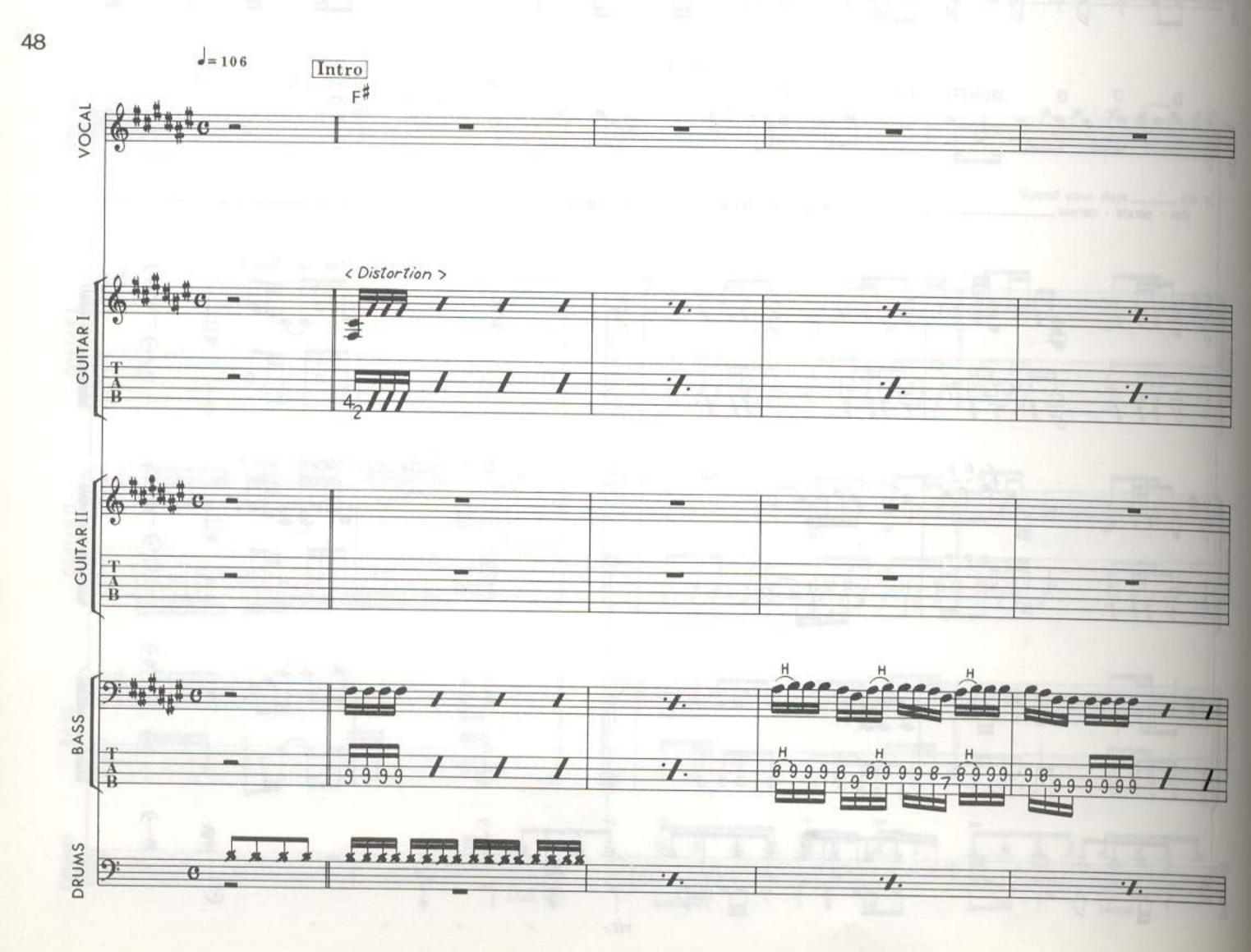
이 곡은 특히 베이스와 드럼이 포인트이며, 난이도도 높다. 드럼스는 곡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자재로 변화해 간다.

자기 나름의 리듬을 두드려도 좋으나 우선은 비슷하게 따라 하도록 바란다.

베이스는 음의 움직임이 격렬하며 16분음표가 끝없이 계속 됨으로 매우 어렵다. 해머링 온을 사용한 프레이즈도 잘 나옴으로 피킹의 트레이닝과 함께 줄을 꼭 누르는 것도 중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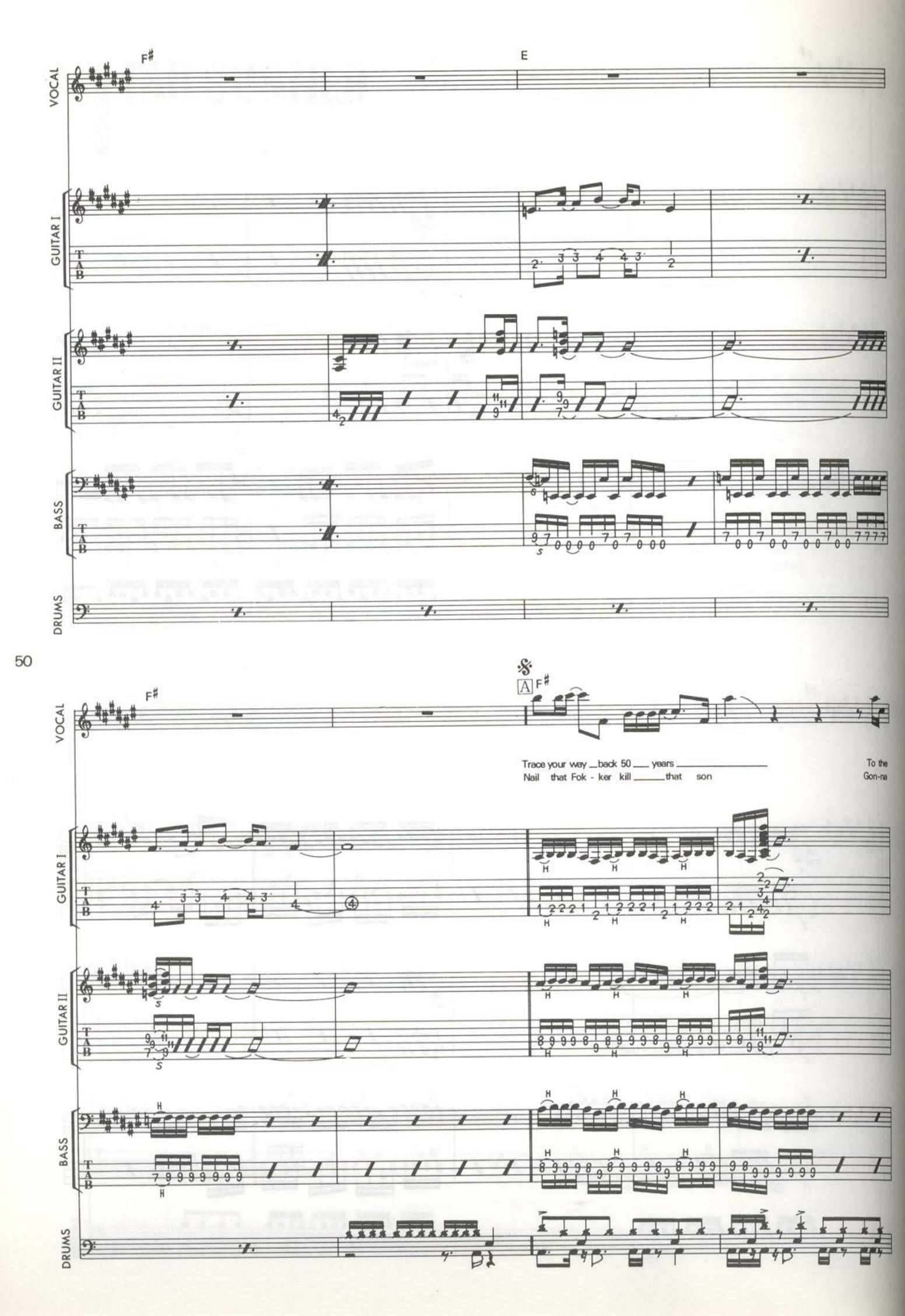
기타는 우선 인트로에서의 앙상블을 확고히 파악할 것. 특히 11 마디째 이후의 기타 I 의 타이밍을 취하는 방법이 어렵다. 확고한 리듬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는. 프레이즈이므로 레코드에 맞춰서 리듬의 연습부터 하기를 권하고 싶다. 뒤는 [F]의 솔로 이외는 같은 패턴의 배킹이므로 세로의 라인을 잘 맞추자.

솔로 부분은 각각의 펜타토닉 스케일을 근원으로 프레이즈를 구성하고 꽤 빠른 연주의 것도 있으므로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 지면서 서서히 빨리 해간다고 하는 연습법을 취하기 바란다. 그때 그저 메커니컬하게 마구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음이 어떤 스케일 위의 어떤 음인가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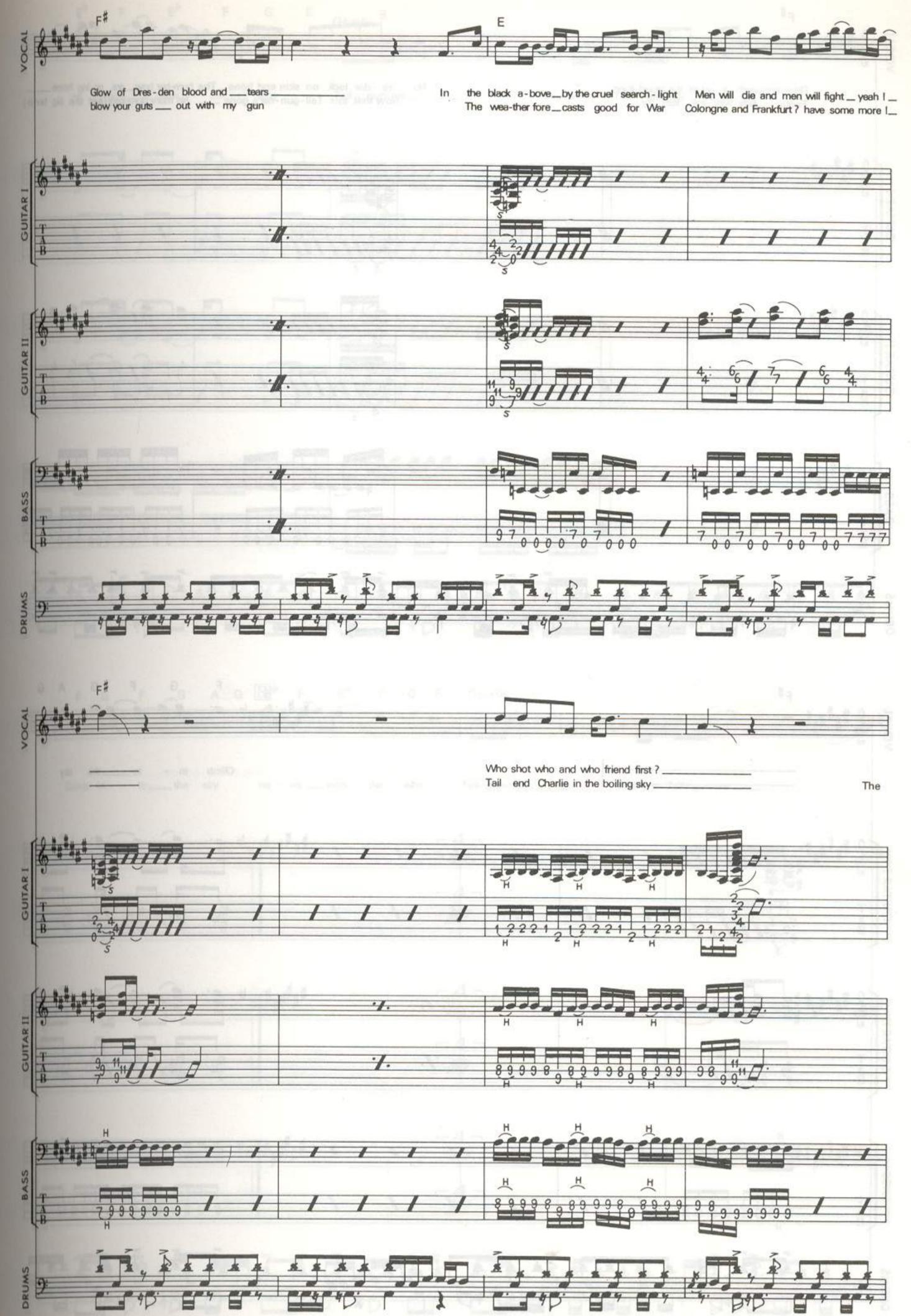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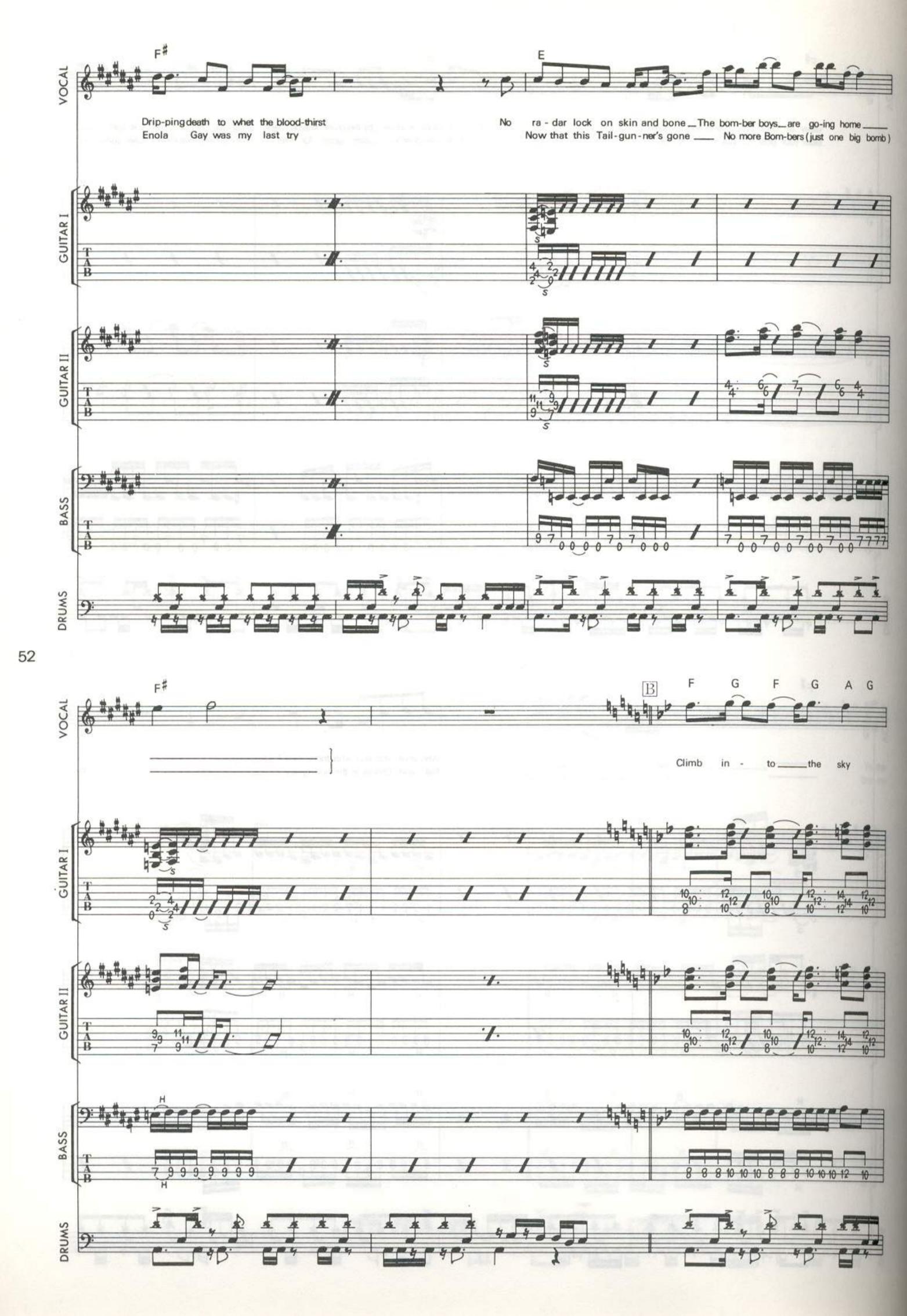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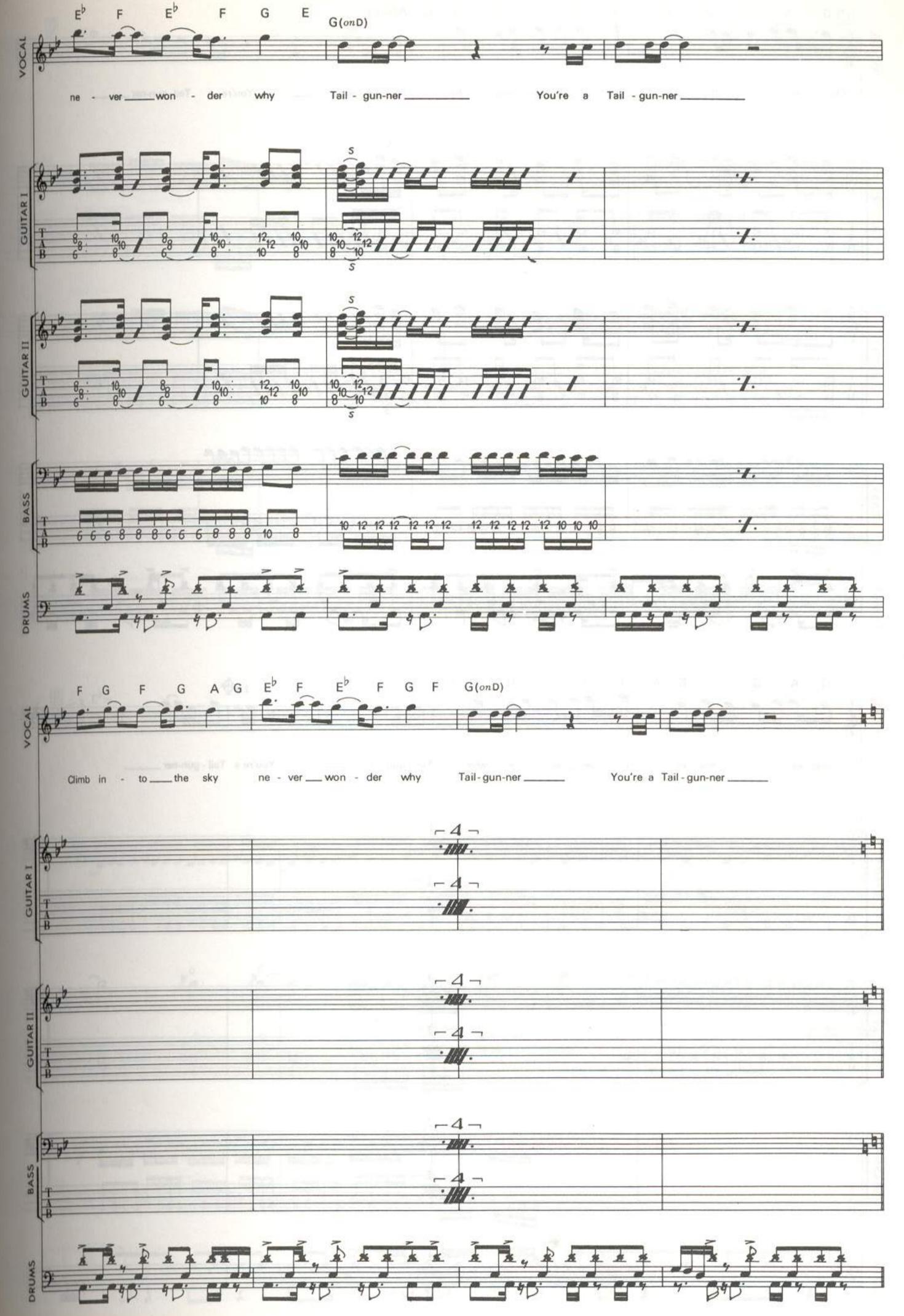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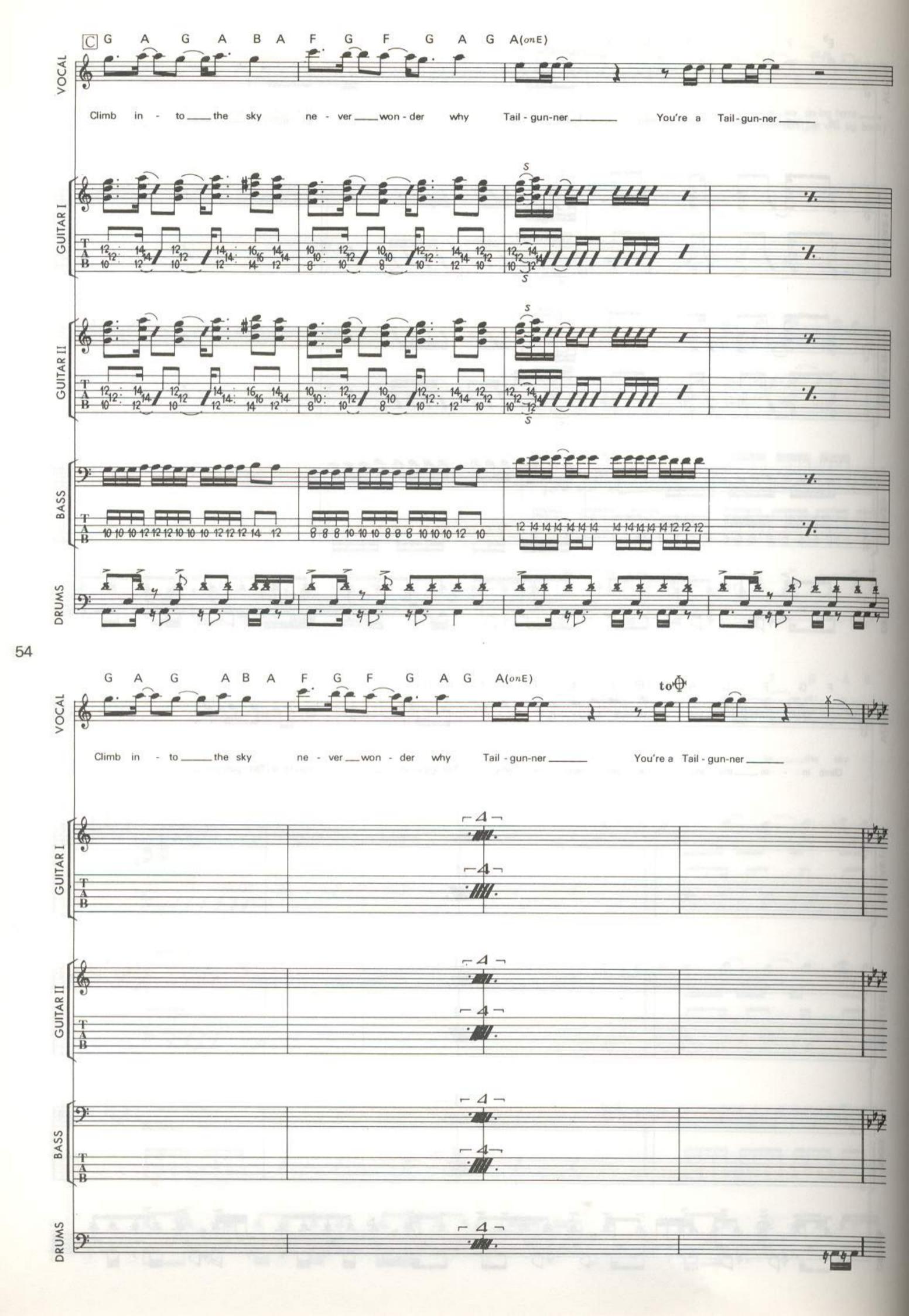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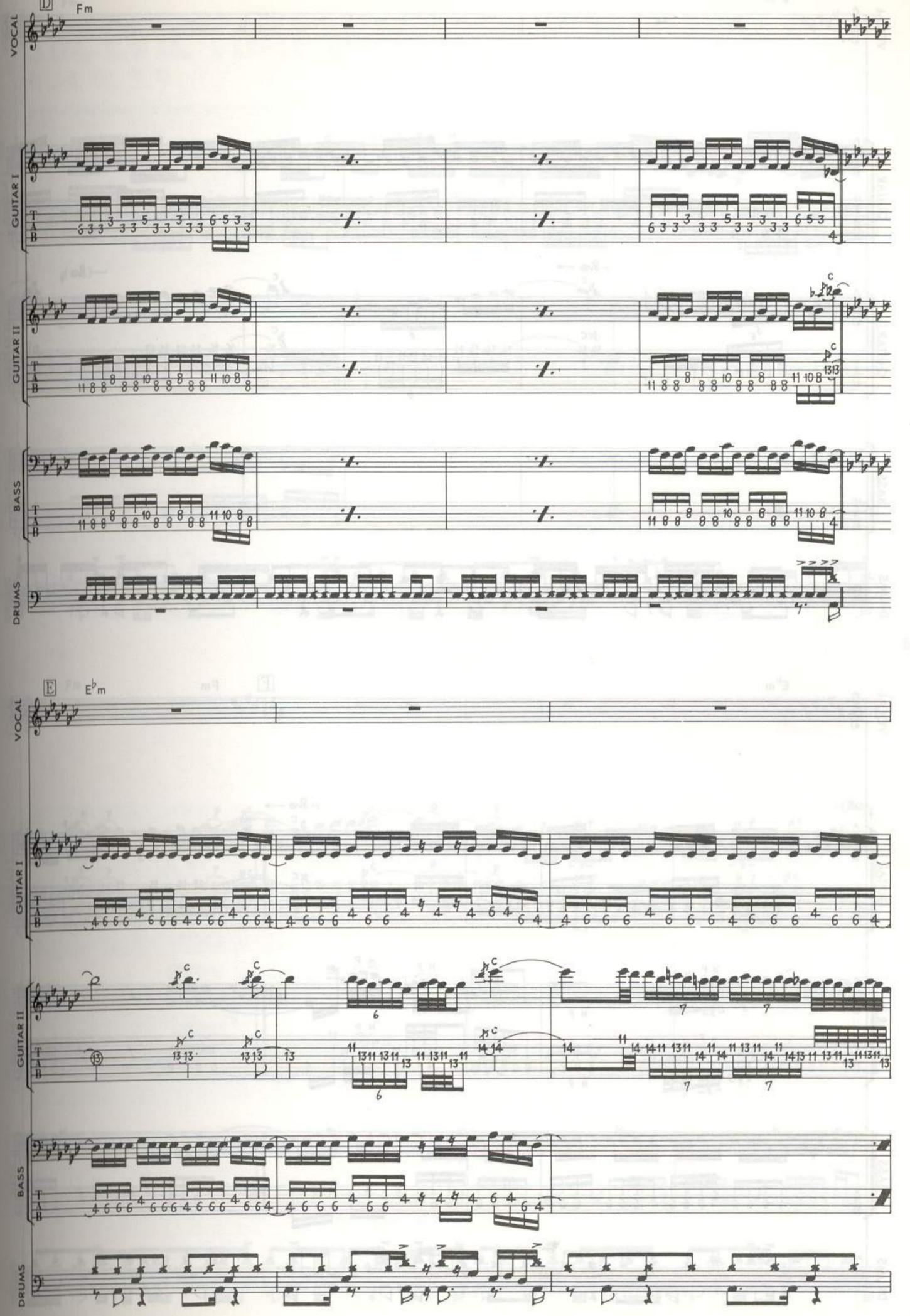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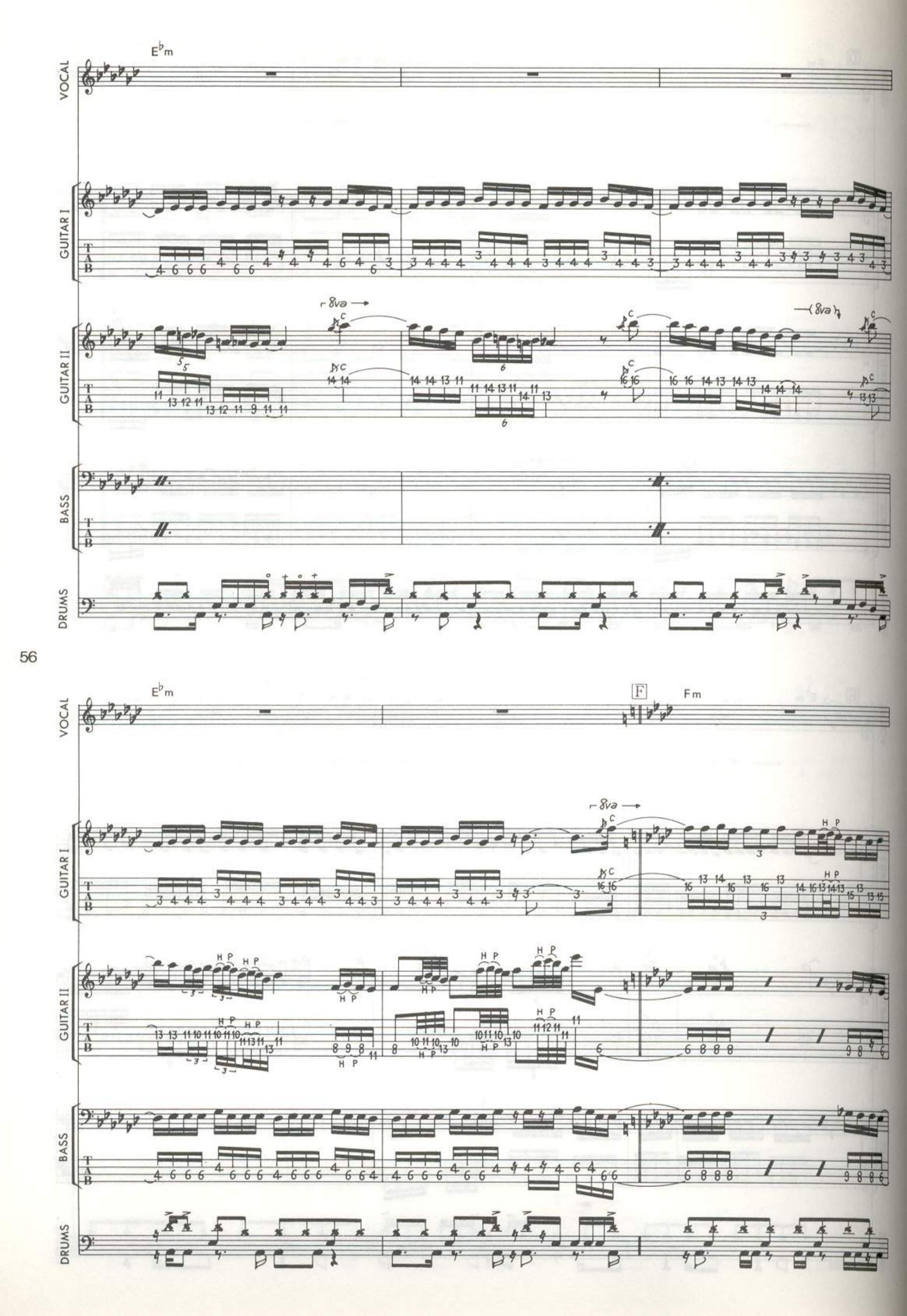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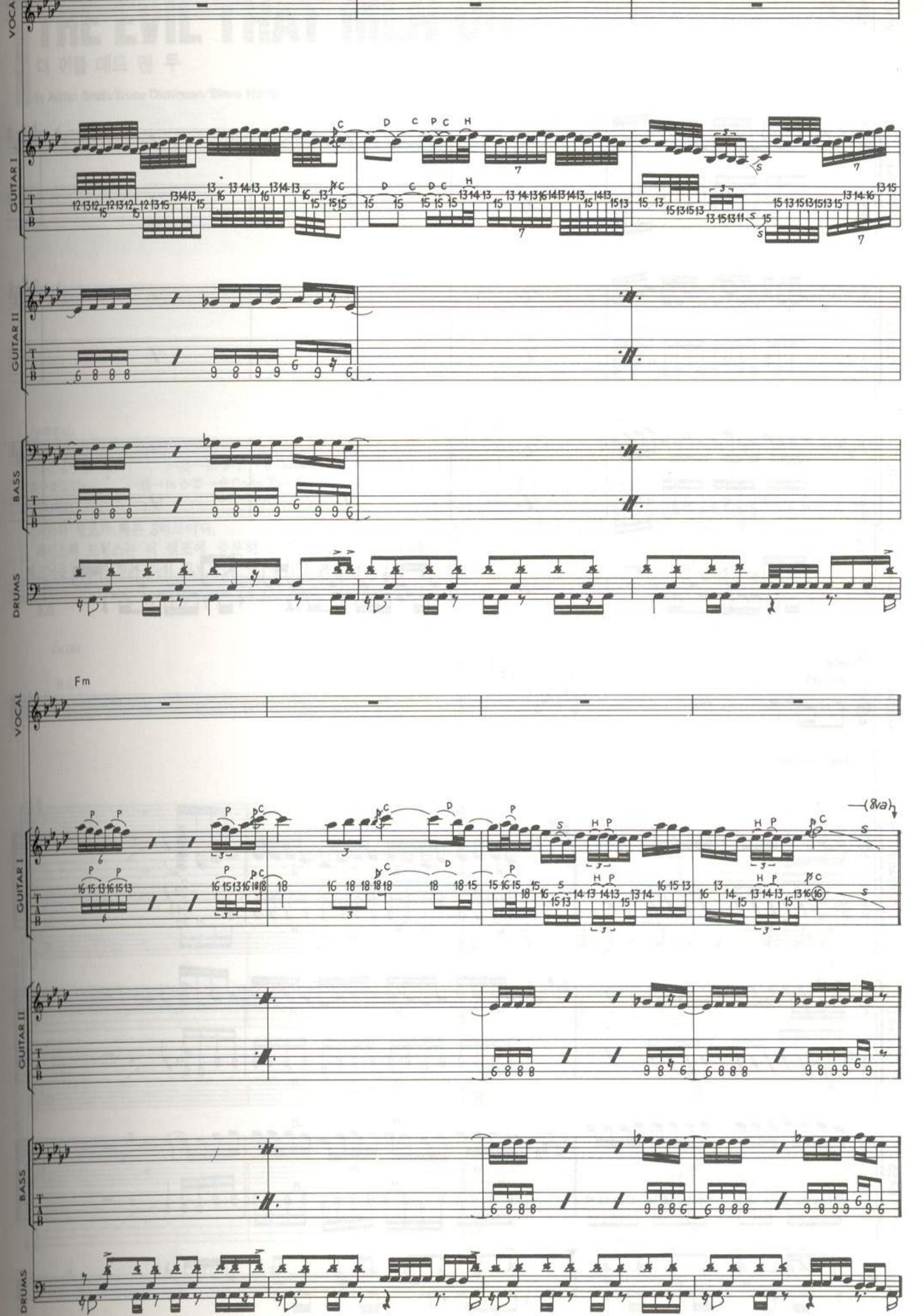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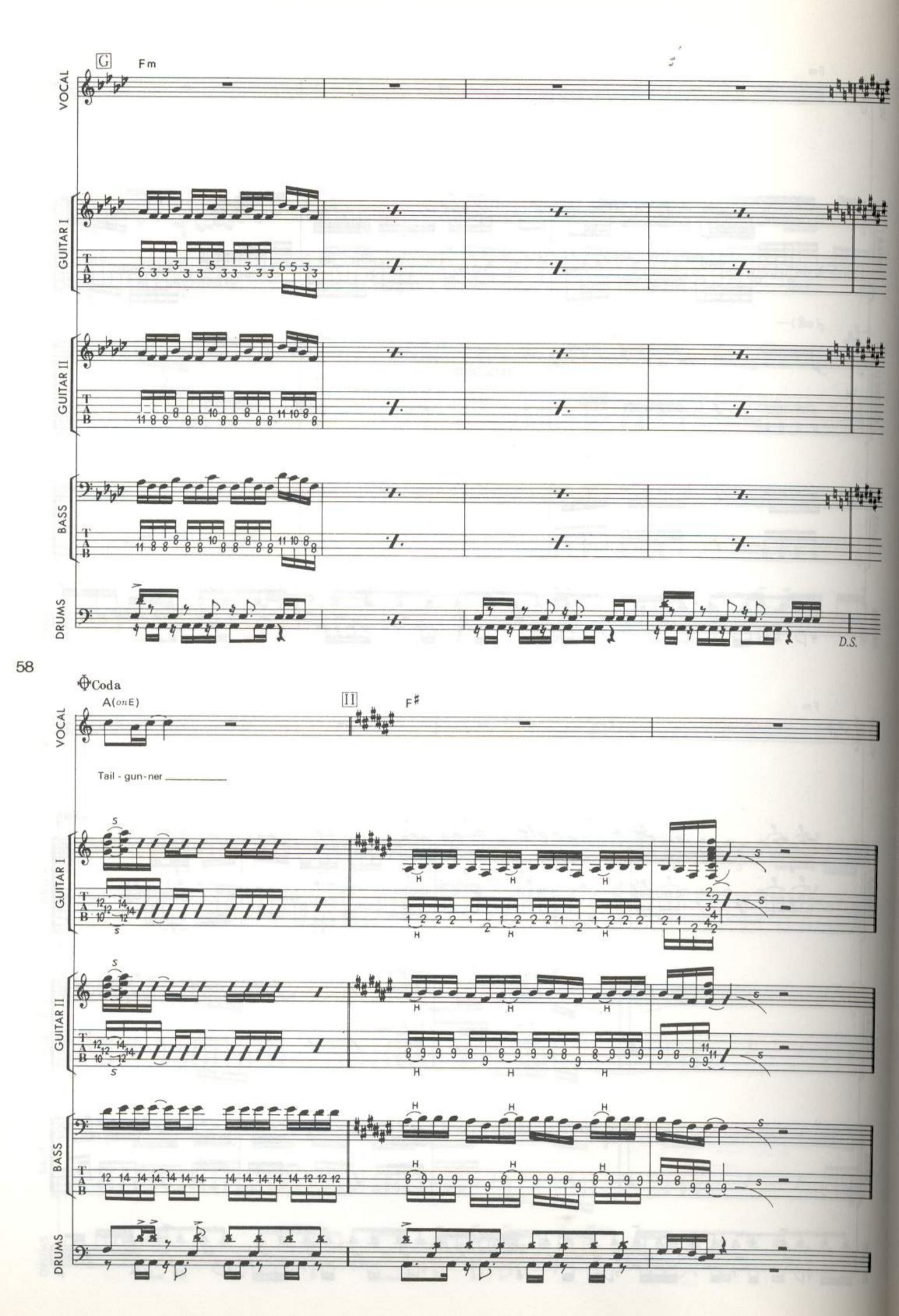








Fm



THE EVIL THAT MEN DO

더 이블 데트 맨 두

by Adrian Smith/Bruce Dickinson/Steve H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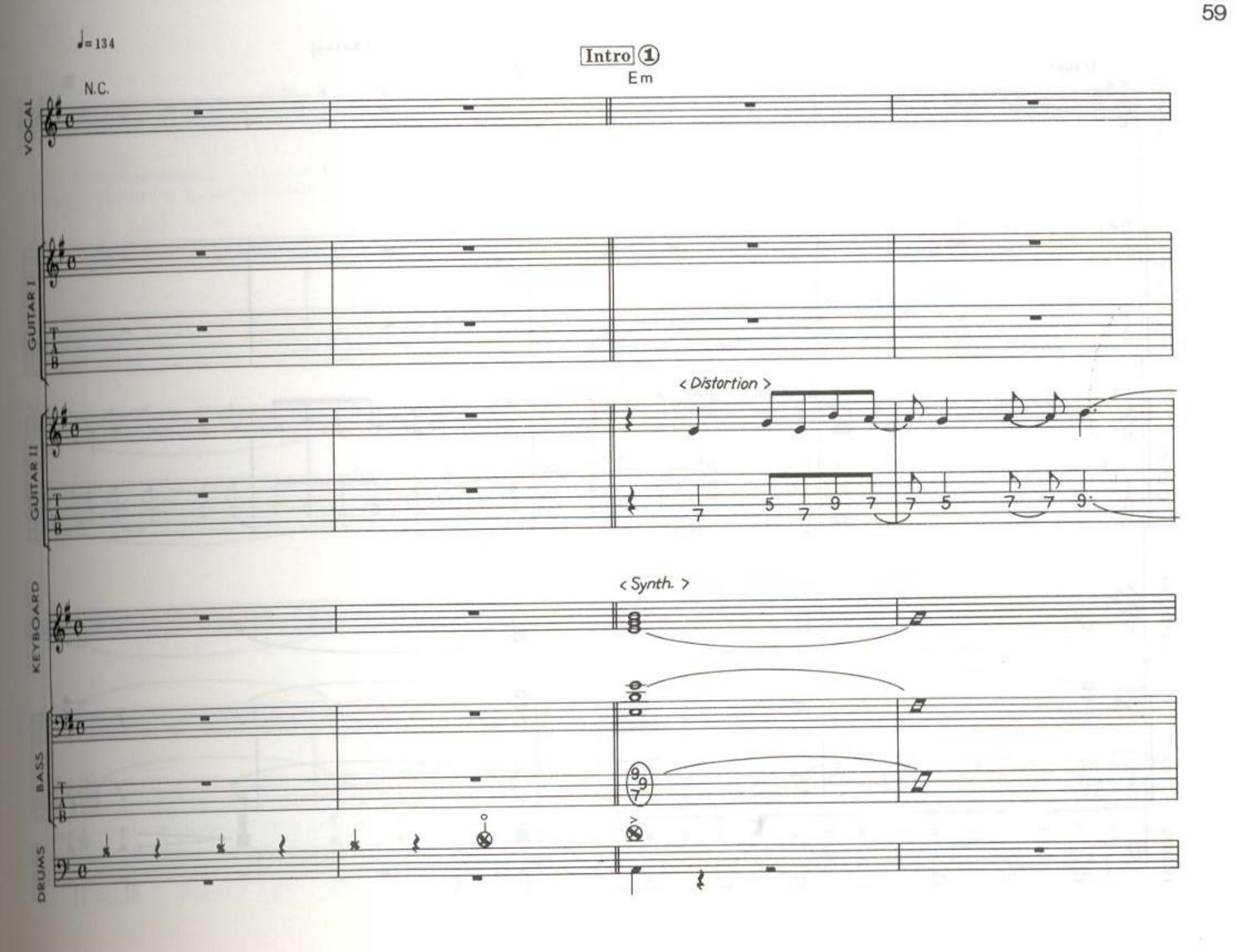
 $\begin{array}{c} \langle \text{연주순서} \rangle \\ \text{Intro(1)} \rightarrow \text{Intro(2)} \rightarrow \mathbb{B}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D} \rightarrow \mathbb{D}.S. \ 1 \\ \rightarrow \$ 1 \ \mathbb{A} \rightarrow \mathbb{B}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D} \rightarrow \text{to} \oplus 1 \rightarrow \oplus \text{Coda} 1 \rightarrow \mathbb{E} \rightarrow \mathbb{F} \rightarrow \mathbb{D}.S. \\ 2 \rightarrow \$ 2 \ \mathbb{C} \rightarrow \mathbb{C} \rightarrow \mathbb{D} \rightarrow \text{to} \oplus 2 \rightarrow \oplus \text{Coda} 2 \rightarrow \mathbb{G} \rightarrow \mathbb{H} \\ \langle \text{주법해설} \rangle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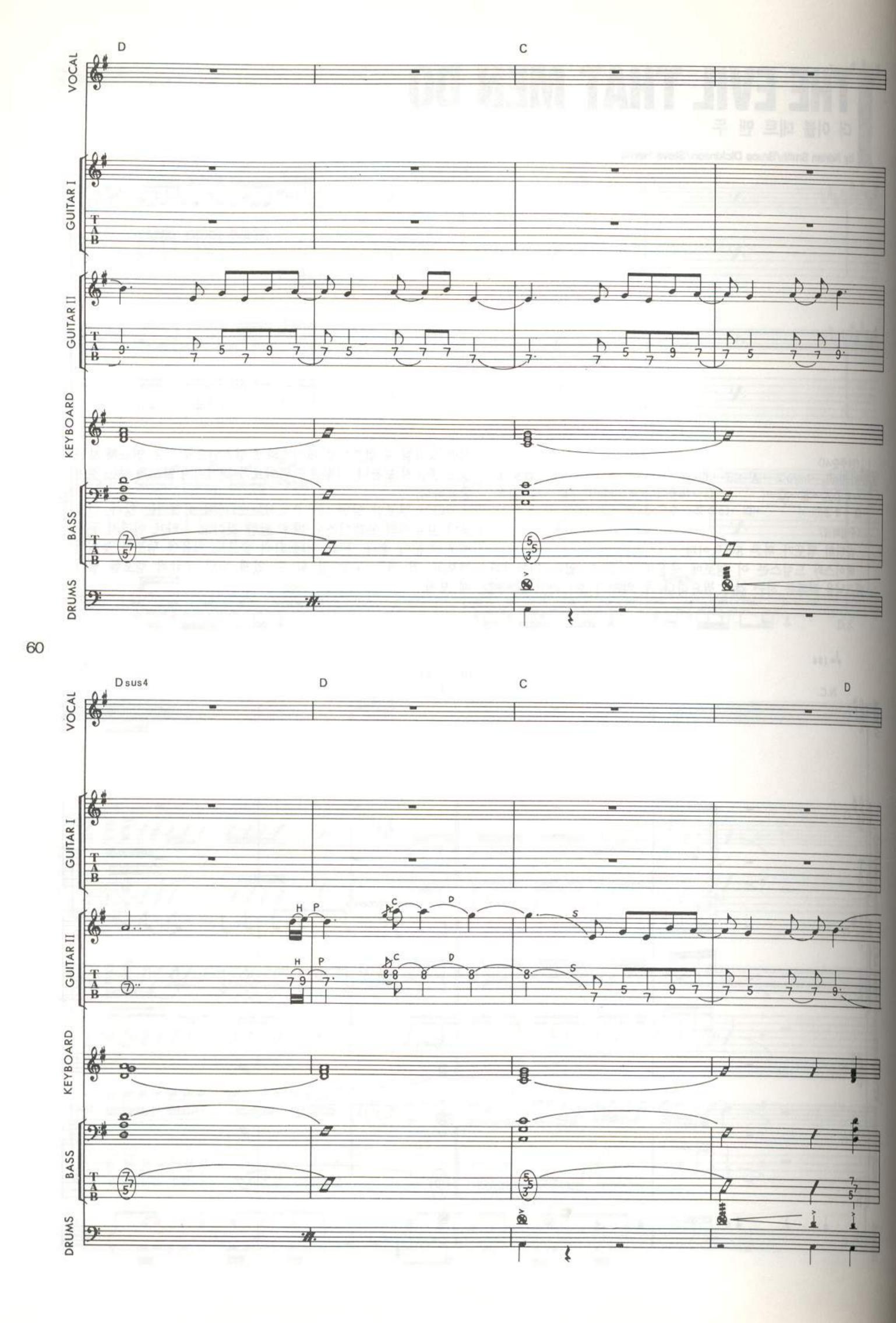
대단히 템포가 빠른 8비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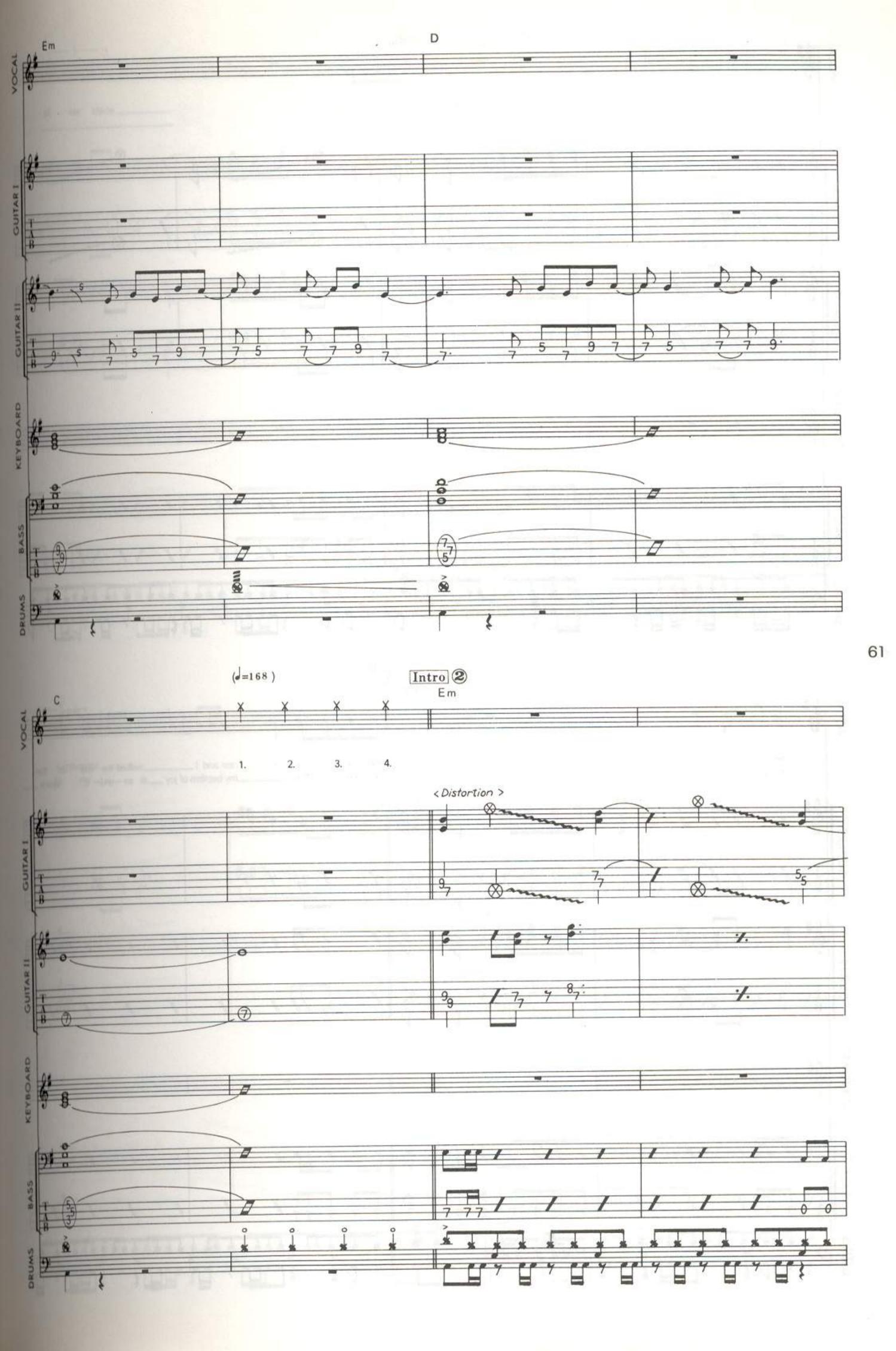
베이스와 드럼스는 이 템포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리듬감과 테크닉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악기가 흐트러져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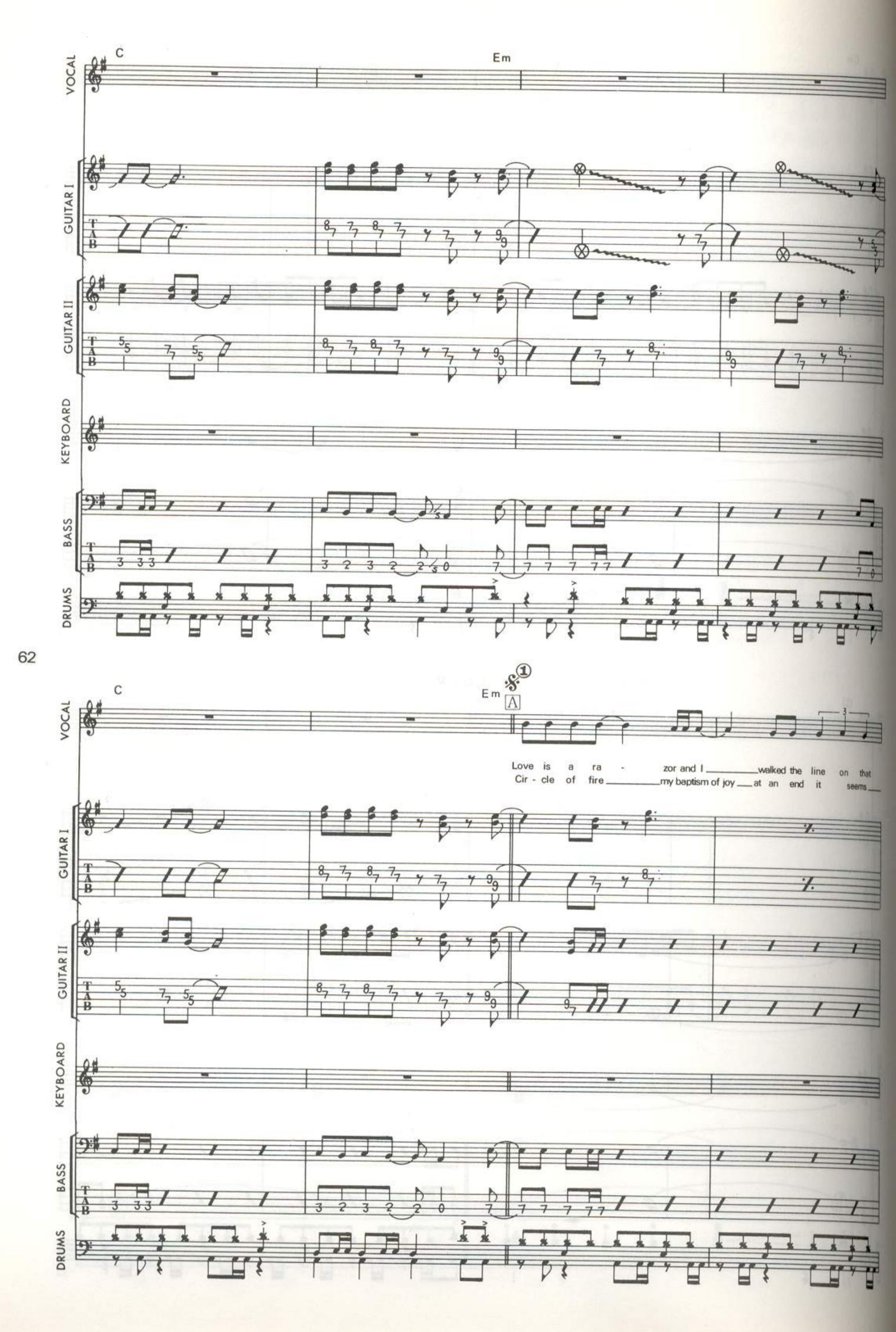
곡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베이스와 드럼스만으로 파트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 어떻든 드라이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는 템포만 알면 내용으로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인트로나 브릿지의 프레이즈도 매우 팝한 것이고 옥타브 어렌지 등도매우 기분이 좋다. [P]의 기타 II의 솔로도 처음엔 템포를 늦춰서해보고, 전 파트 모두 잘 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템포를 빨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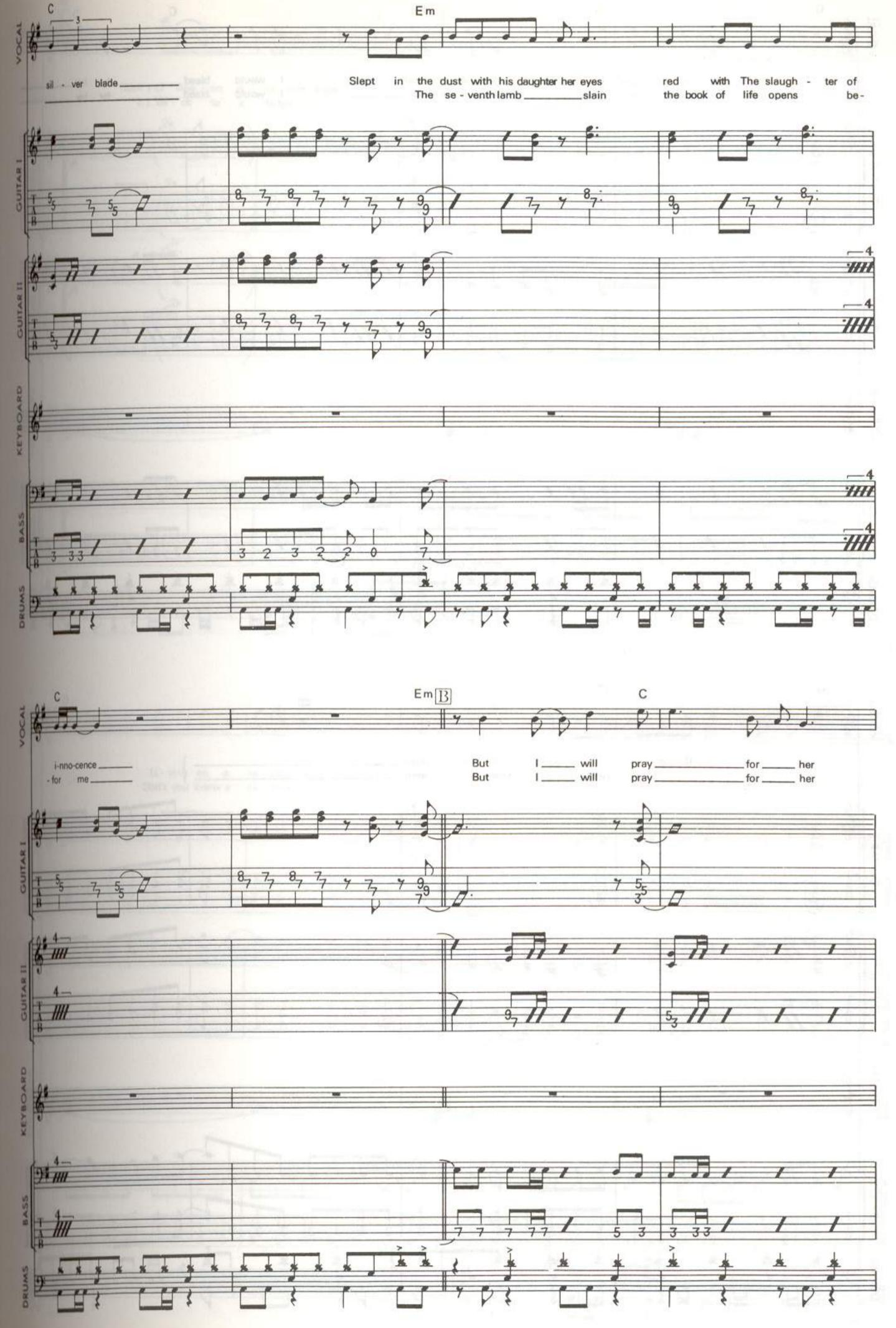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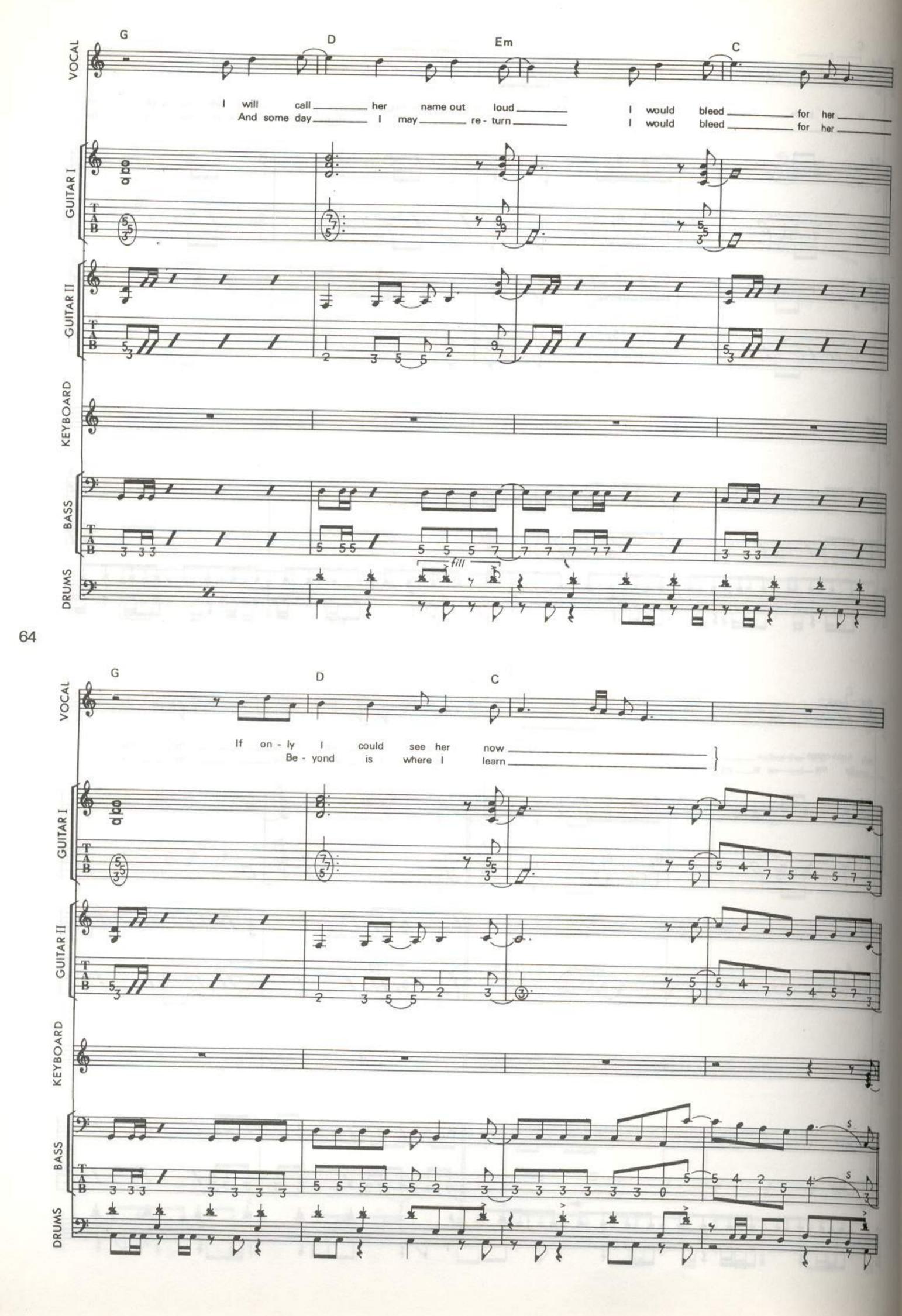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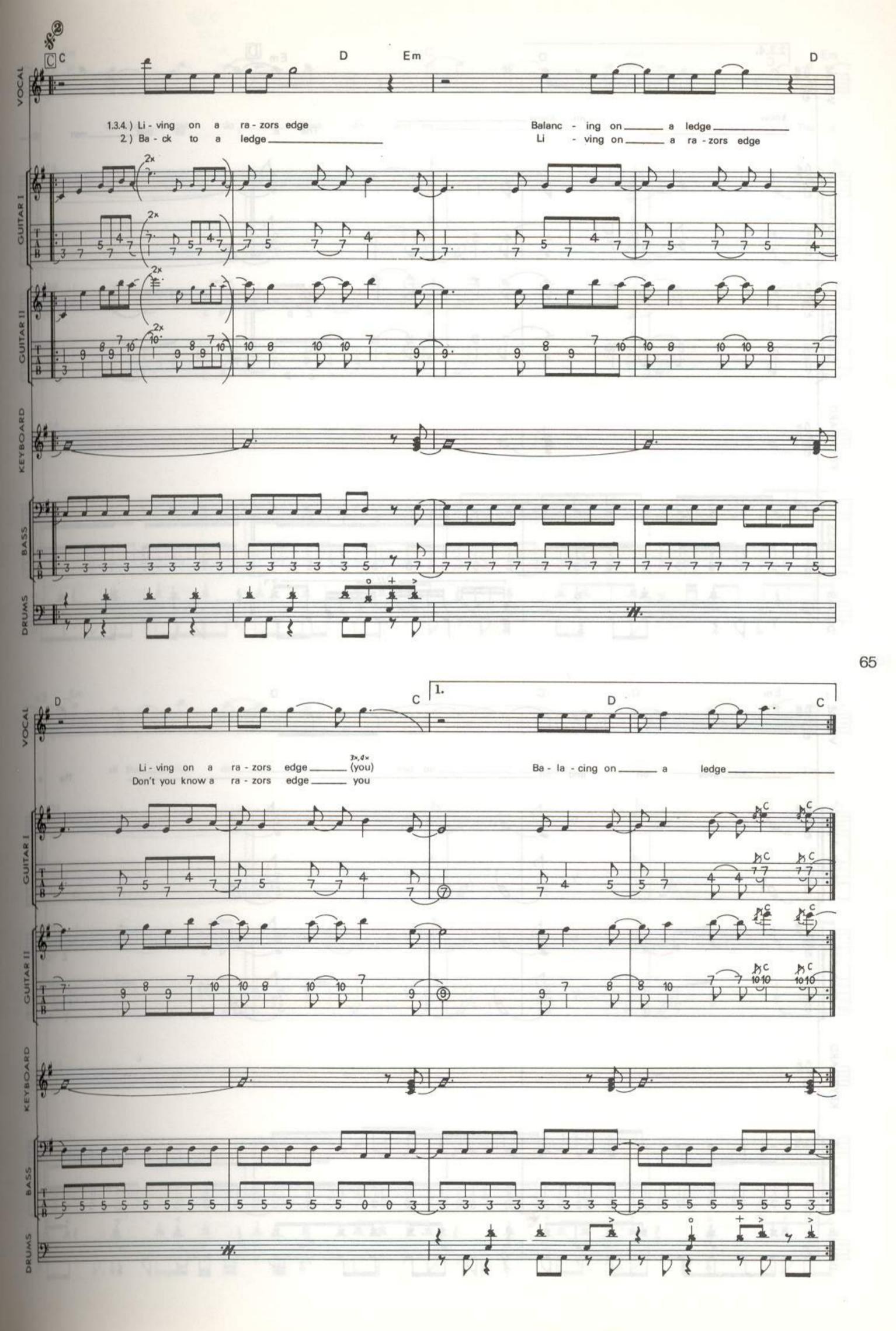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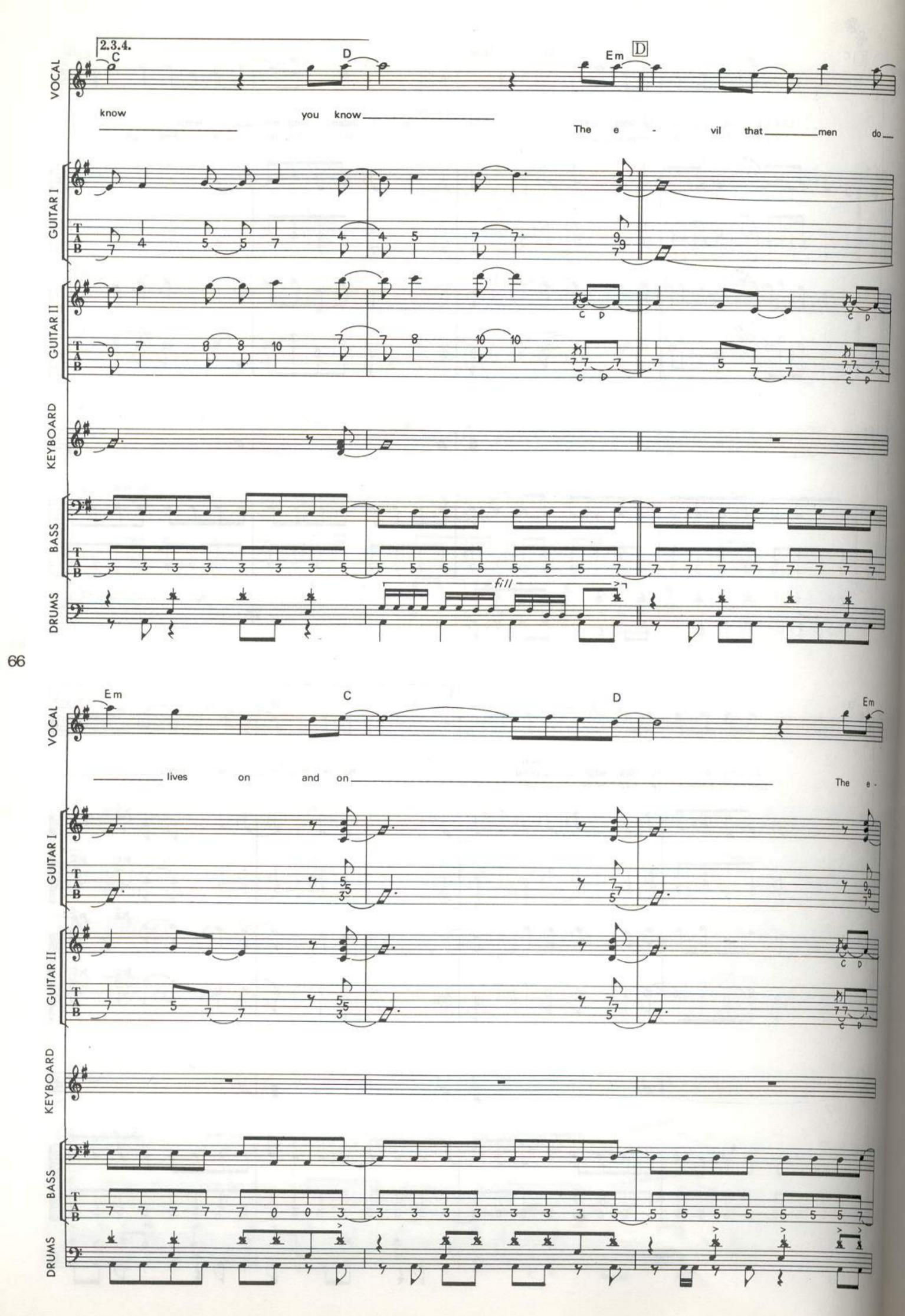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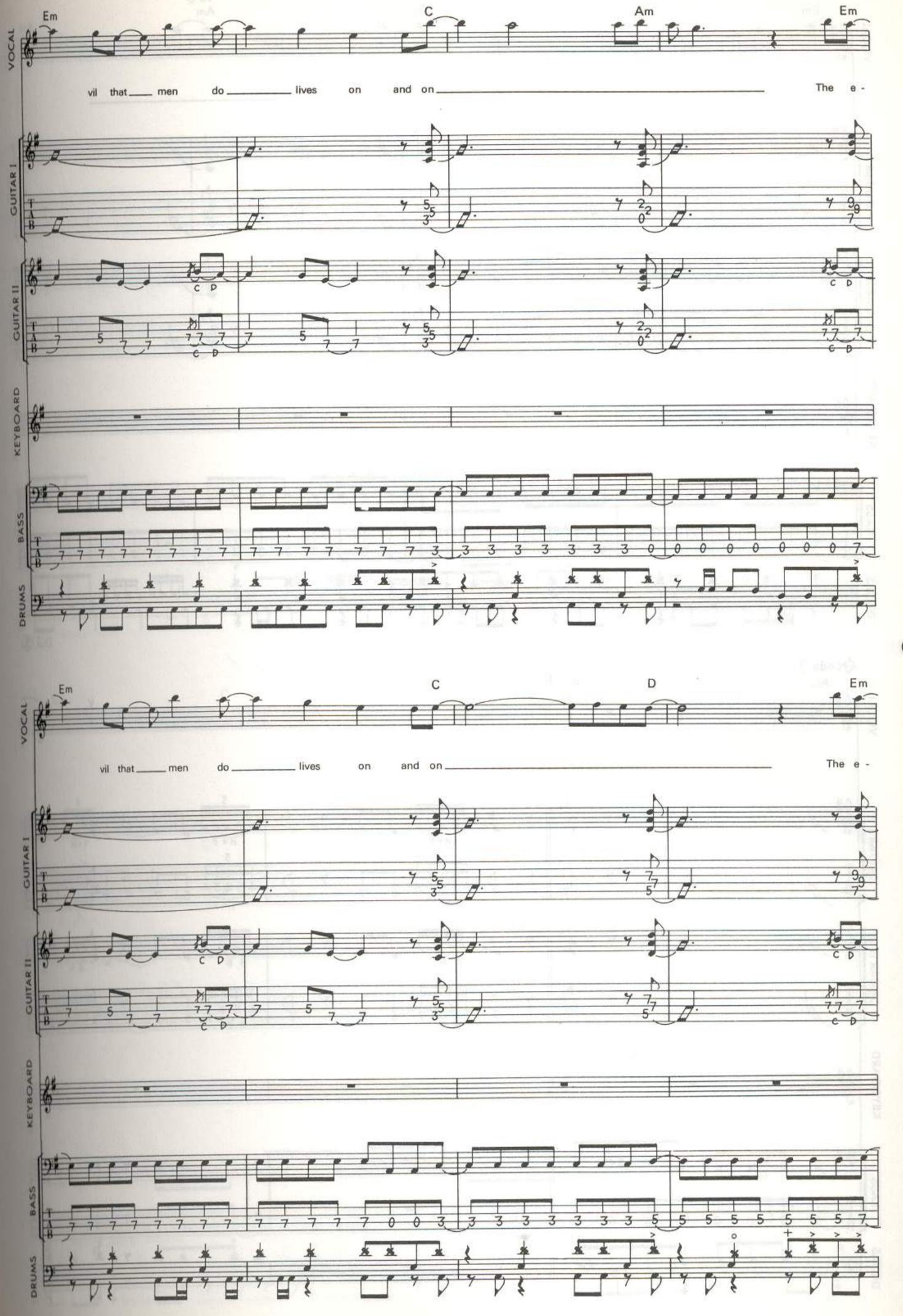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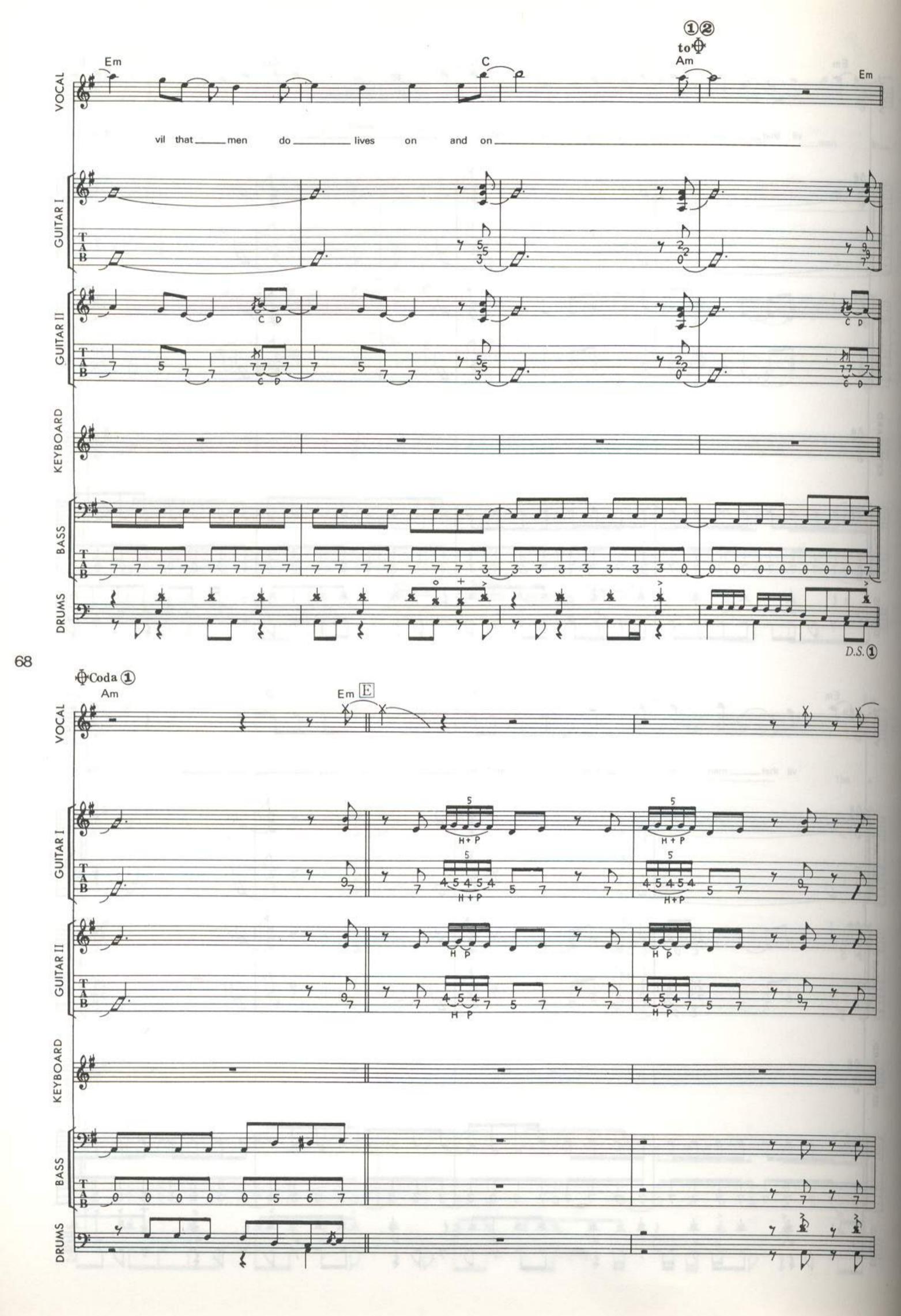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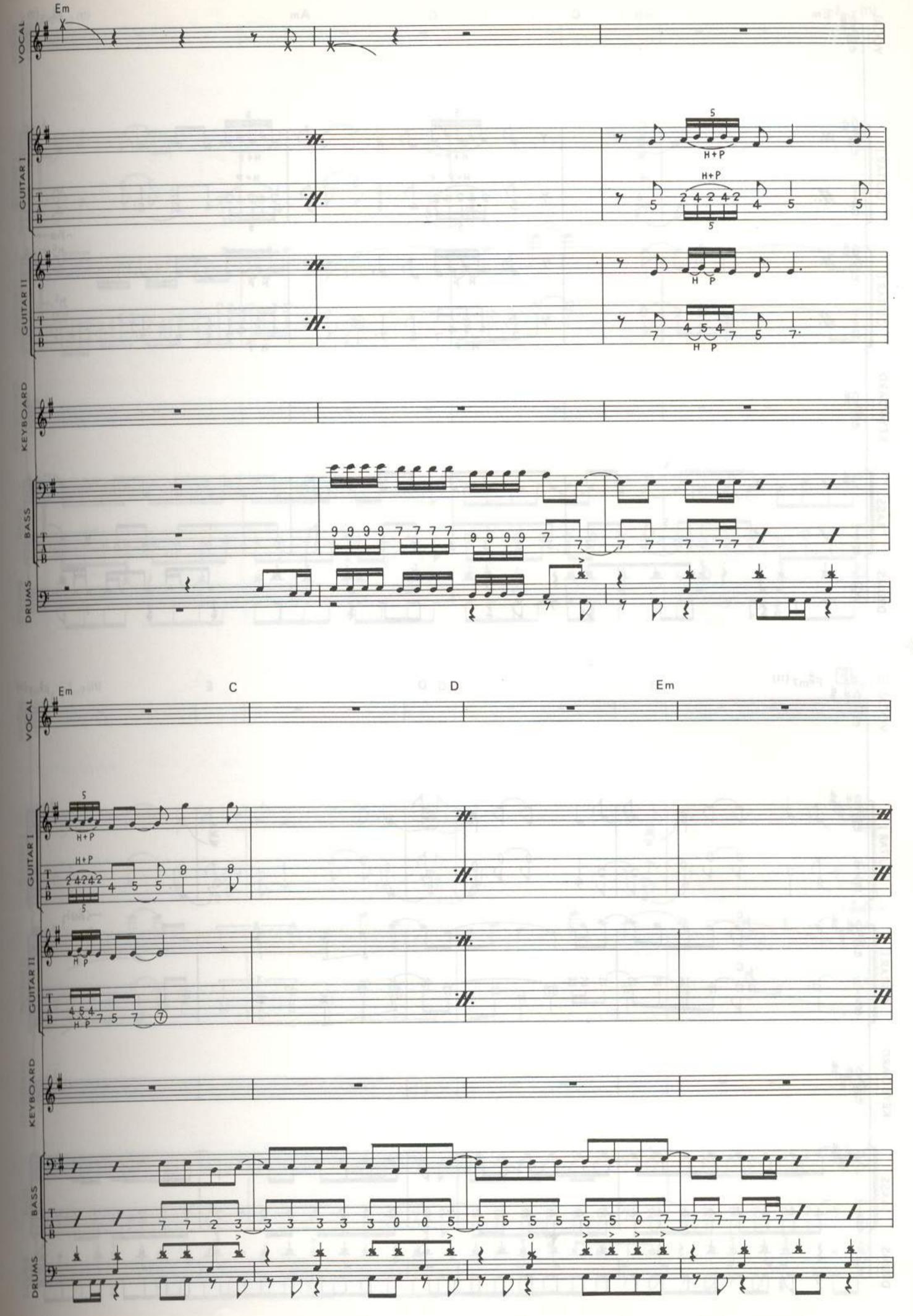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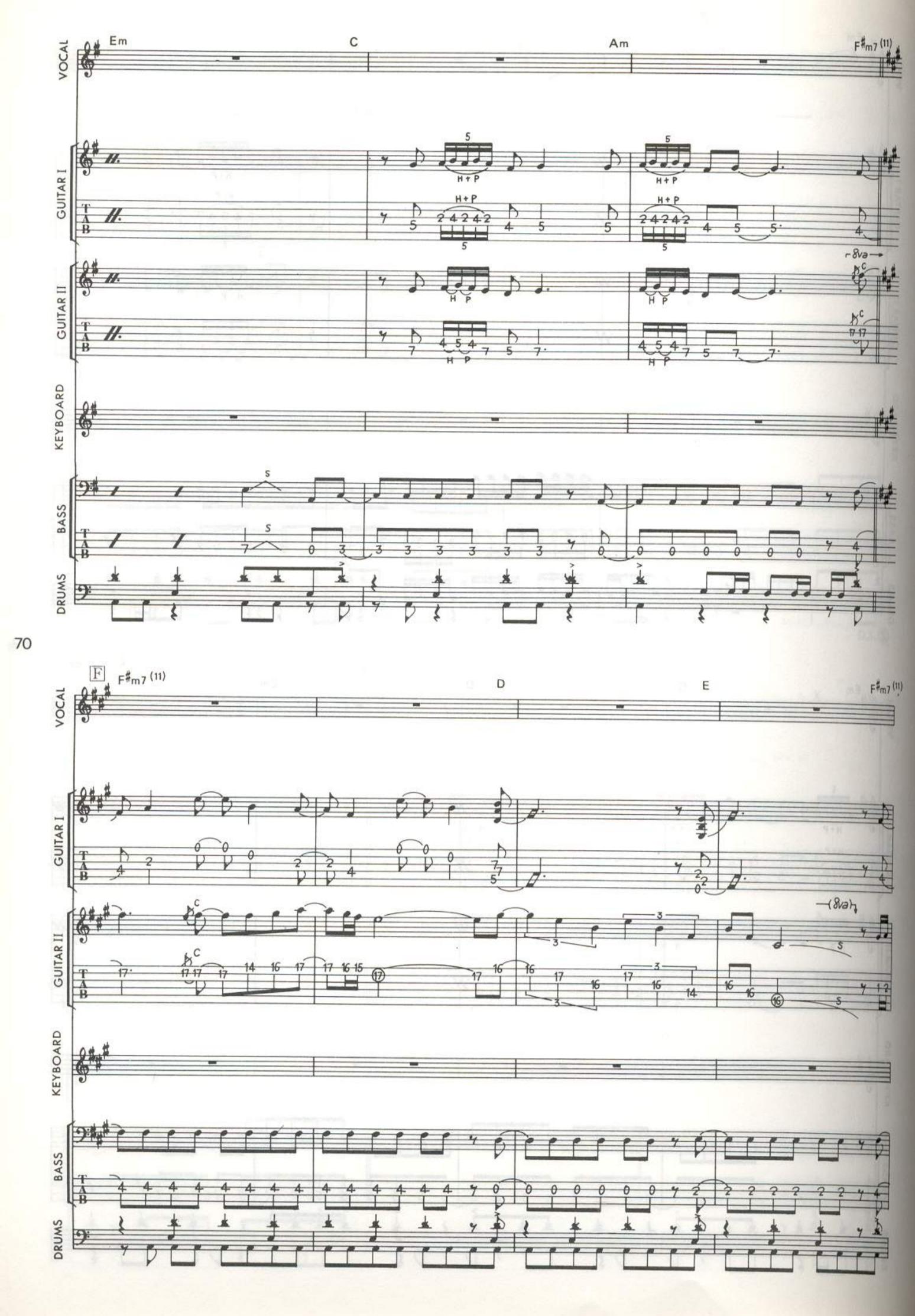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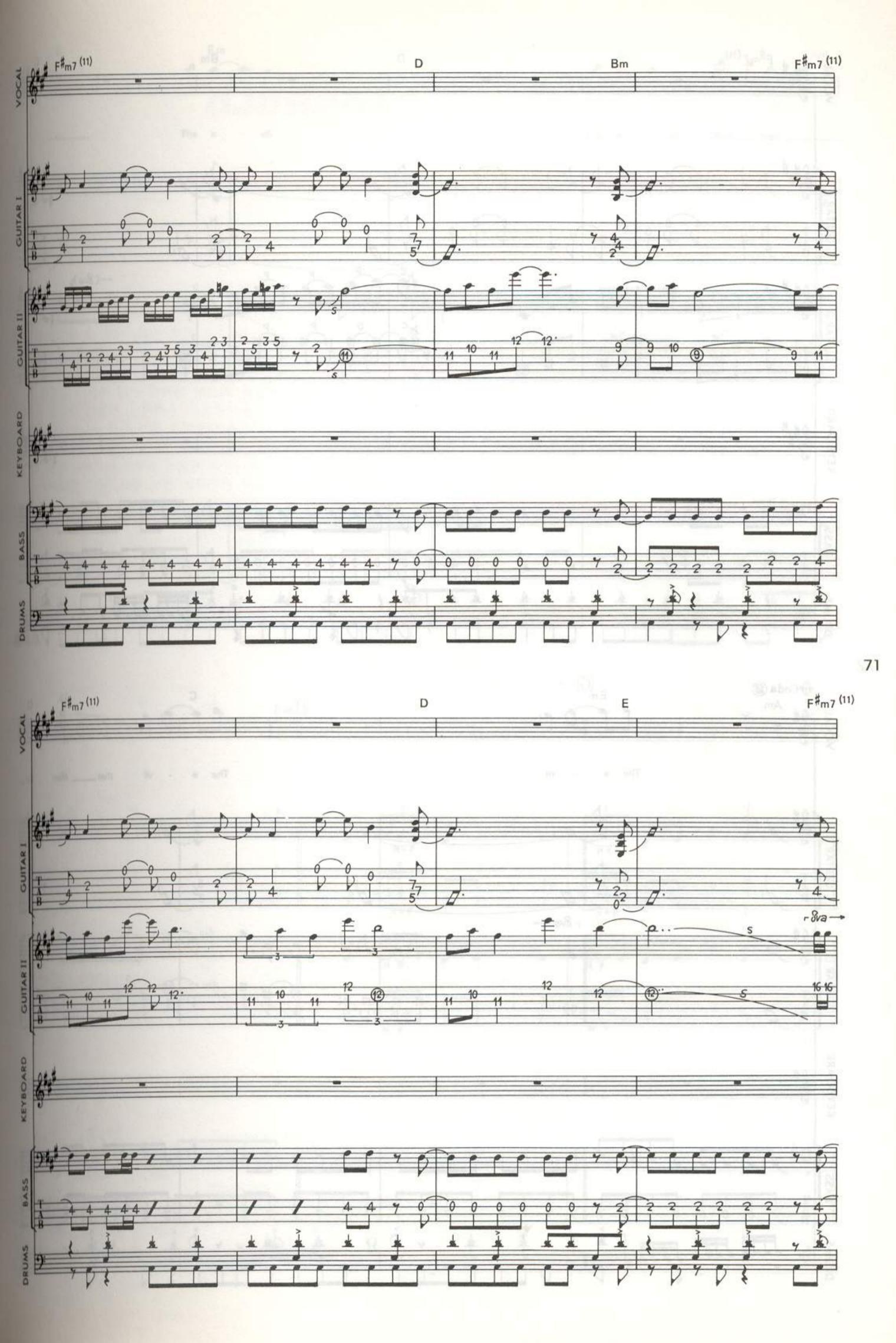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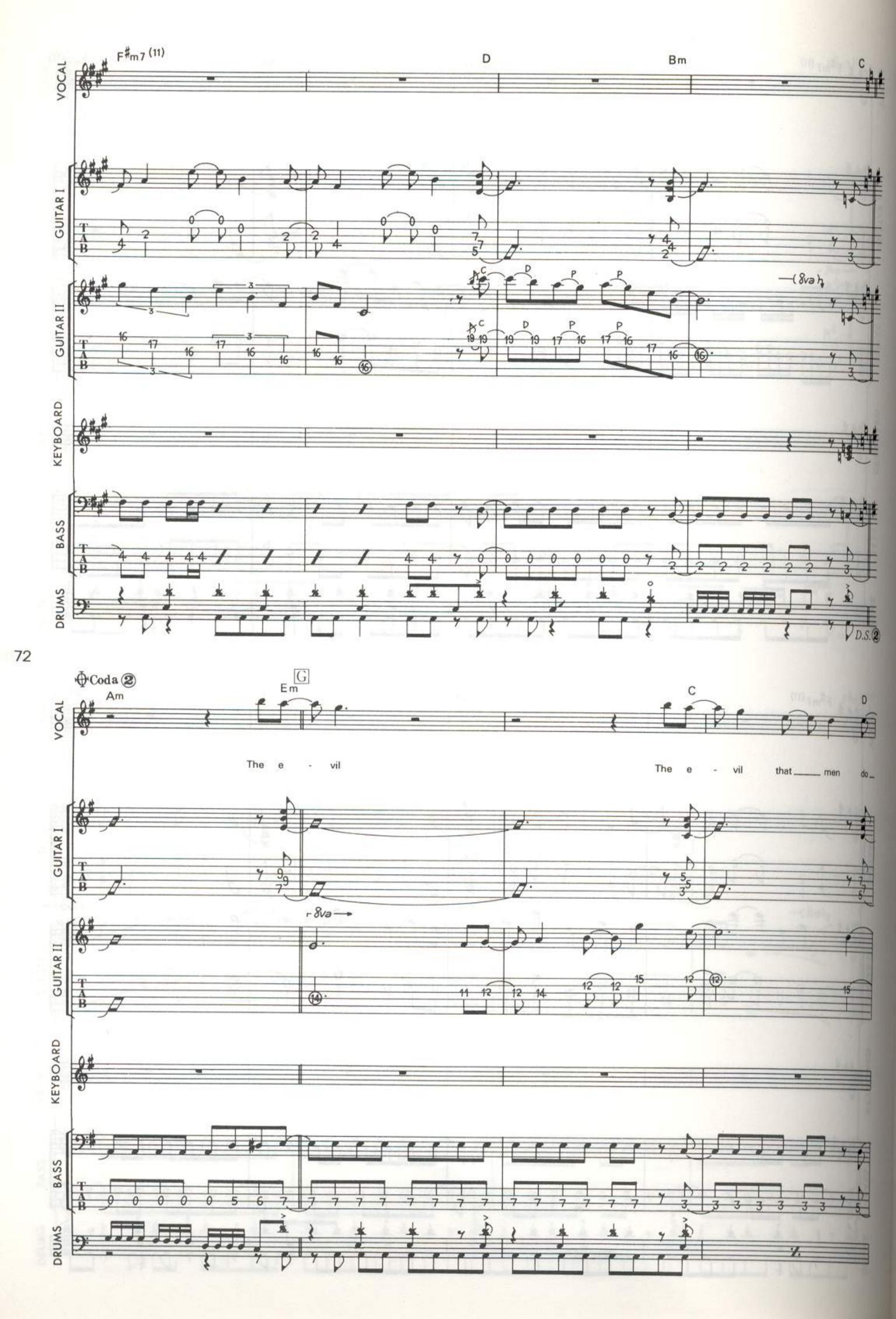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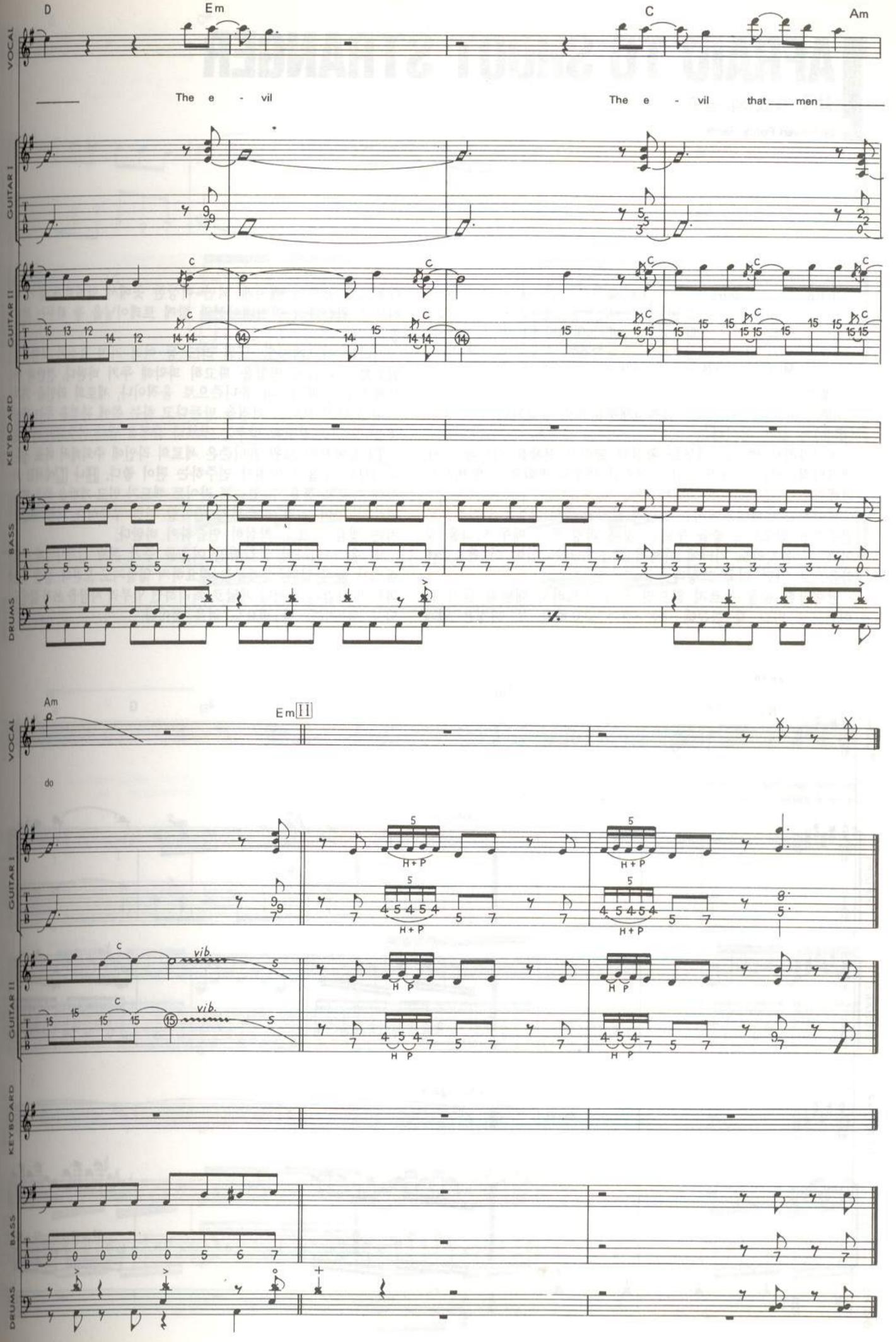












AFRAID TO SHOOT STRANGER

살육(殺戮)의 공포

by Steven Percy Harris

8분의 6박자로 시작되고 크게 4개부분으로 성립되는 작은 조곡 (組曲)과 같은 곡이다.

여러가지로 변하는 템포를 확실히 눌러서 전체를 리드해 가자. 테크닉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템포의 변화와 함께 비트도 변해감으로 주의하도록 한다.

베이스는 프레이즈에서는 어렵지 않지만 곡의 대부분을 화음으로 연주하고 있으므로 줄을 누르는 것과 피킹 쪽이 매우 어려울 것 이다. 한 음이라도 기타에 비해서 줄을 누르는 힘이 더 필요한데 화음으로 가면 더욱 그렇다.

균형잡힌 줄을 누르지 않으면 음이 흐트러져 대단히 듣기 싫어지므로 미리 잘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피킹은 업과

다운으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상한 곳에서 악센트가 붙어 버리므로 왼손과의 콤비네이션과 함께 트레이닝을 잘 해두는 편이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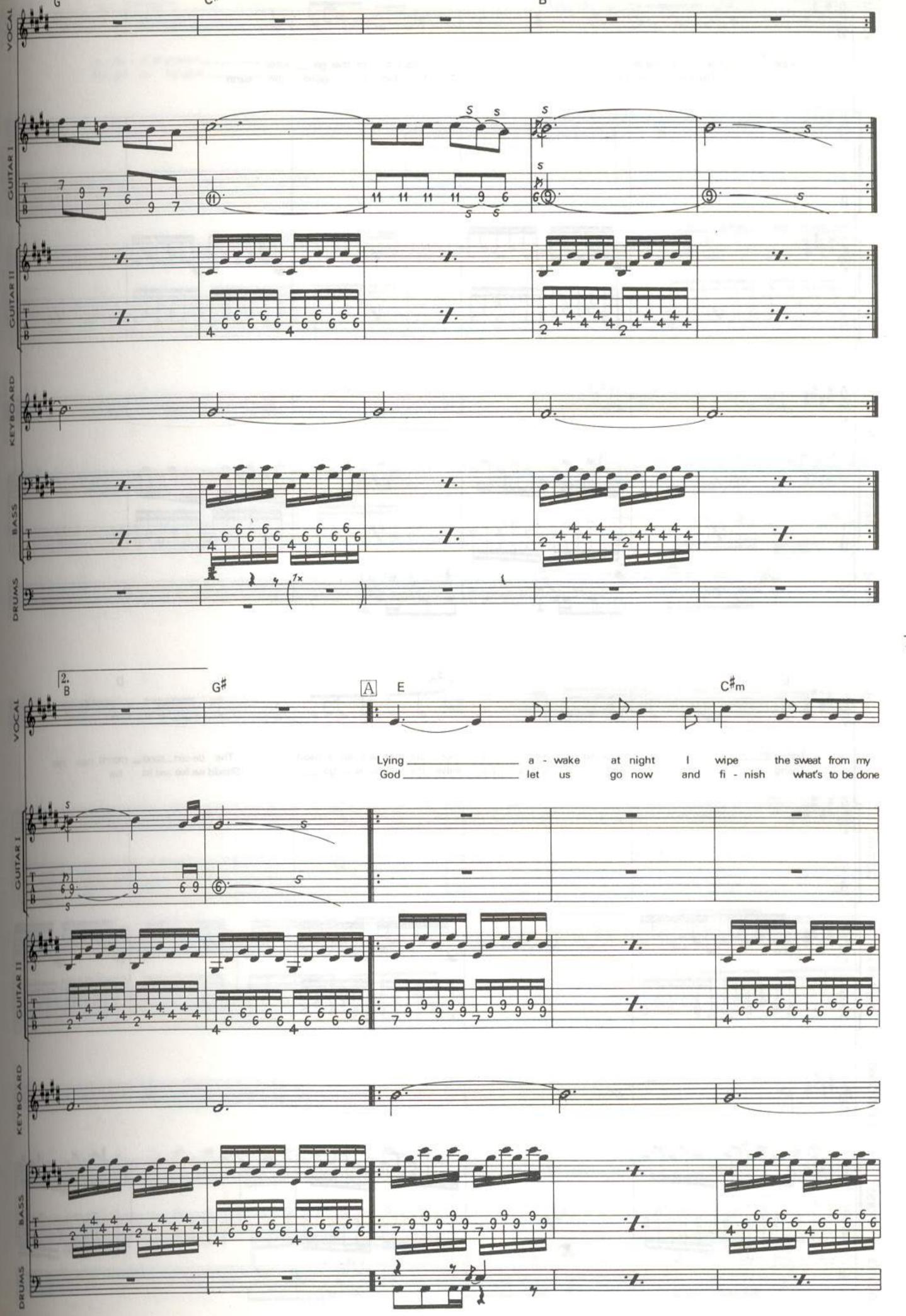
기타는 아르페지오, 트윈 리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확고히 파악해 두기 바란다. 전반의 하 르페지오는 베이스와 유니즌으로 움직이나, 세로의 라인을 가지 런히 한다기 보다는 퍼짐을 만든다고 하는 쪽에 관점을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감정을 담아 연주하기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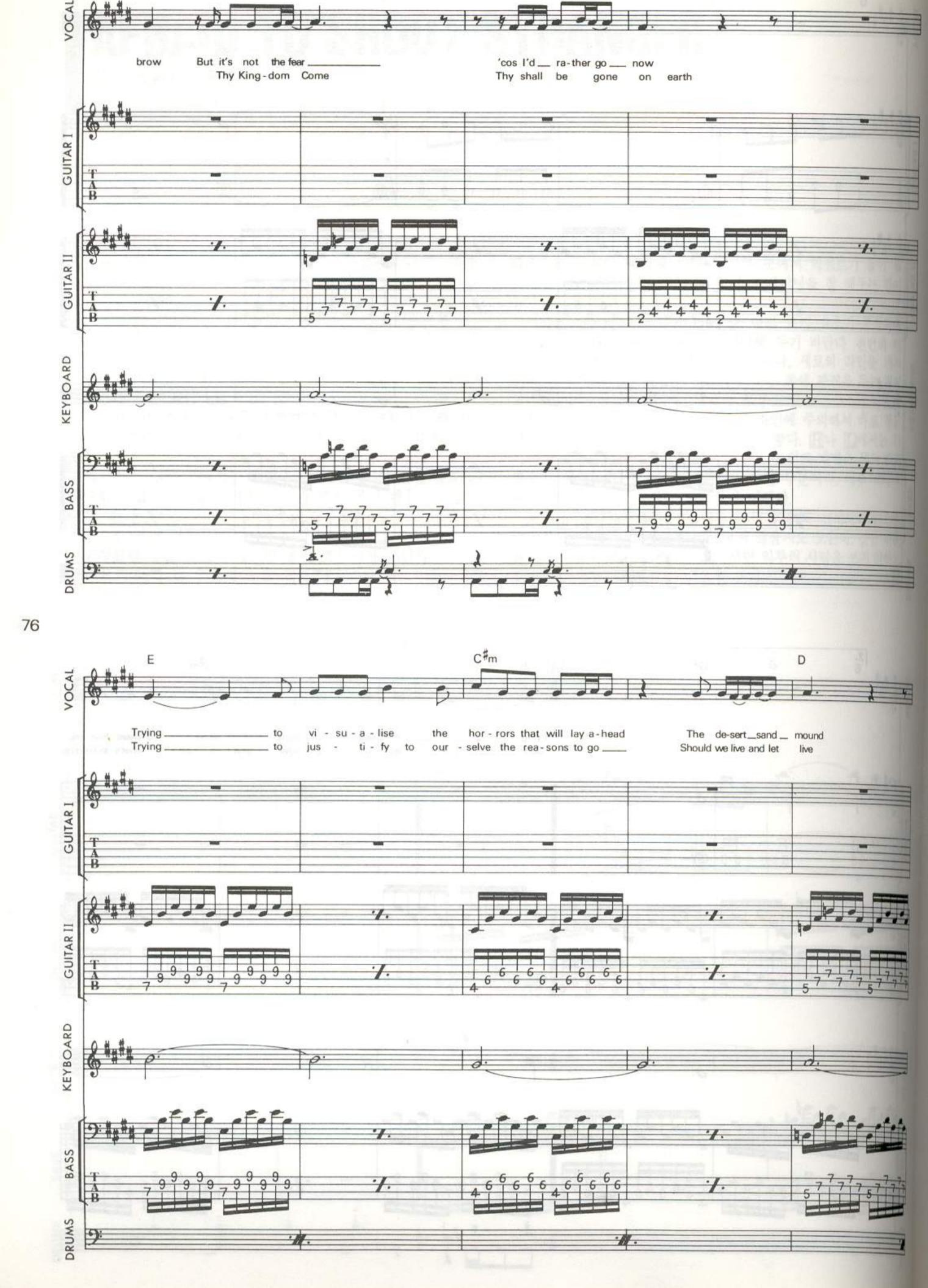
□ 등에서의 트윈 유니즌은 세로의 라인에 주의해서 바로 정돈하기보다 호흡을 맞춰서 연주하는 편이 좋다. 旧나 □에서는 각각의 솔로를 들을 수 있는데 라이트 핸드가 있고 개방을 묶은 빠른 연주가 있어 기타 리스트가 좋아할 만한 부분이다. 아주 똑같이 치는 것을 목표로 착실히 연습하기 바란다.

또 음 사이사이 공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신서사이저 스트 링스가 들어 있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잠깐 쉬는 파트의 사람이 하거나 페달로 처리하면 일부러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고 세트업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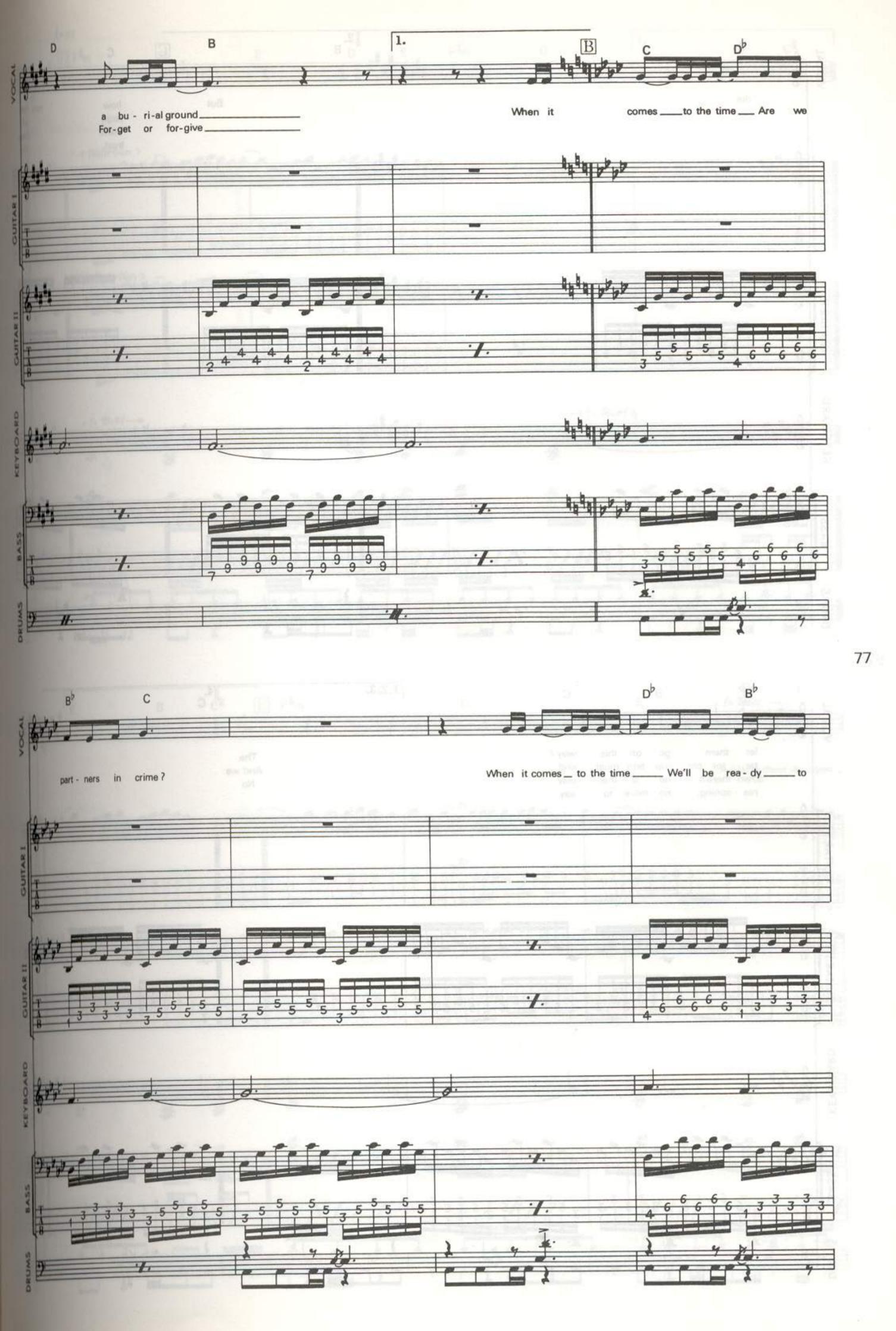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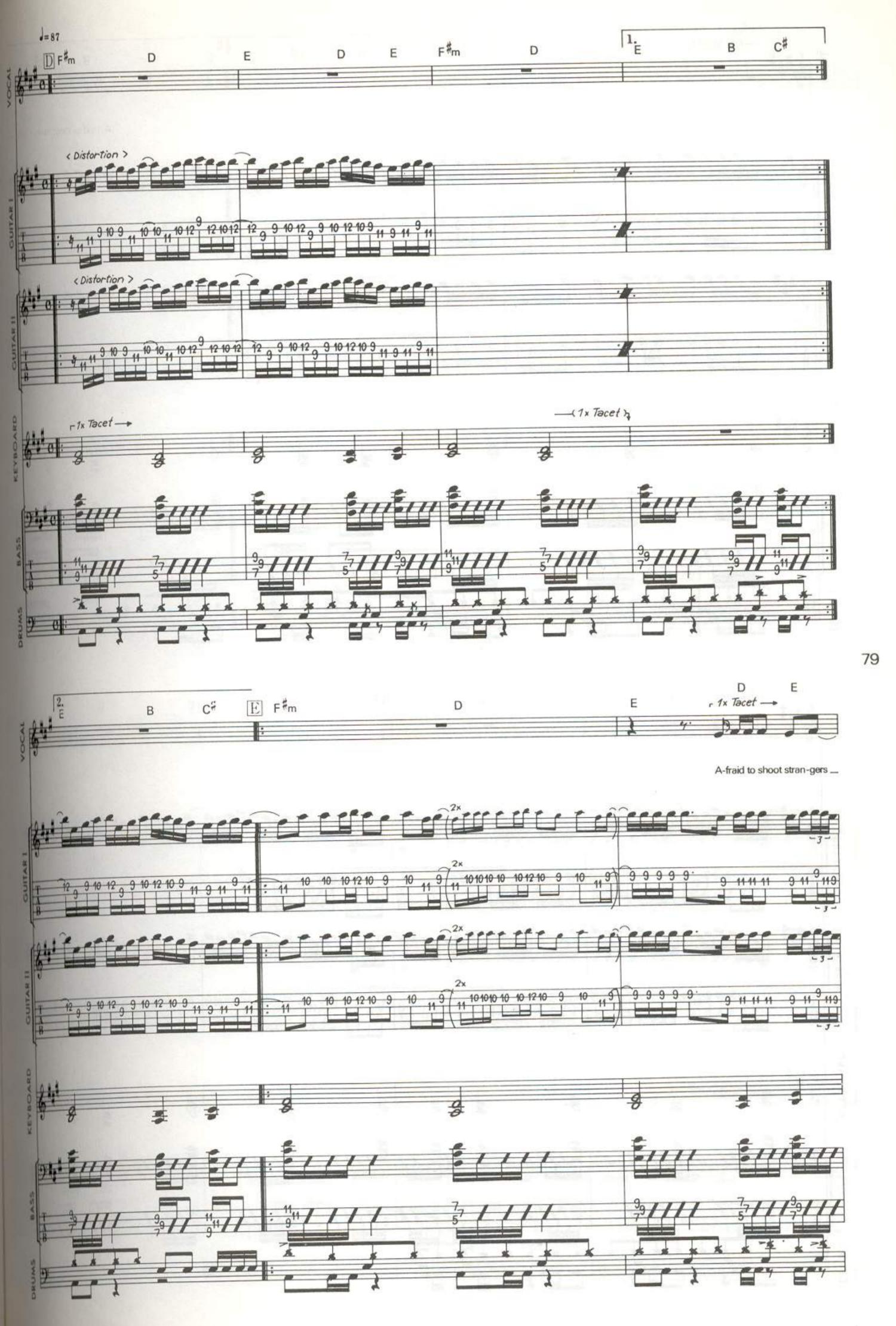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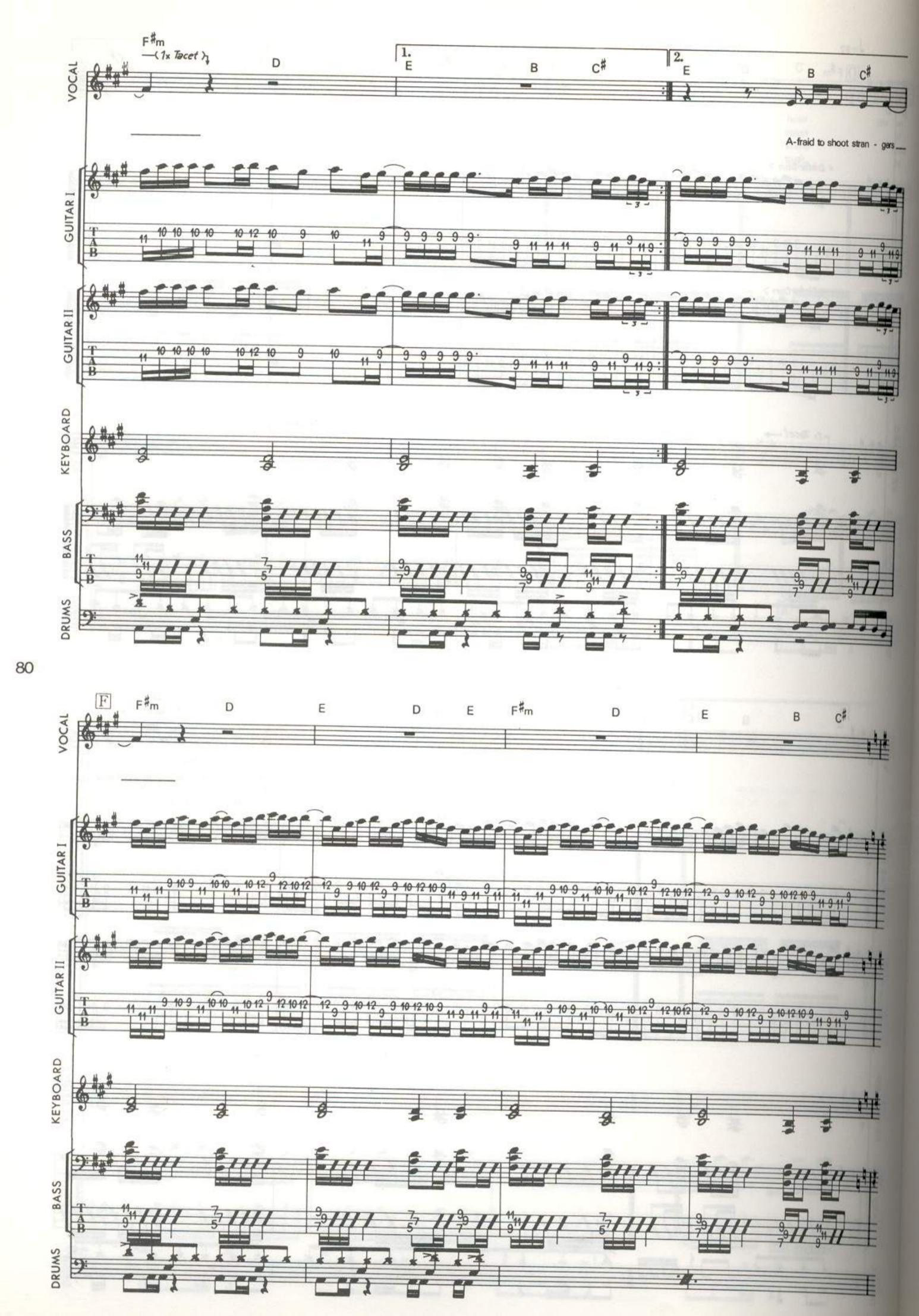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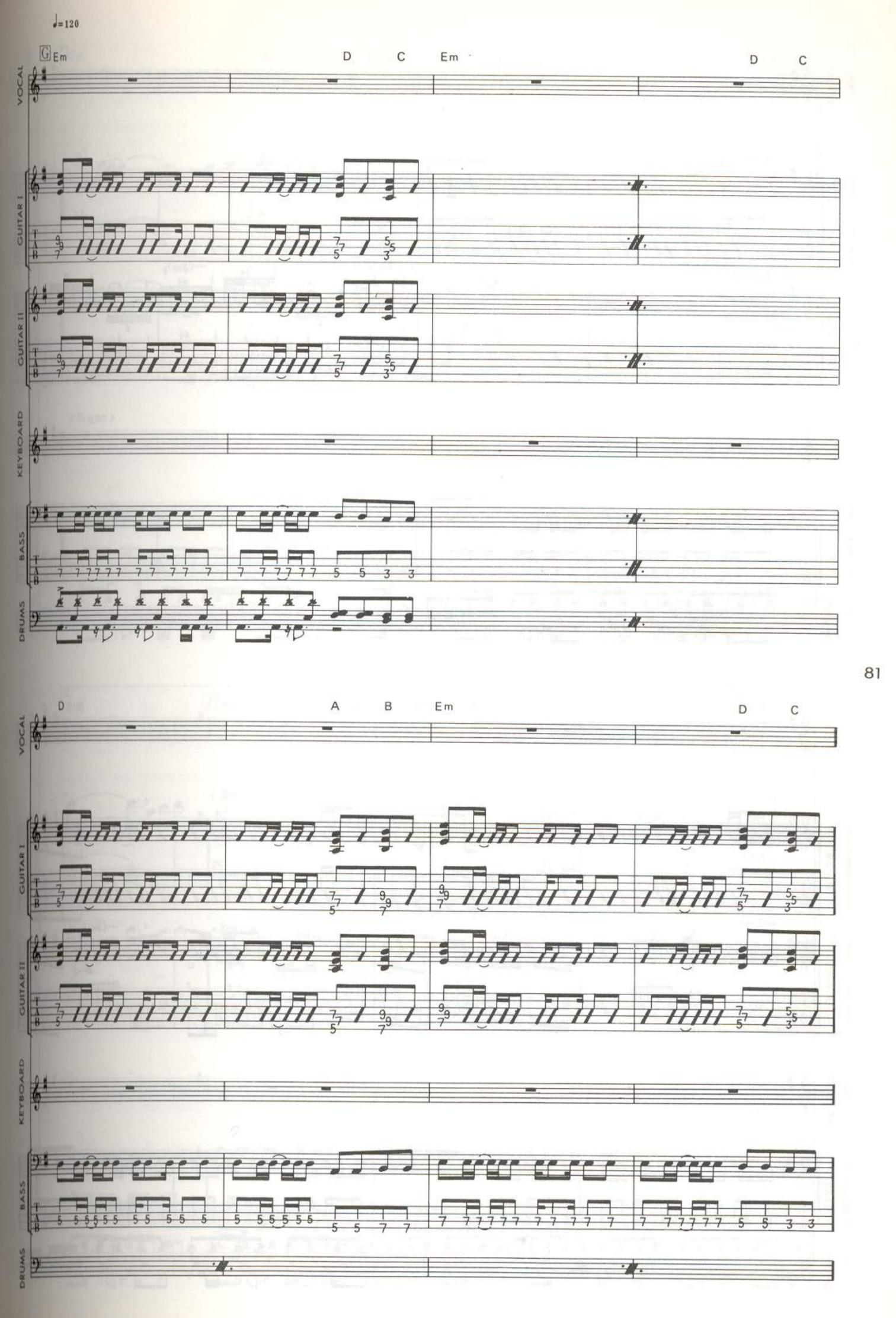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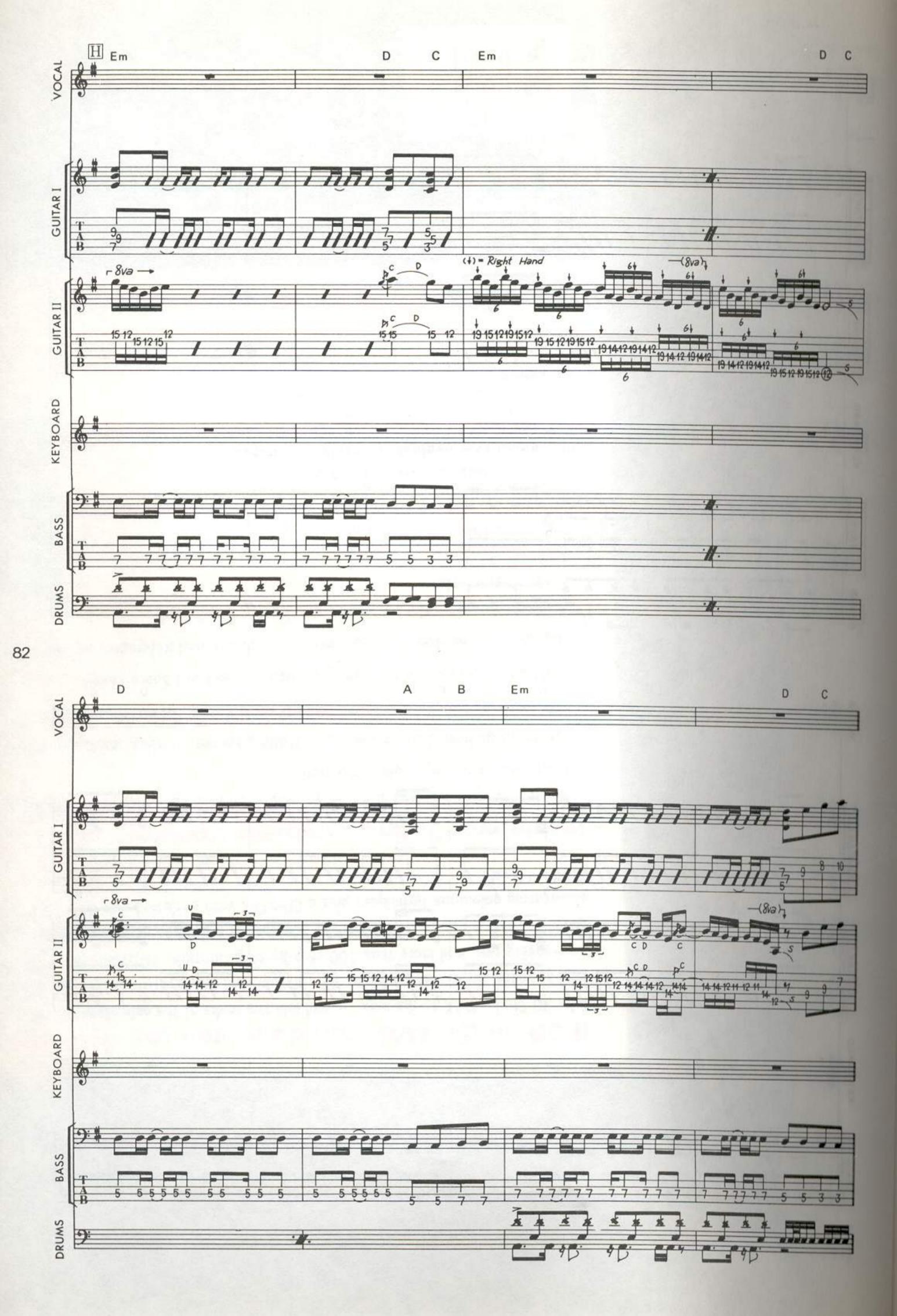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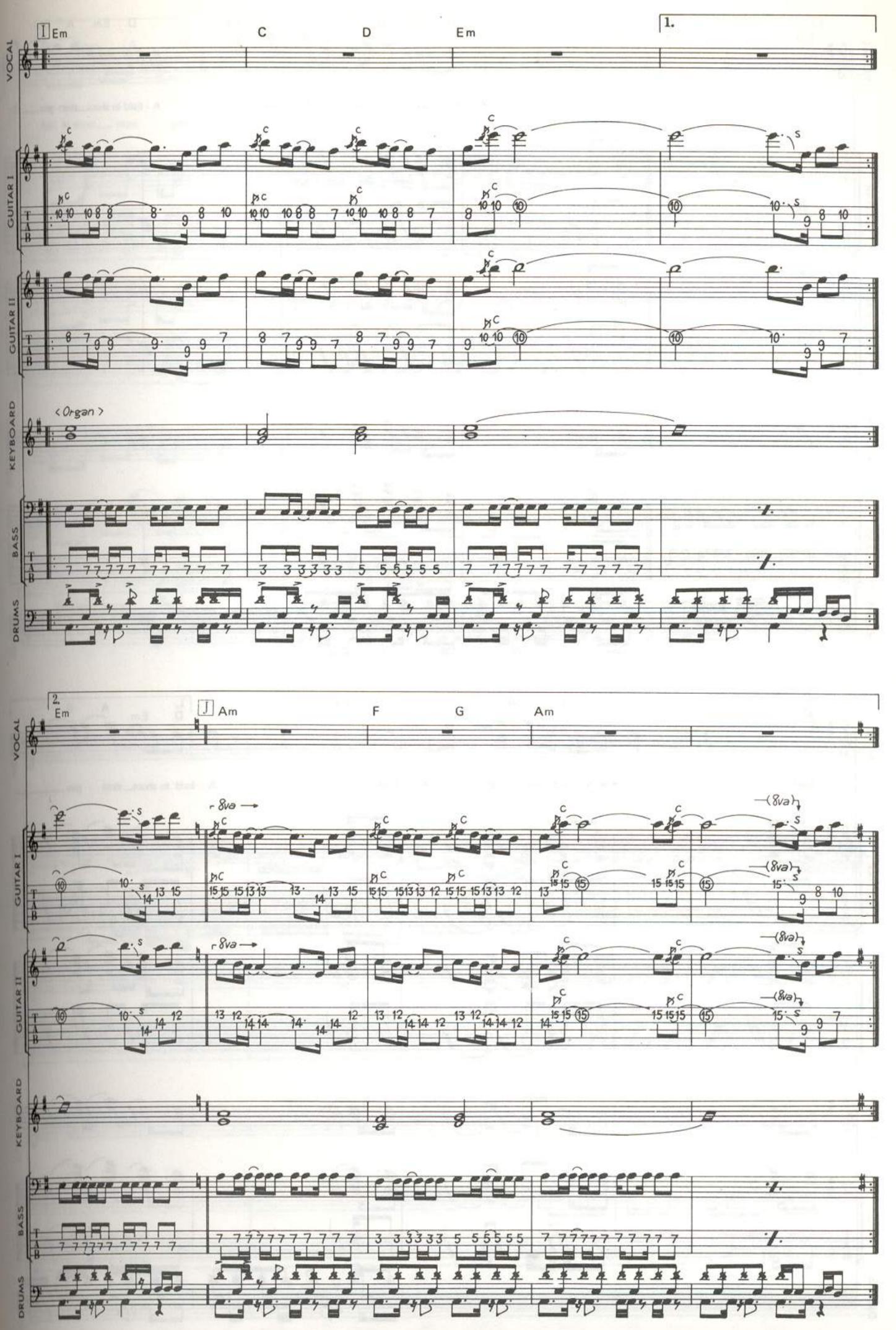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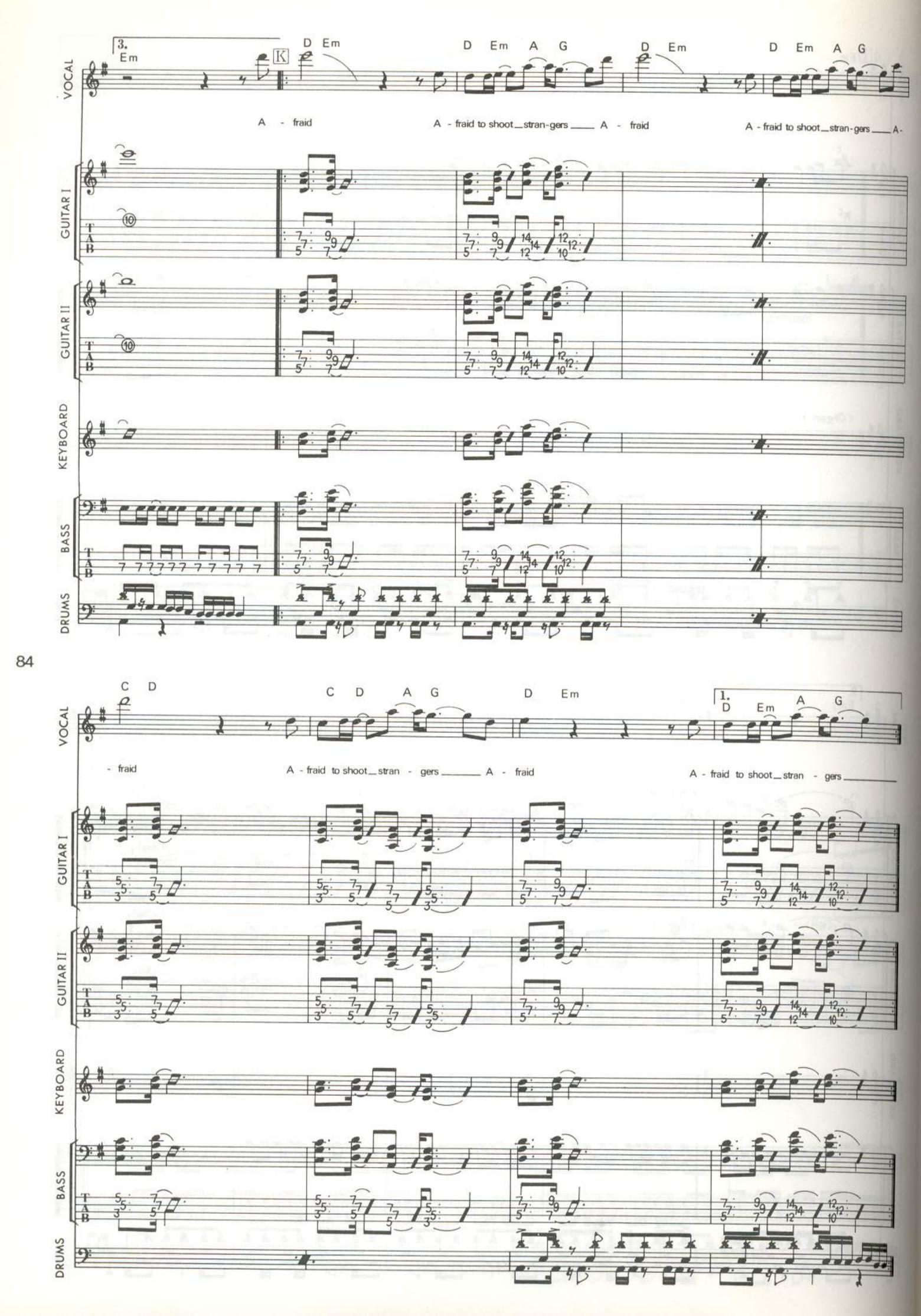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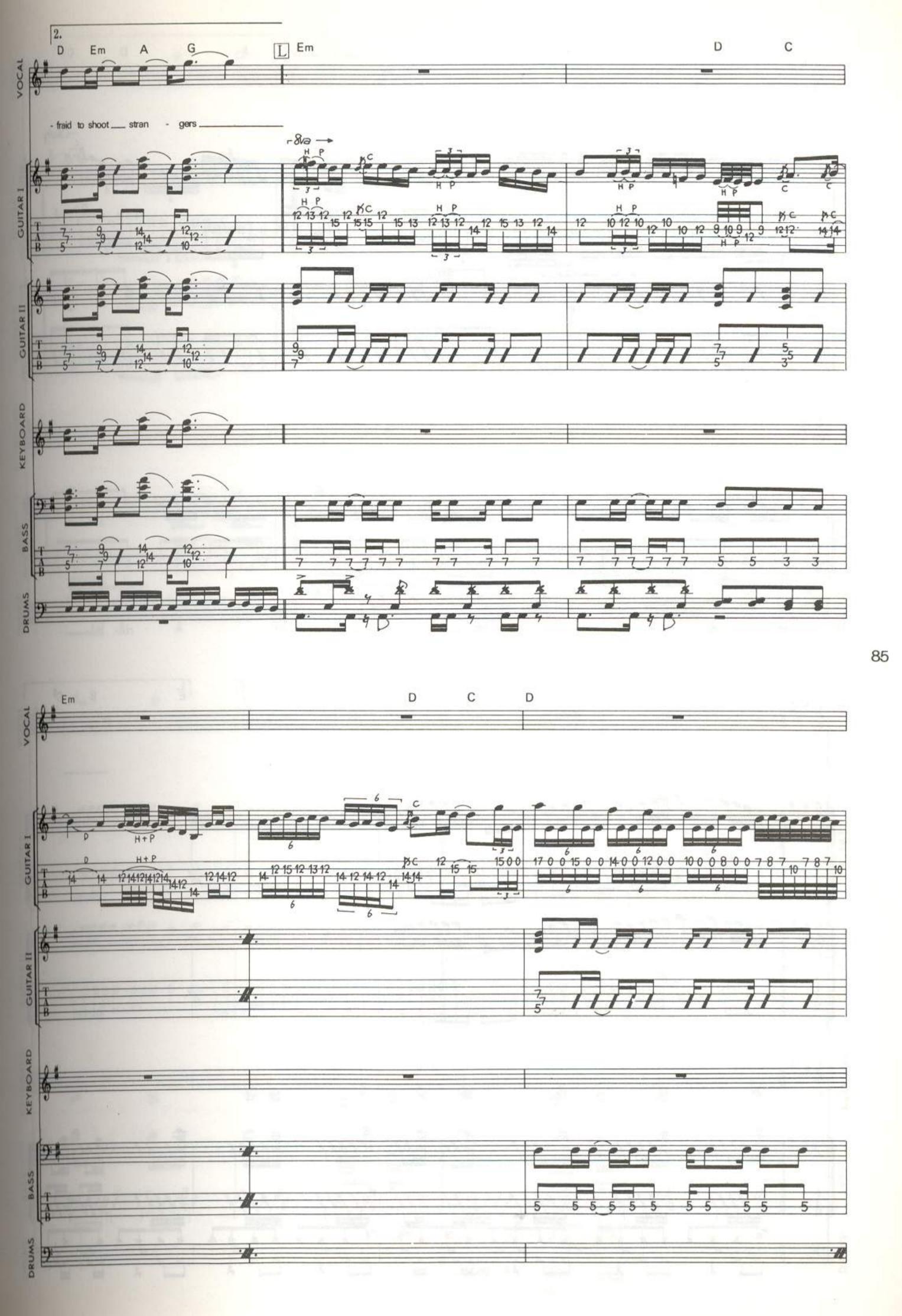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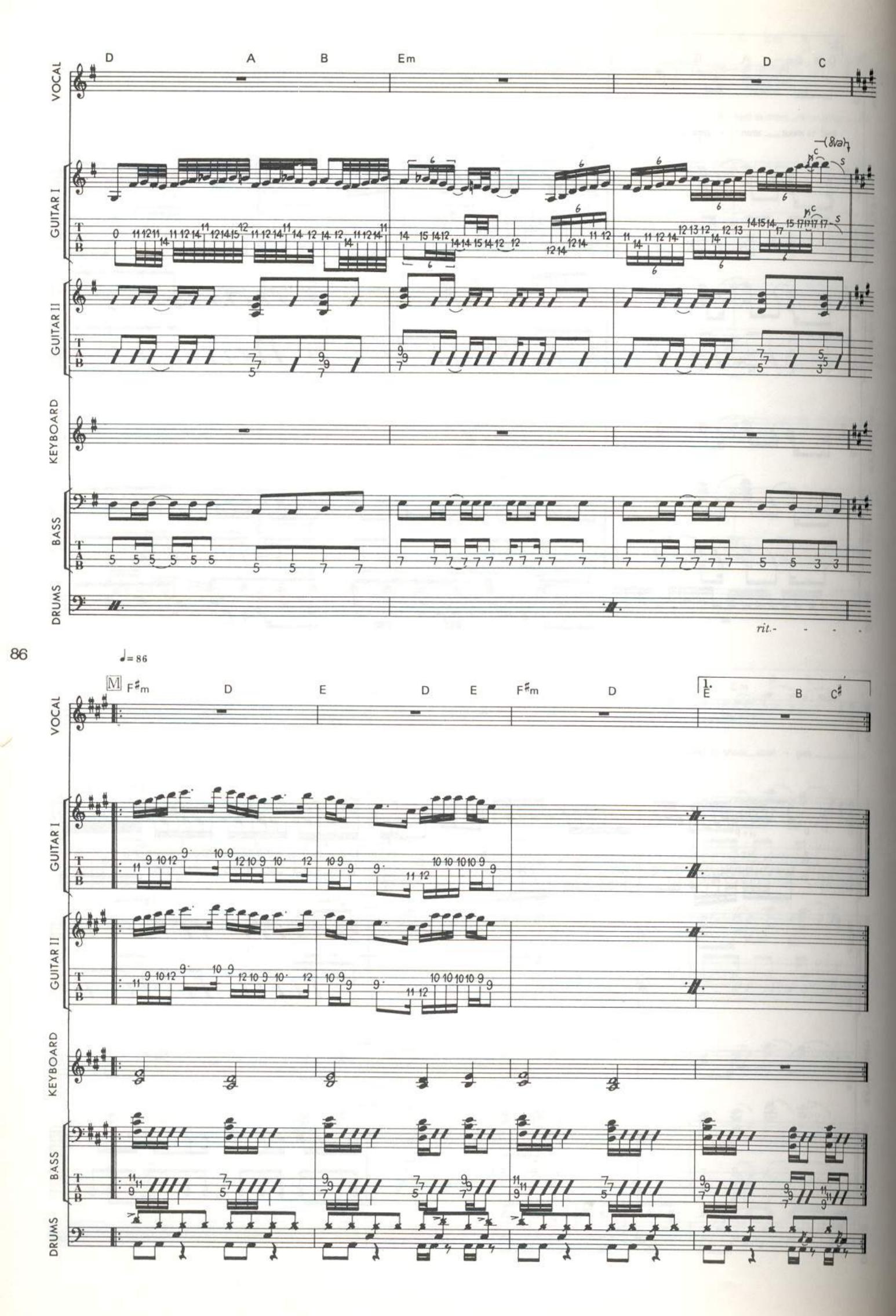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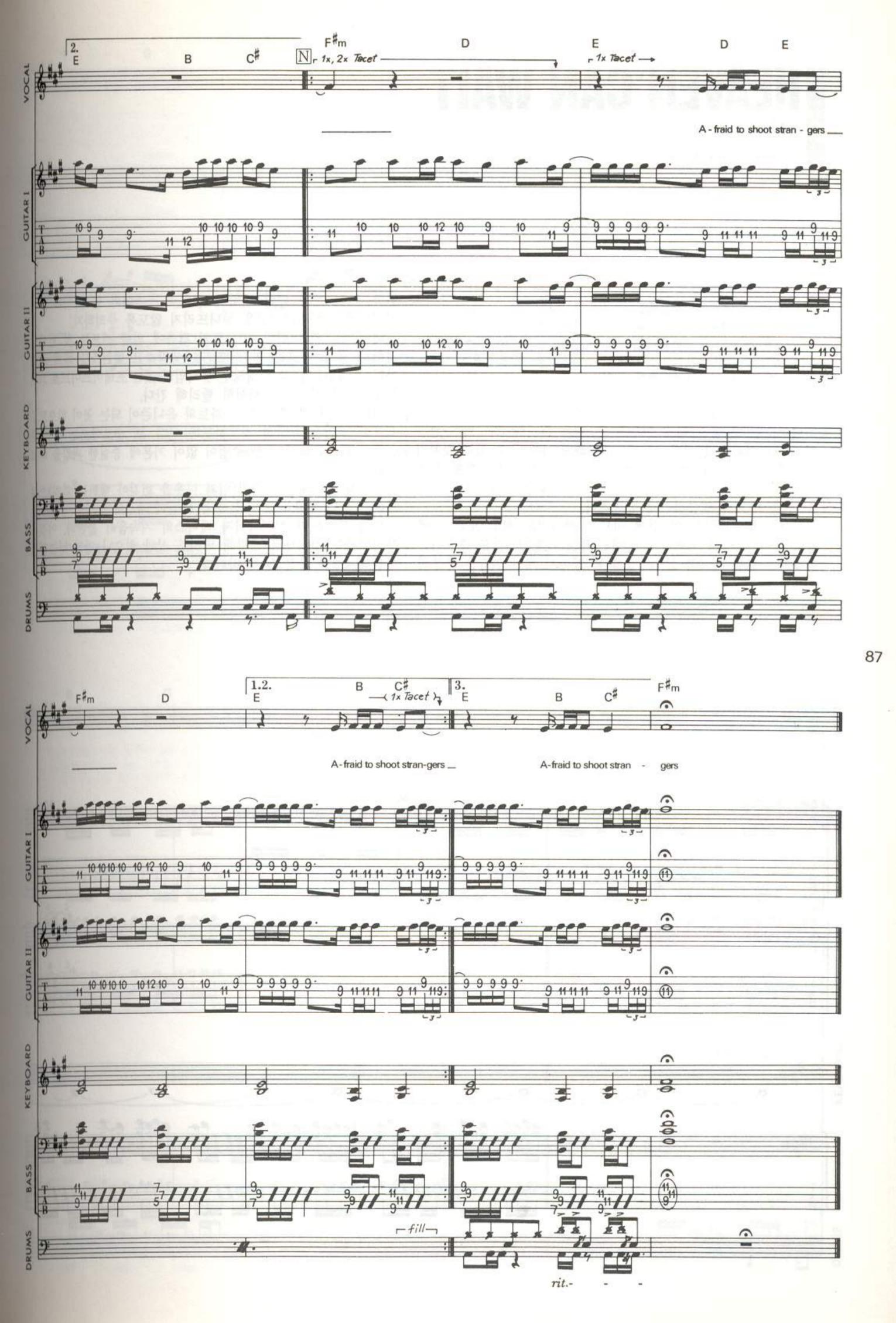












HEAVEN CAN WAIT

헤븐 캔 웨이트

by Steven Percy Harris

〈연주순서〉

참으로 "폭발"하는것 같은 느낌의 곡이다.

난이도도 꽤 높고 쉽게 연주할 수 없을 것이다. 최대의 난관은 템포 체인지하는 匠이다. 의외로 매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전원이 템포감이 일치하지 않으면 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전원이 호흡을 맞춰서 스무스하게 템포 체인지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게 중요하다.

드럼은 템포 체인지와 함께 비트도 변하기도 하고 모든 곳에 필이 들어 있어 꽤 바쁘다. 처음에는 템포를 떨어뜨려도 좋으니까 각각의 비트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개인 연습을 충분히 한다. 특히 킥이 많이 변화해 감으로 스네어와 햇 라이드 등의심벌즈계와 콤비네이션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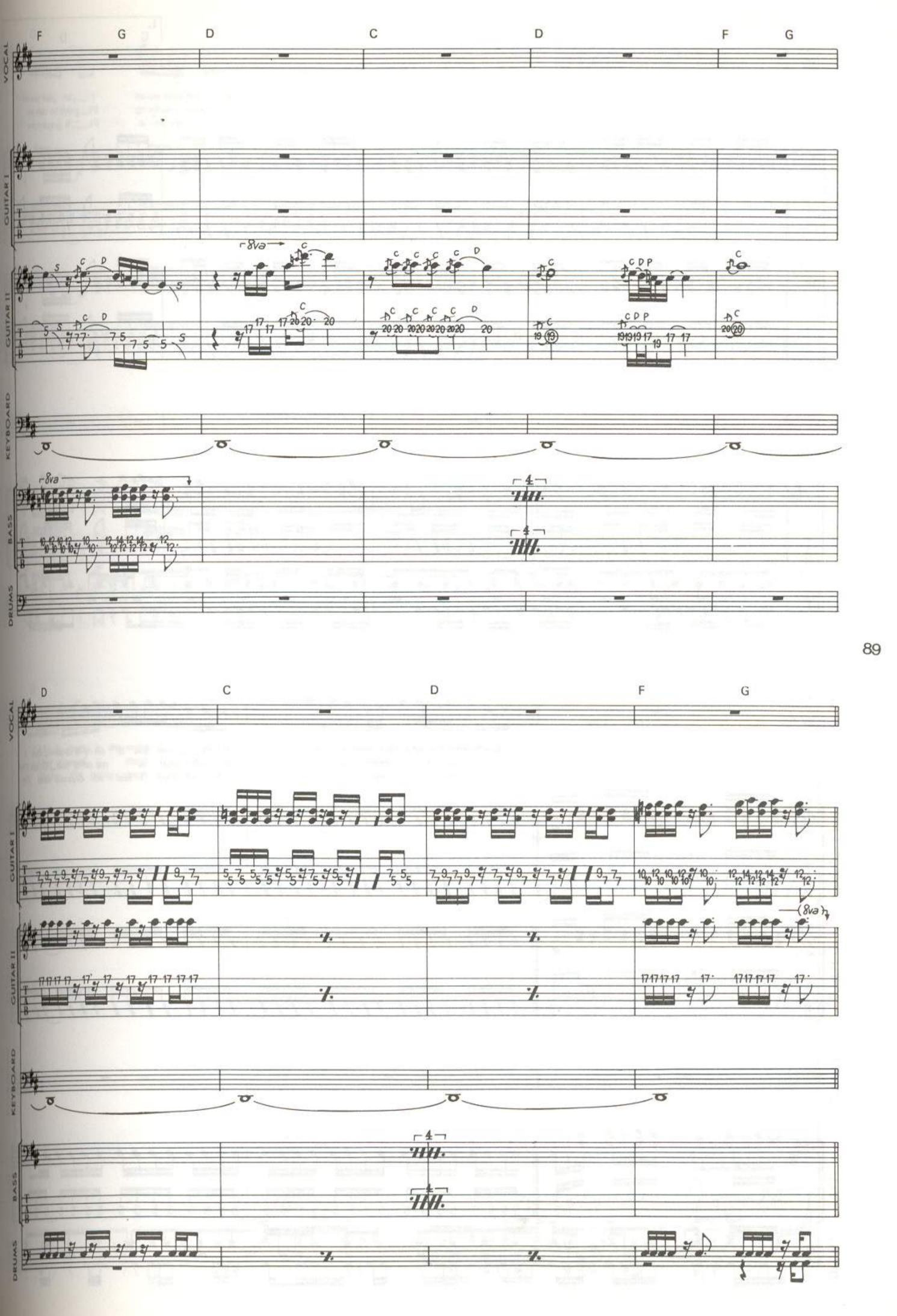
베이스도 꽤 어렵다. 인트로의 겹음에 의한 리프는 첫 난관일 것이다. 줄을 누르는 힘의 배분을 생각하고 밸런스를 좋게 피킹 한다. 또 D나 I 등은 상당한 움직임이 있는 프레이즈이므로 느린 템포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빨리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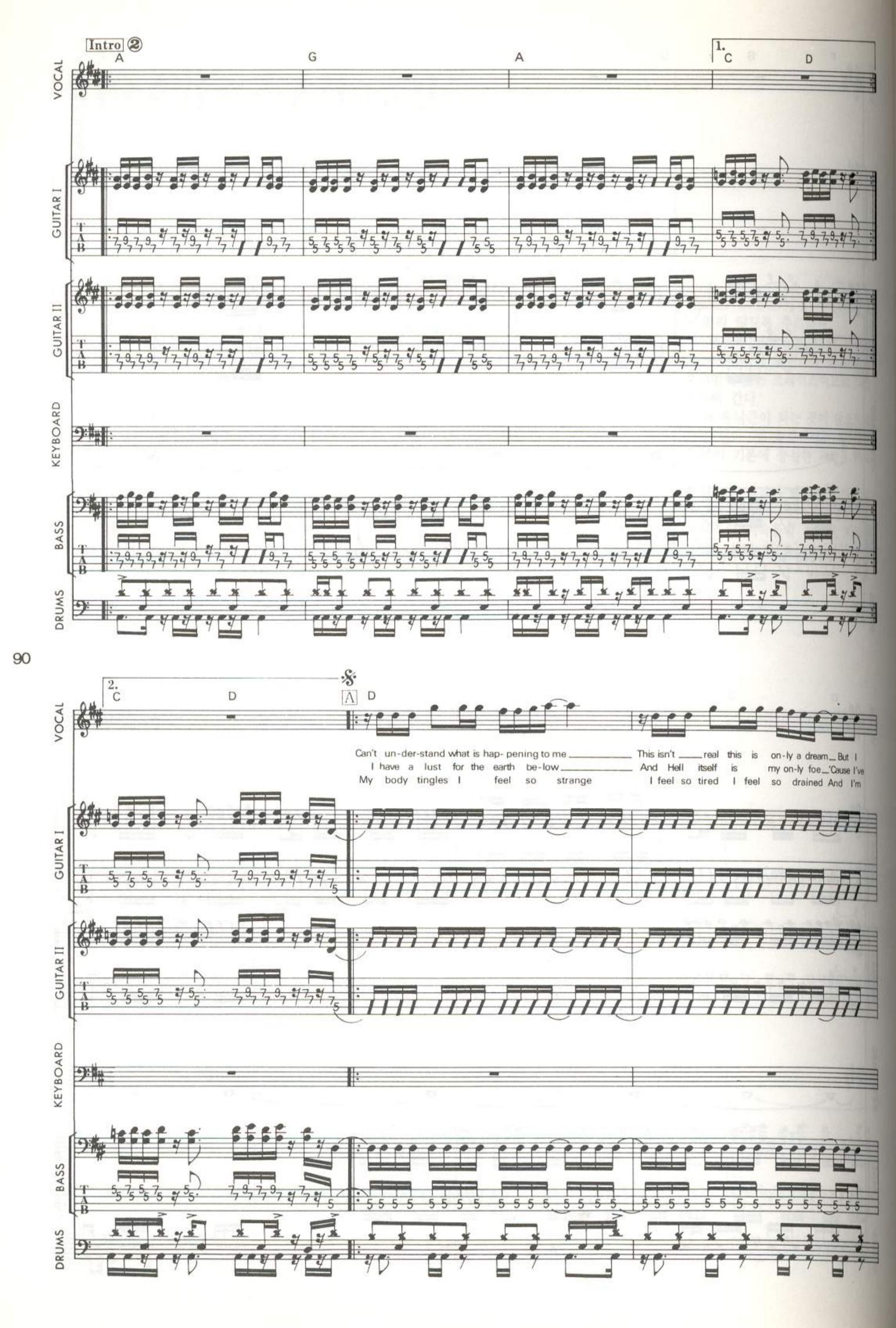
기타는 파트내, 혹은 다른 파트와 유니즌이 되는 곳이 많으므로 세로의 라인을 확고히 정돈하도록 한다. 또 솔로에서는 꽤 빠른 연주가 나오는데 특수한 주법이 없이 기본에 충실한 피킹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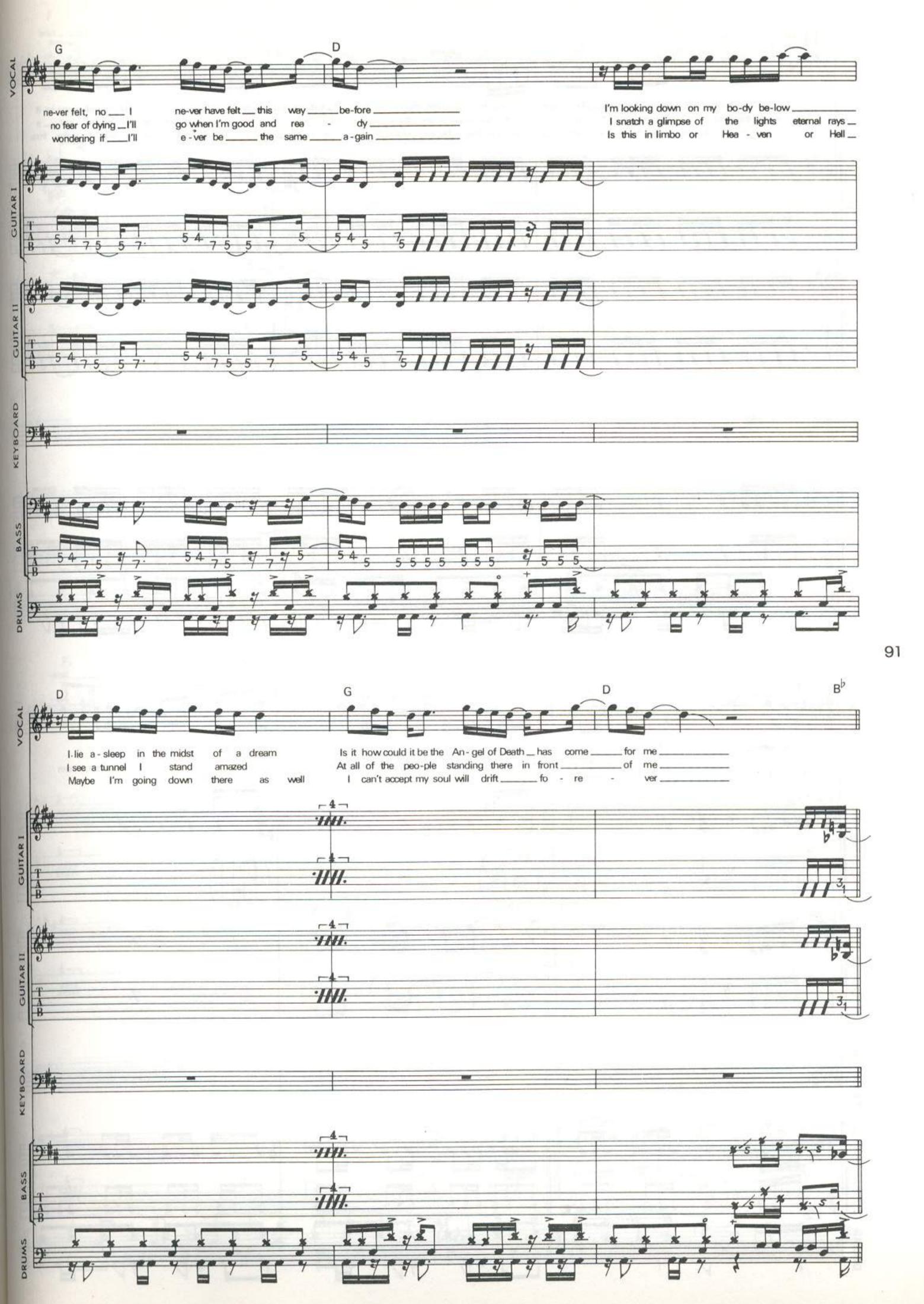
반드시 올터네이트 피킹(업과 다운을 번갈아 행하는 피킹)으로 처음엔 느린 템포라도 한음 한음 확실히 피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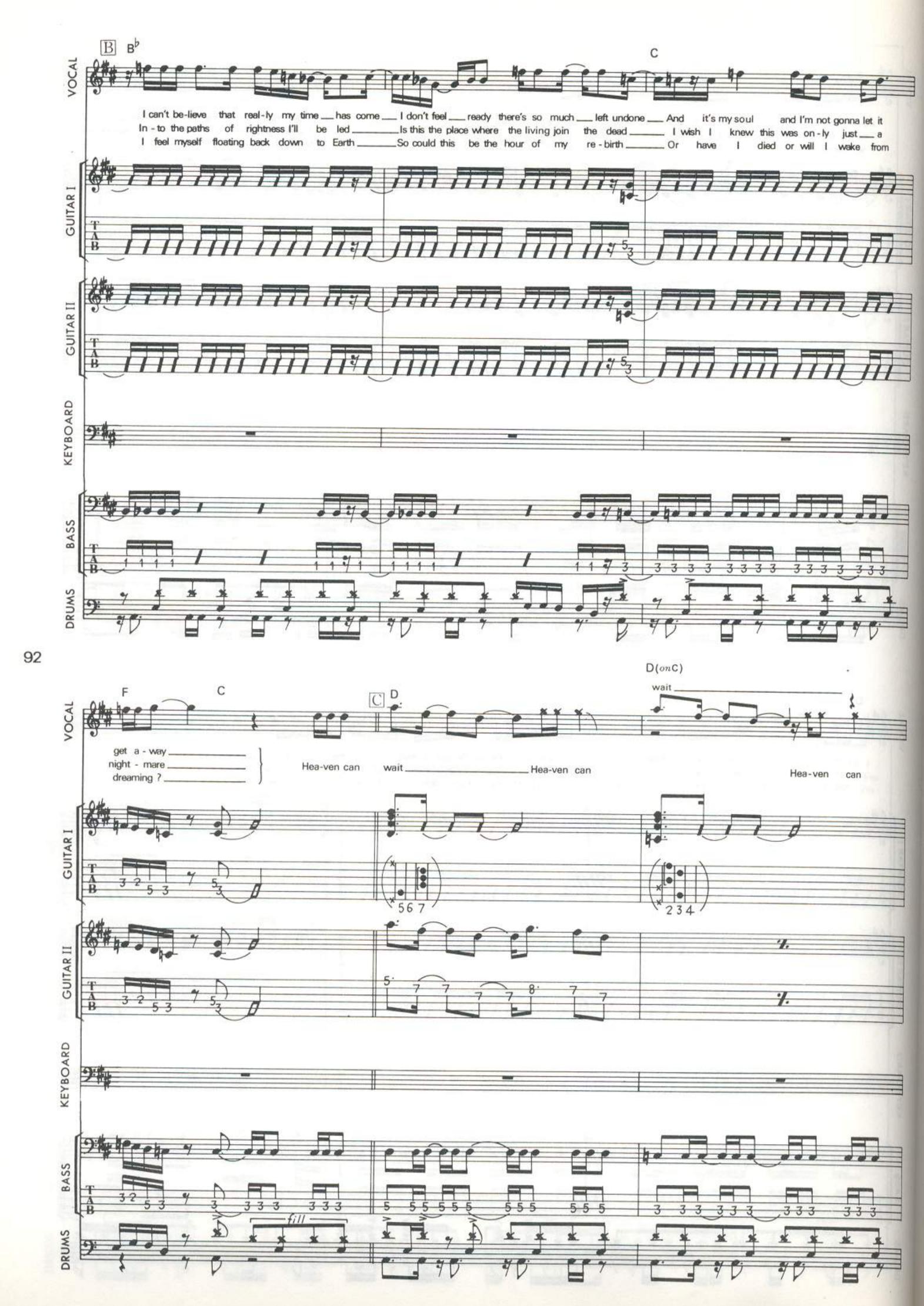
도입 부분에만 신서사이저 베이스의 지속음이 들린다. 이것은 분위기적인 것이므로 생략해 버려도 상관 없으나 만일 넣는다면 아날로그계의 음을 넣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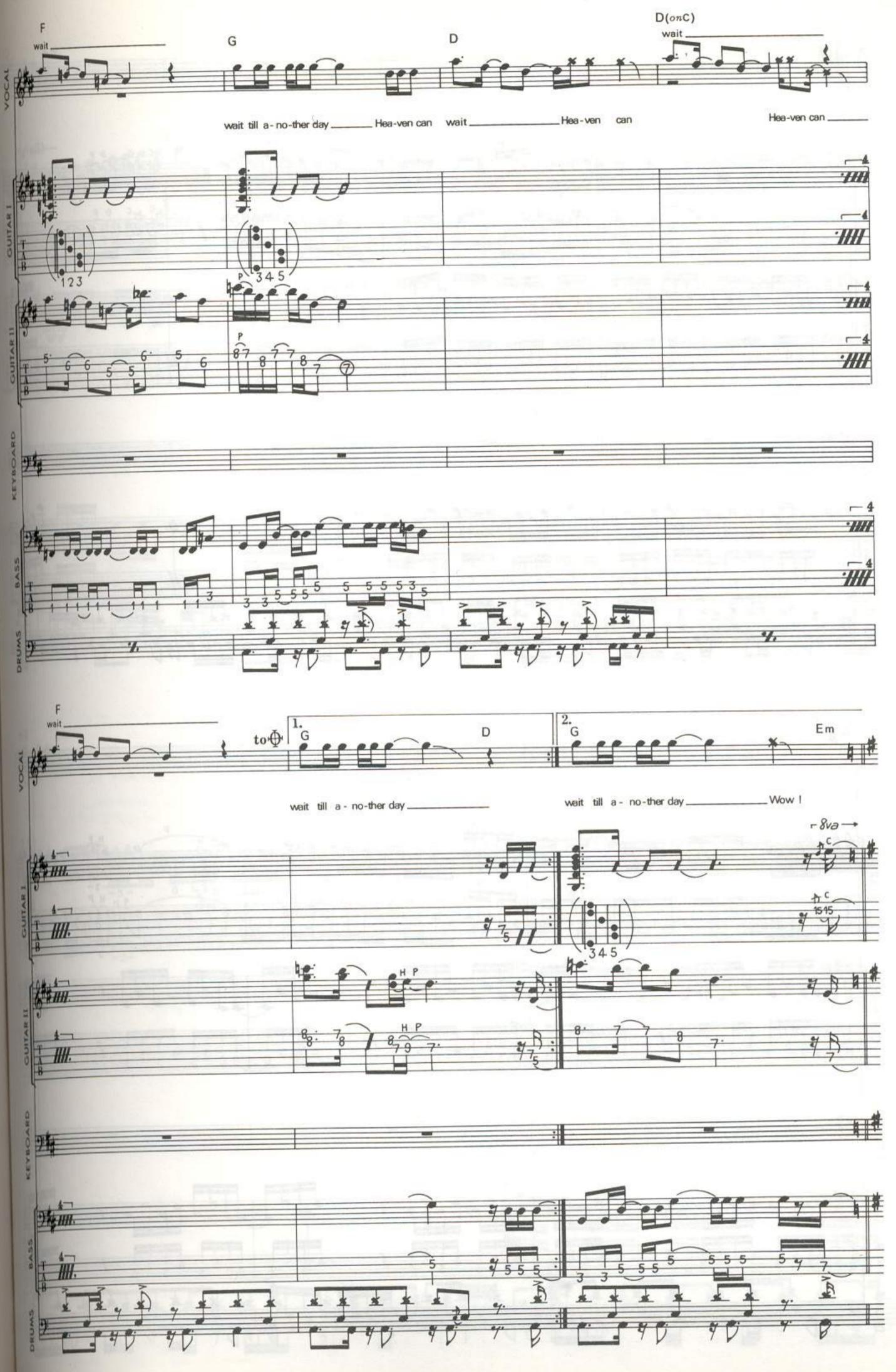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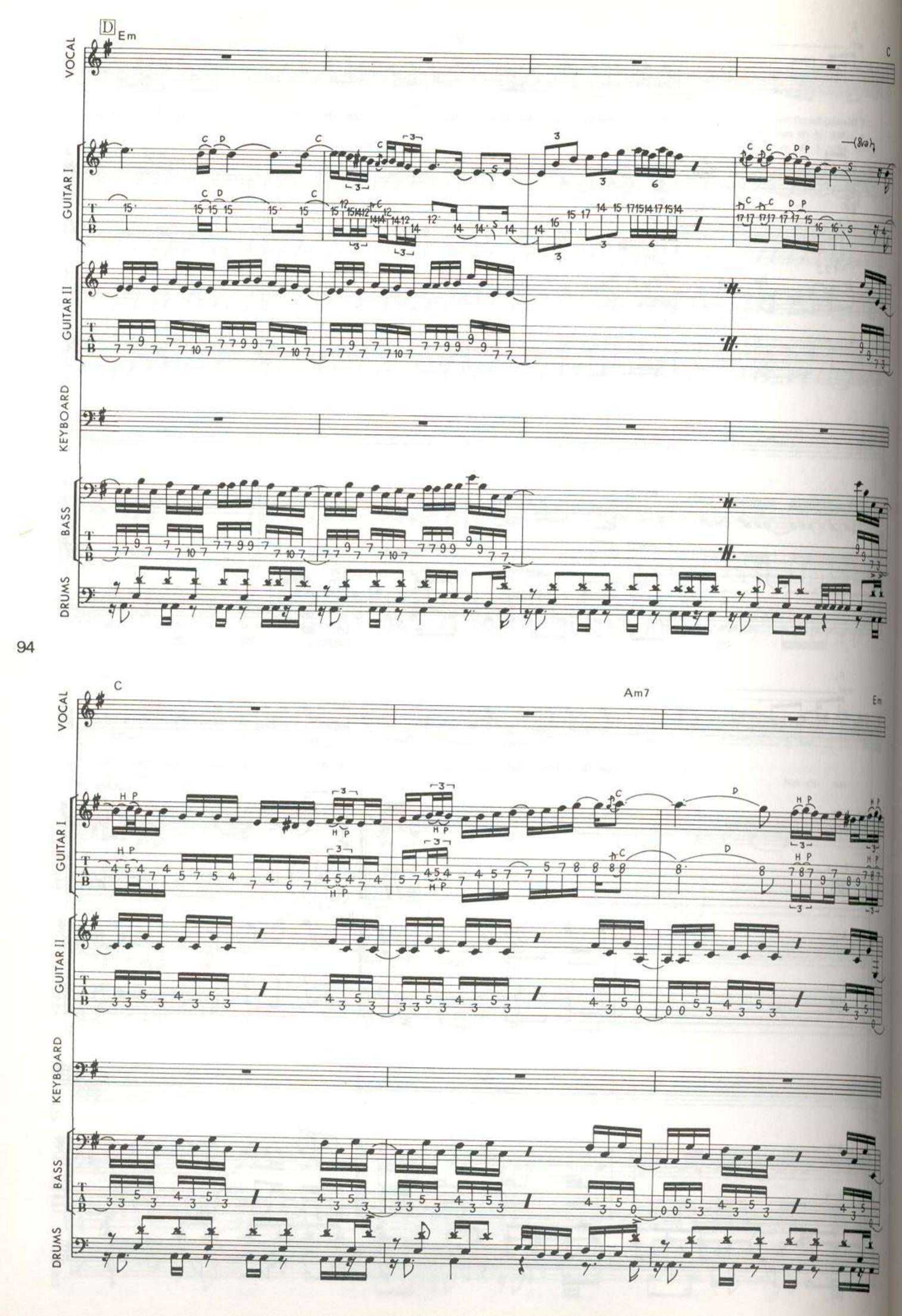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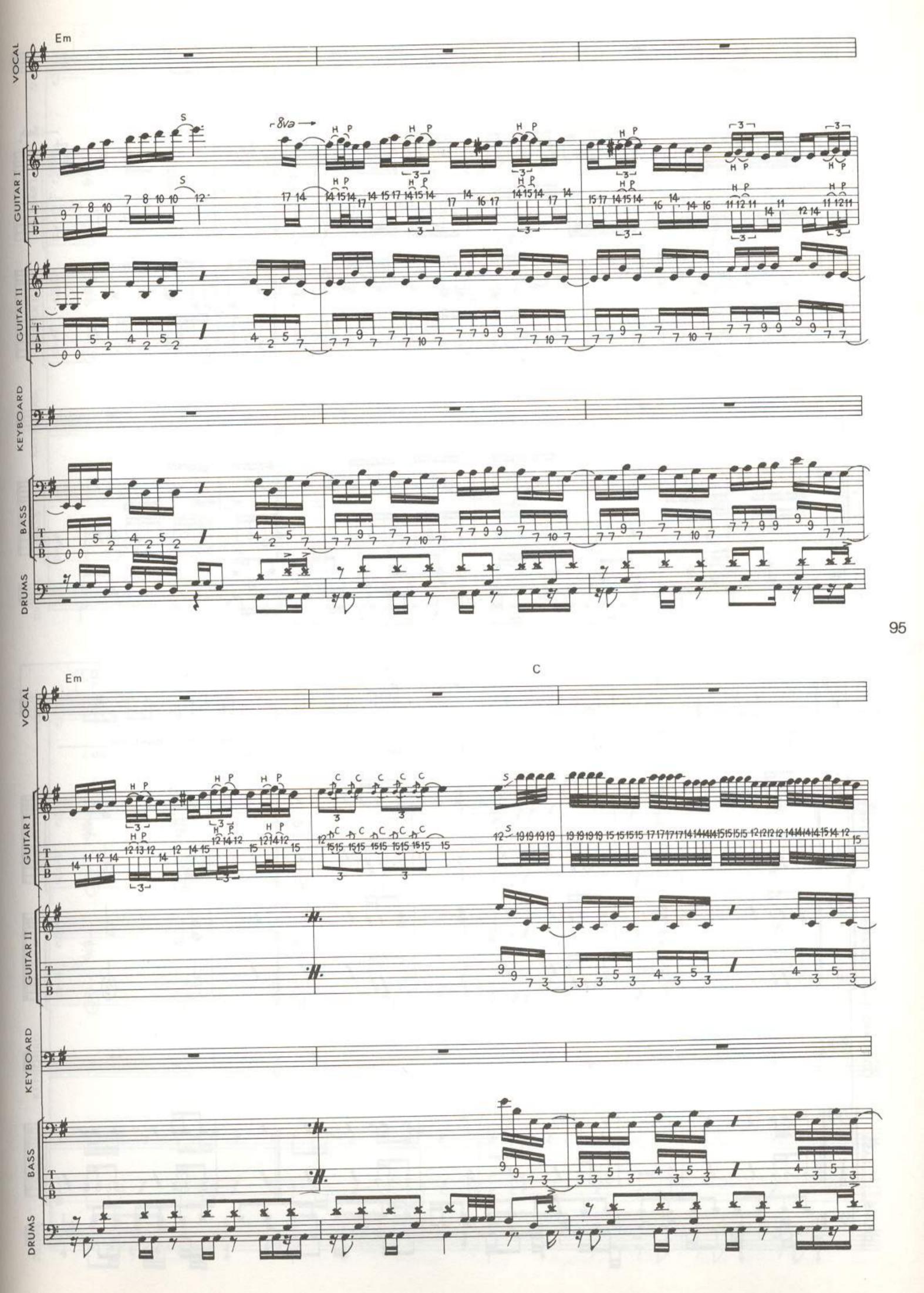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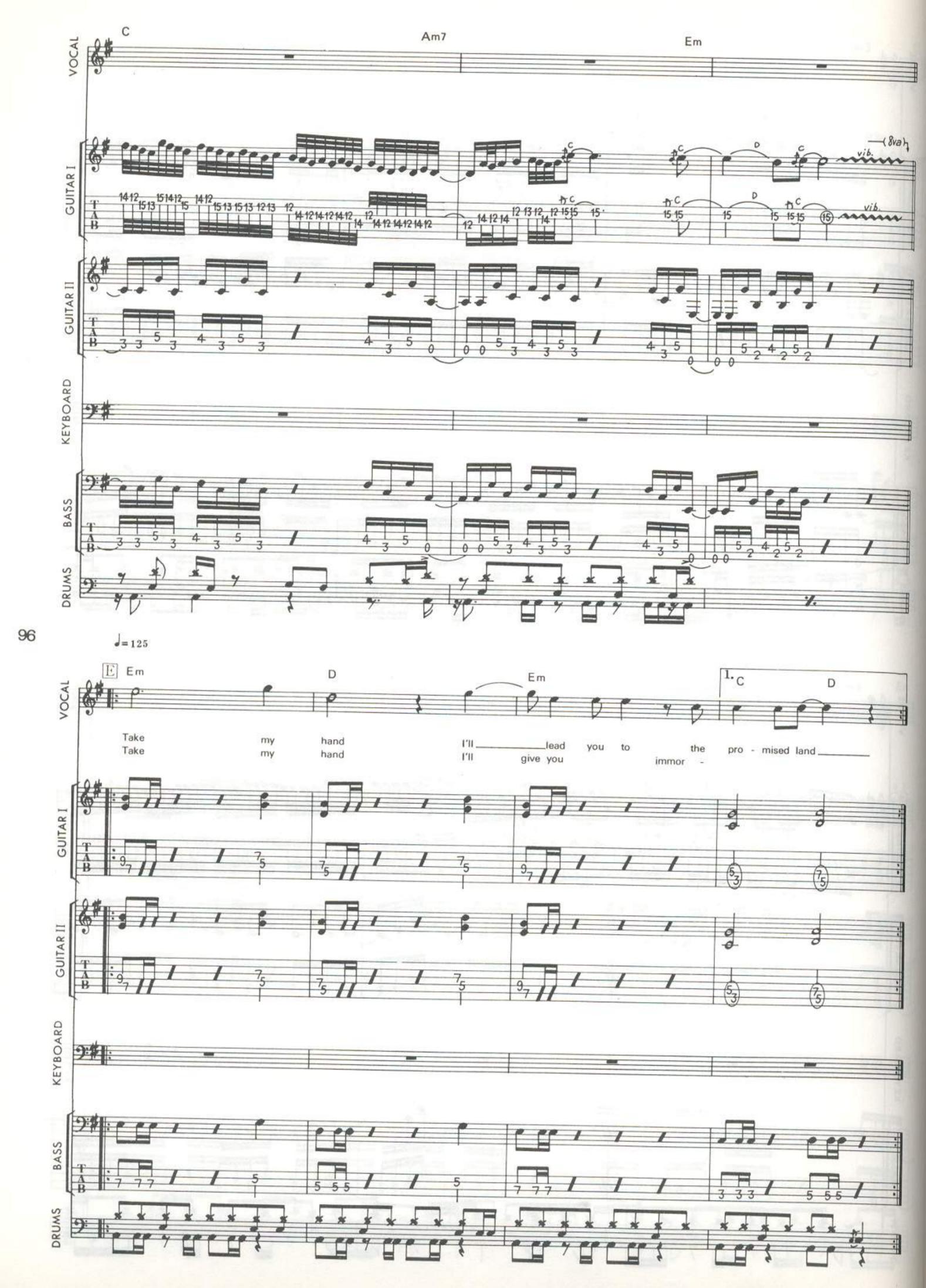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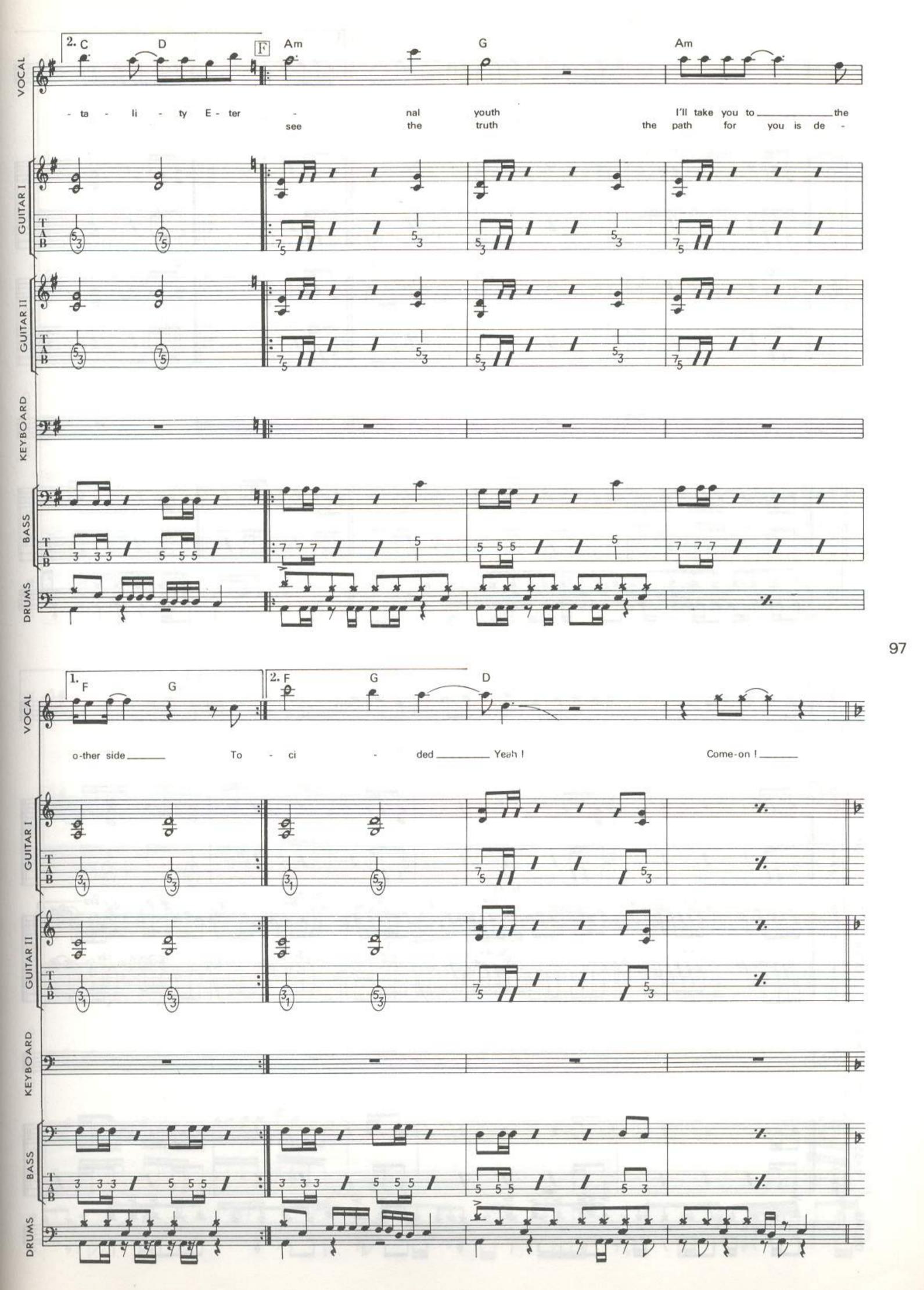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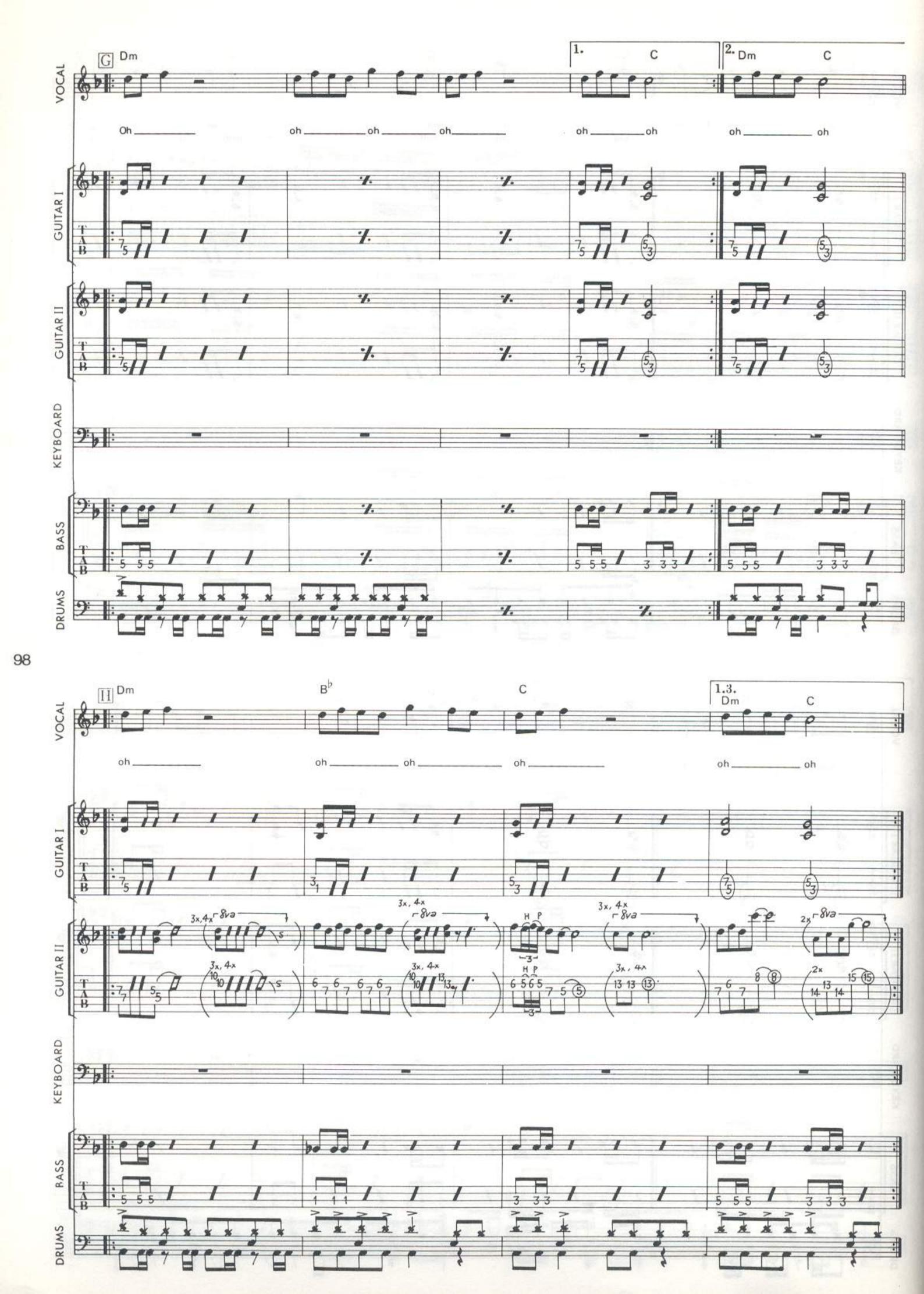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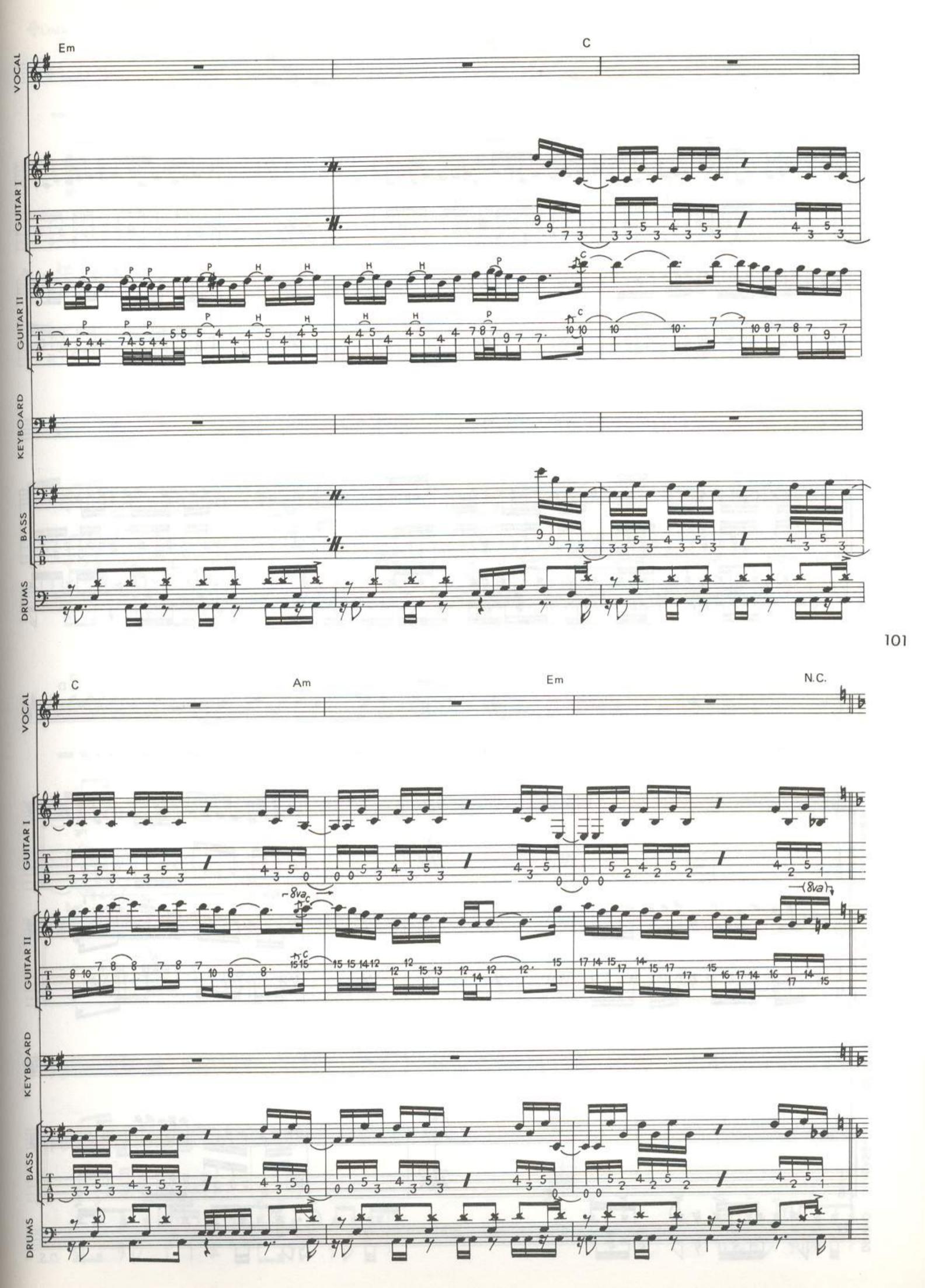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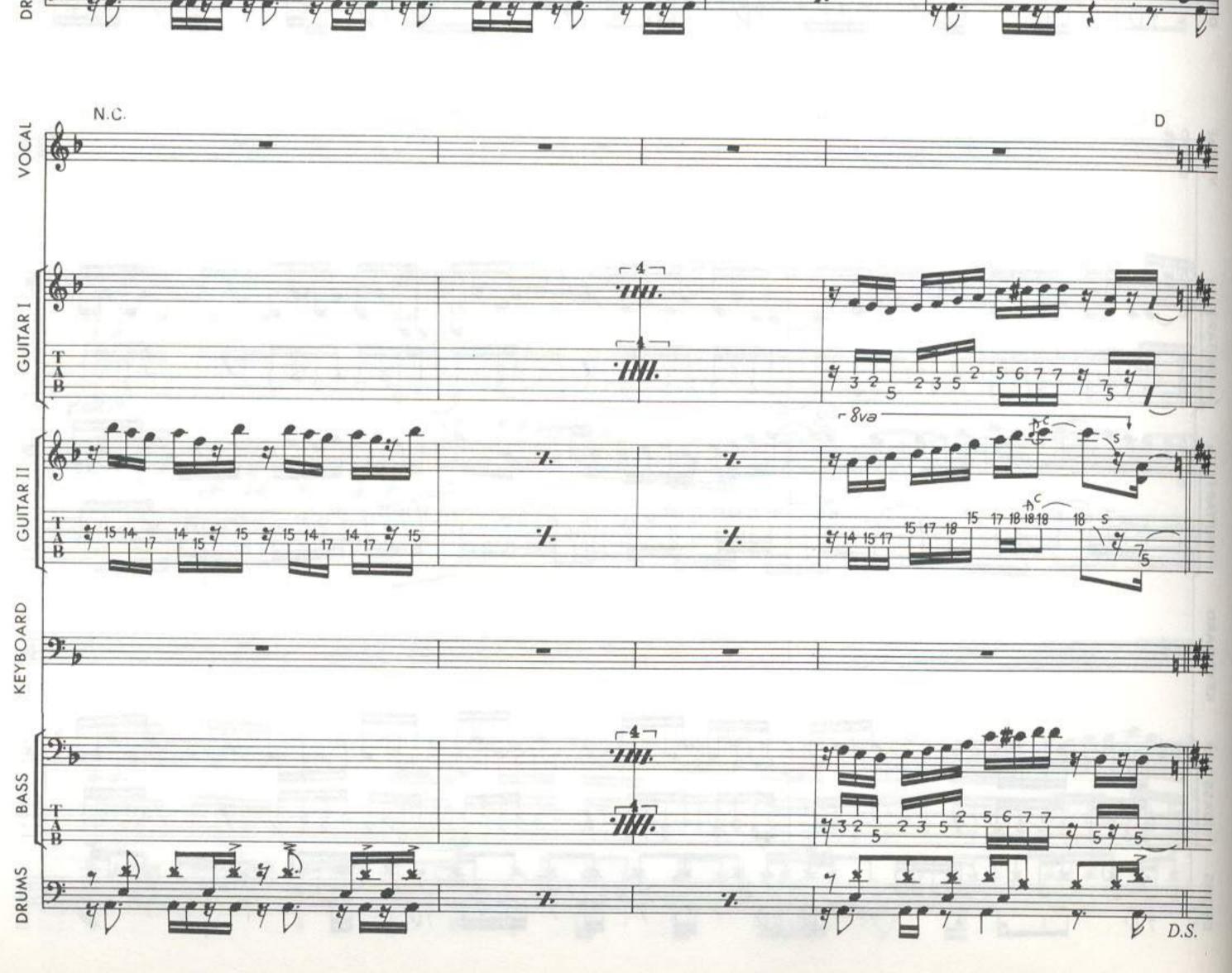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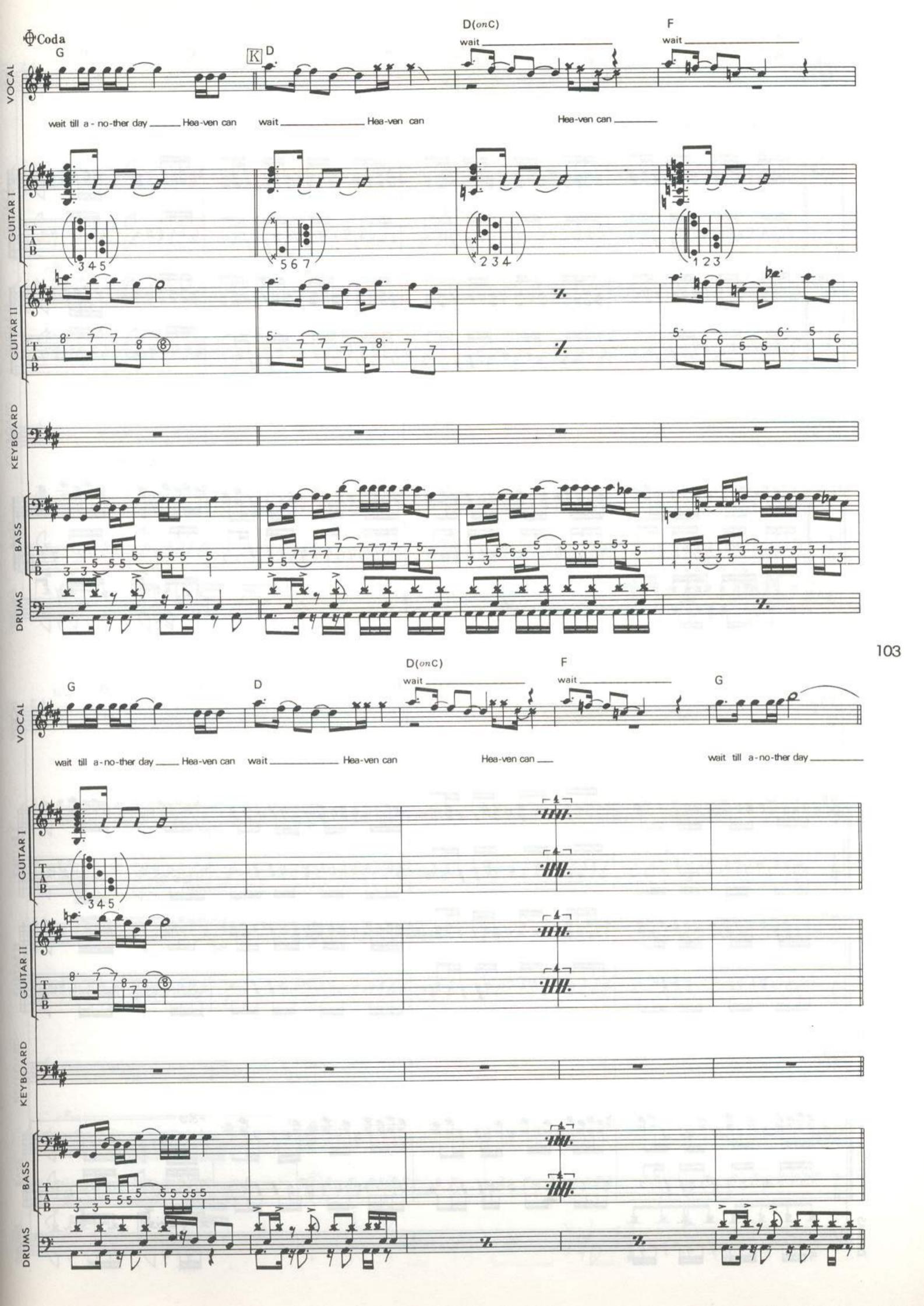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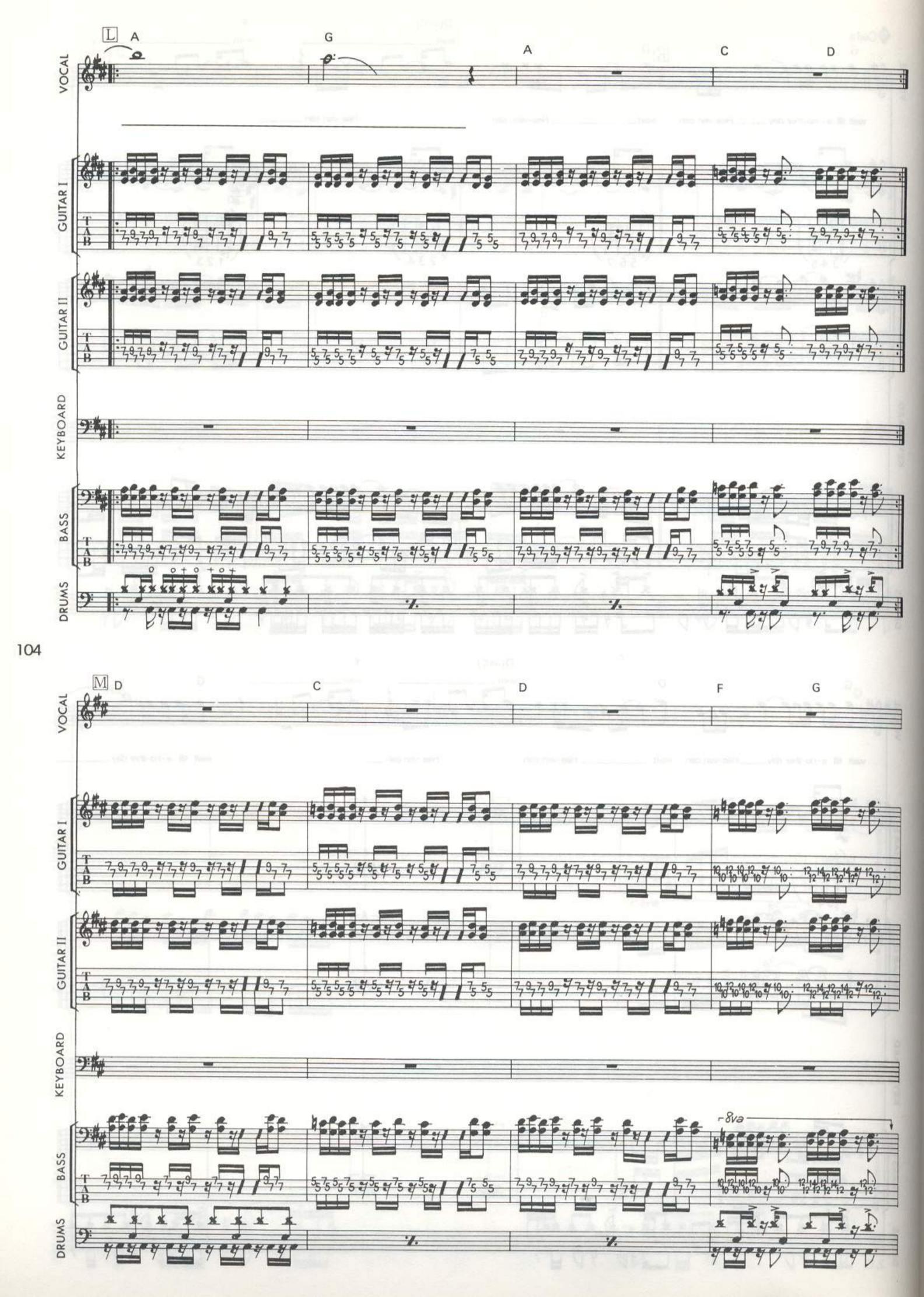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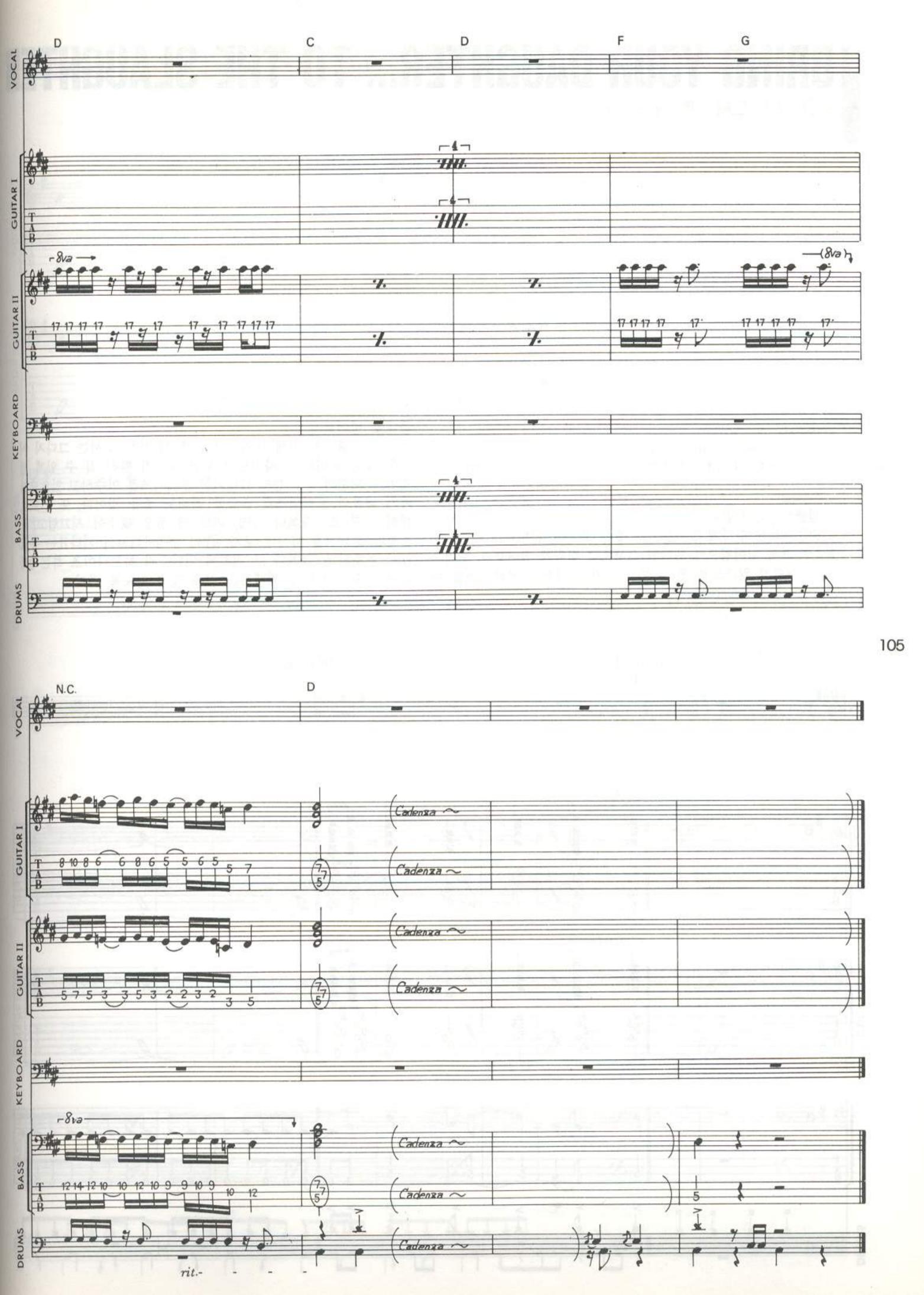












BRING YOUR DAUGHTER... TO THE SLAUGHTER

브링 유어 도터…투 더 슬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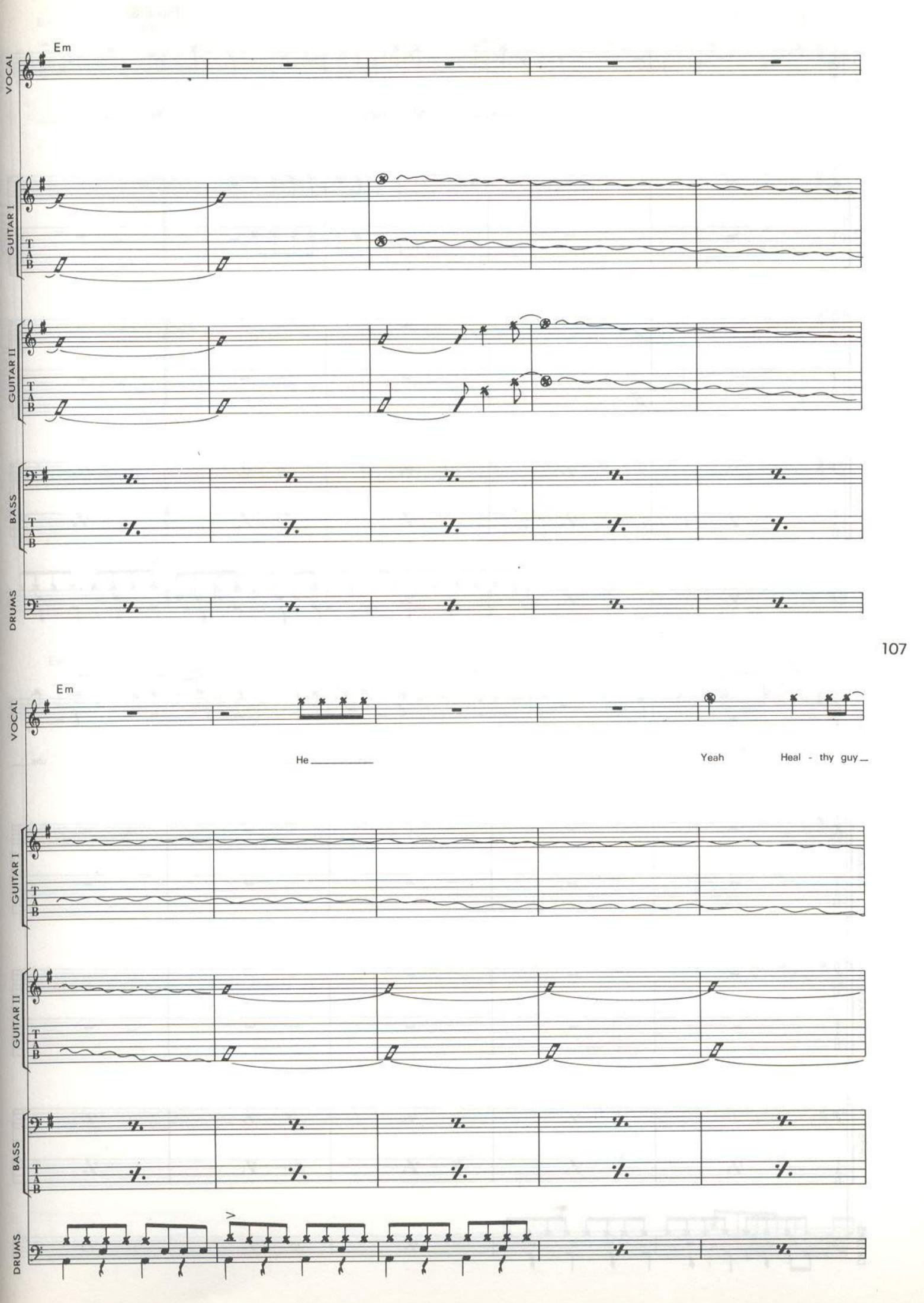
by Bruce Dickin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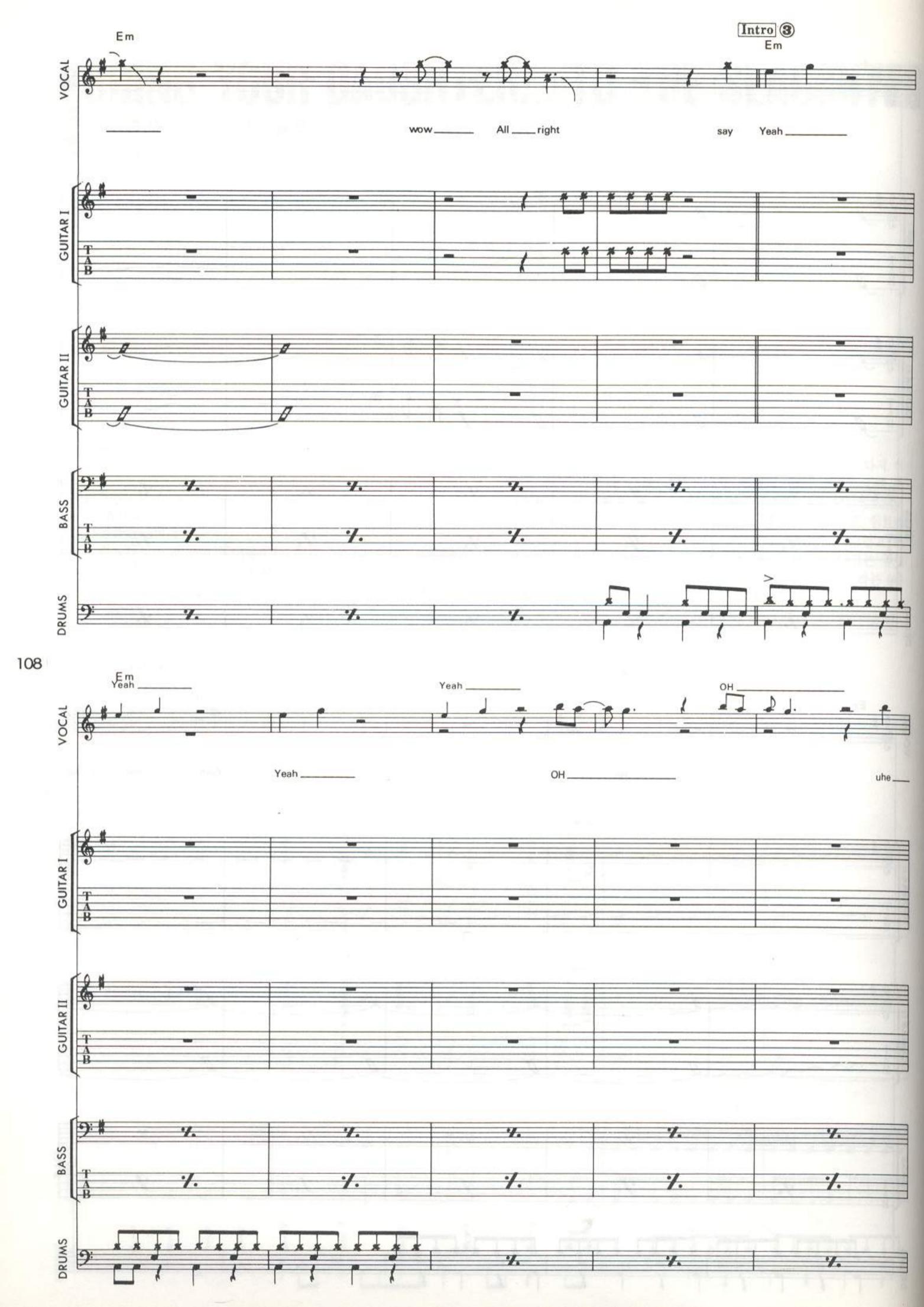
리듬파트는 힘차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이다. 인트로의 베이스는 E음이 계속 이어짐으로 세련된 음색으로 힘있게 밀어보자. 드럼은 특히 어렵지 않으므로 필 등에서는 자기 나름의 프레이즈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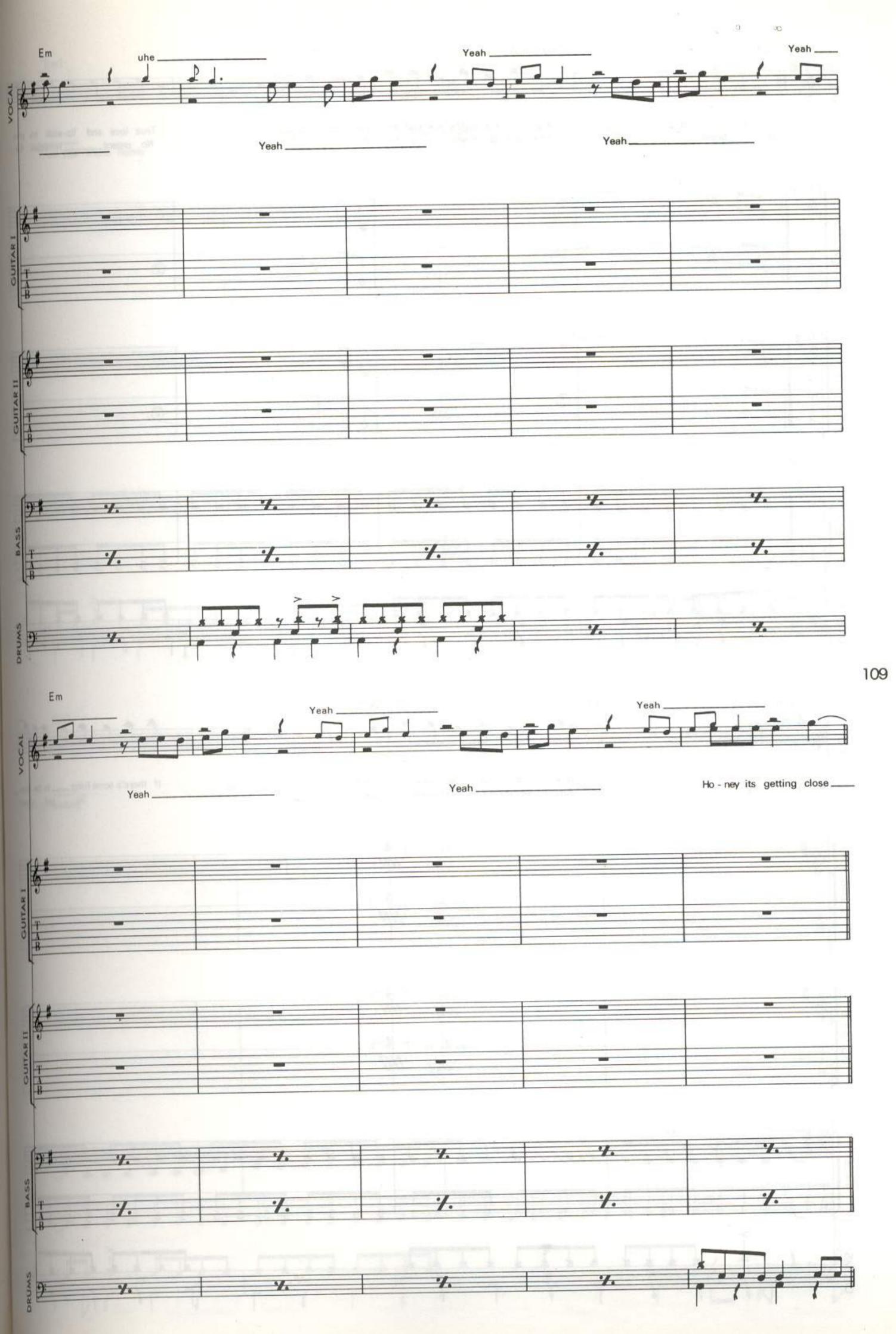
음대로 넣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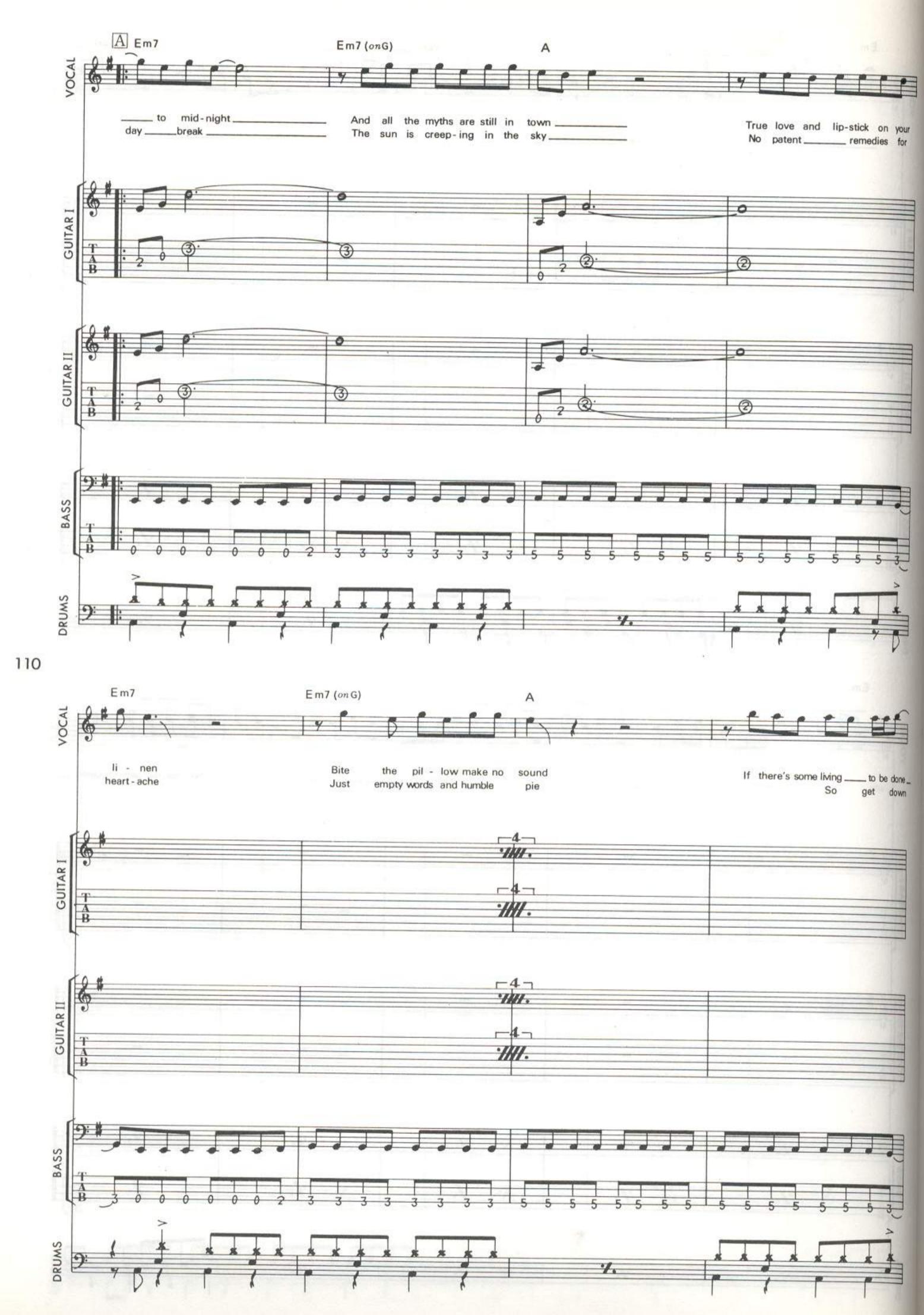
기타는 대단한 기세가 있으나 연주 테크닉으로서는 그다지 어려운 곡이 아니다. 드라이브만 하면 비교적 빨리 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중의 솔로 등도 트릭키한 프레이즈를 연주하고 있으므로 자기 나름의 프레이즈로 솔로를 취해도 좋을 것이다. 또 인트로에서는 픽 스크래치나 아밍, 피드 백 등을 맞추어 시끄럽고 폭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보자. [집의 1~8마디째의 기타II는 뮤트해서 연주할것. 그러나 그 직후에 기타 I 과 하모나이즈 하는 9마디째 이후는 뮤트를 해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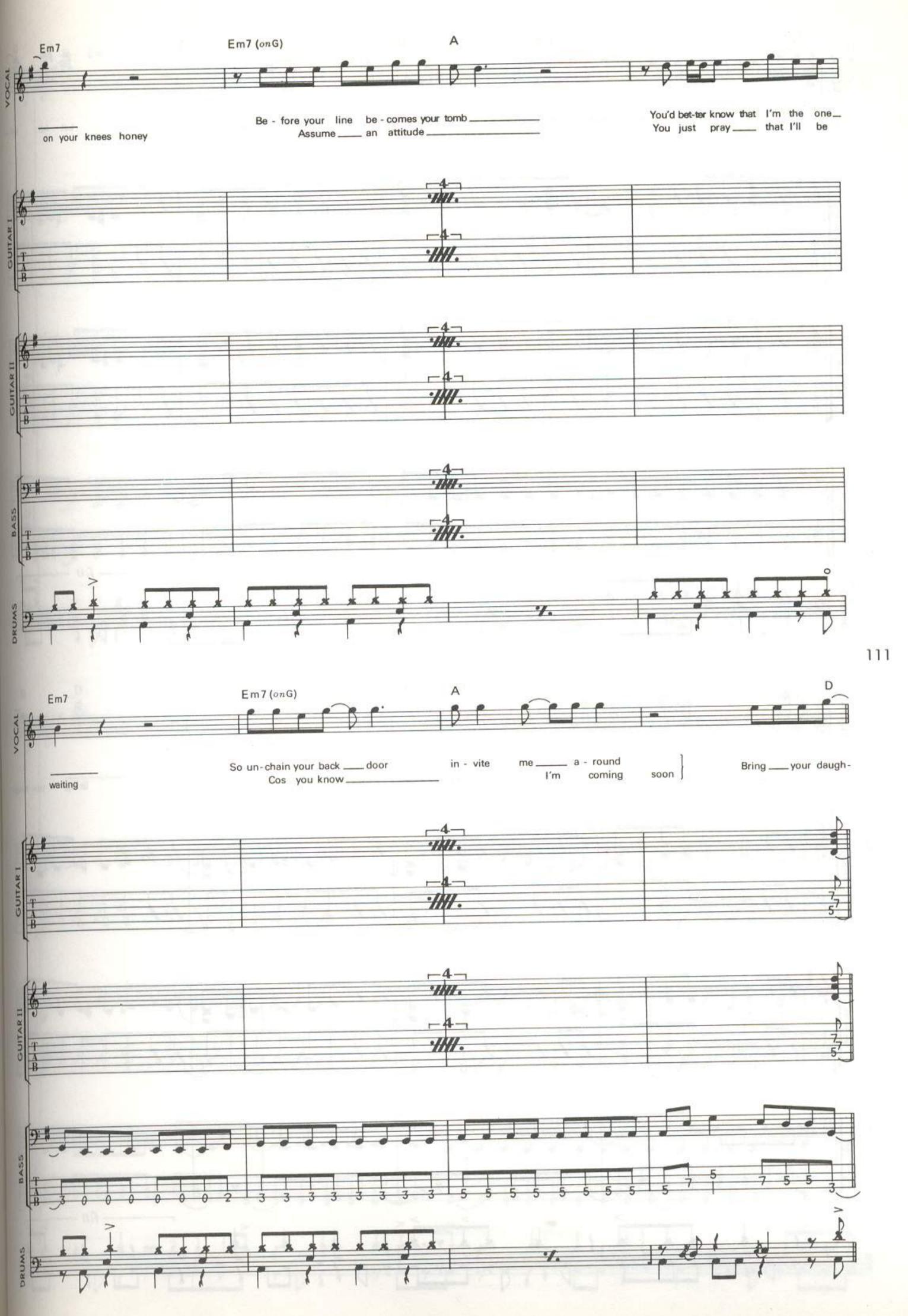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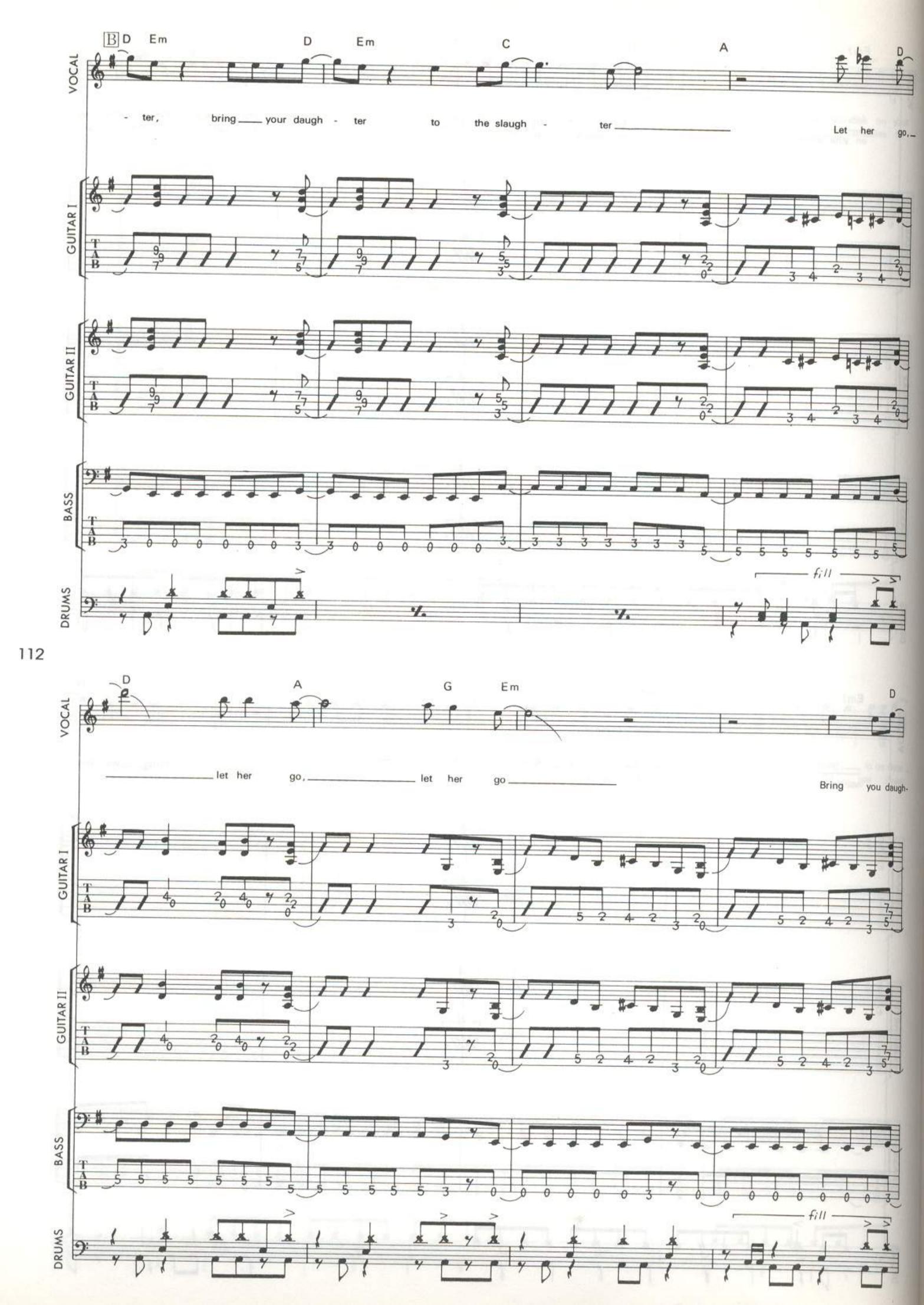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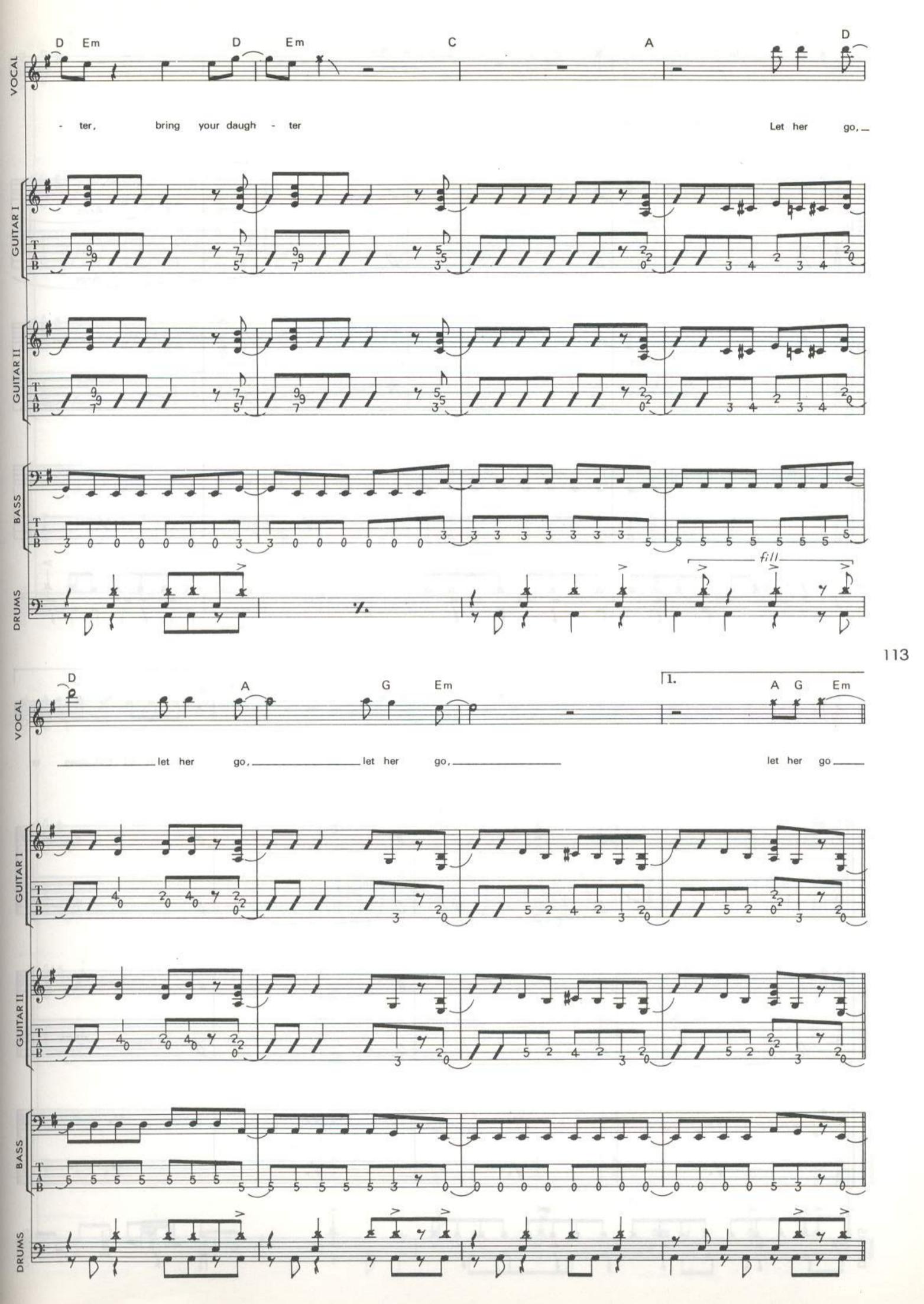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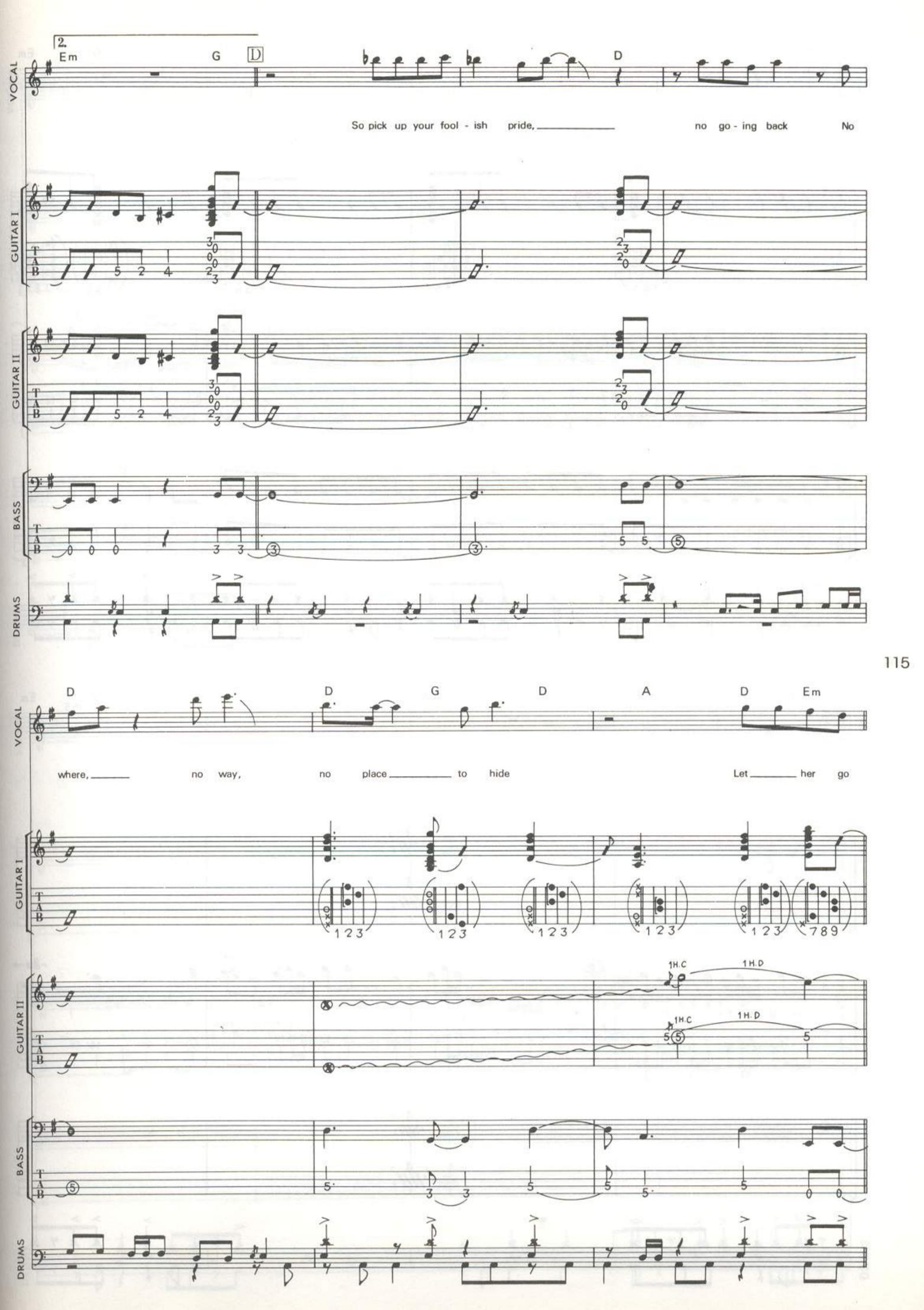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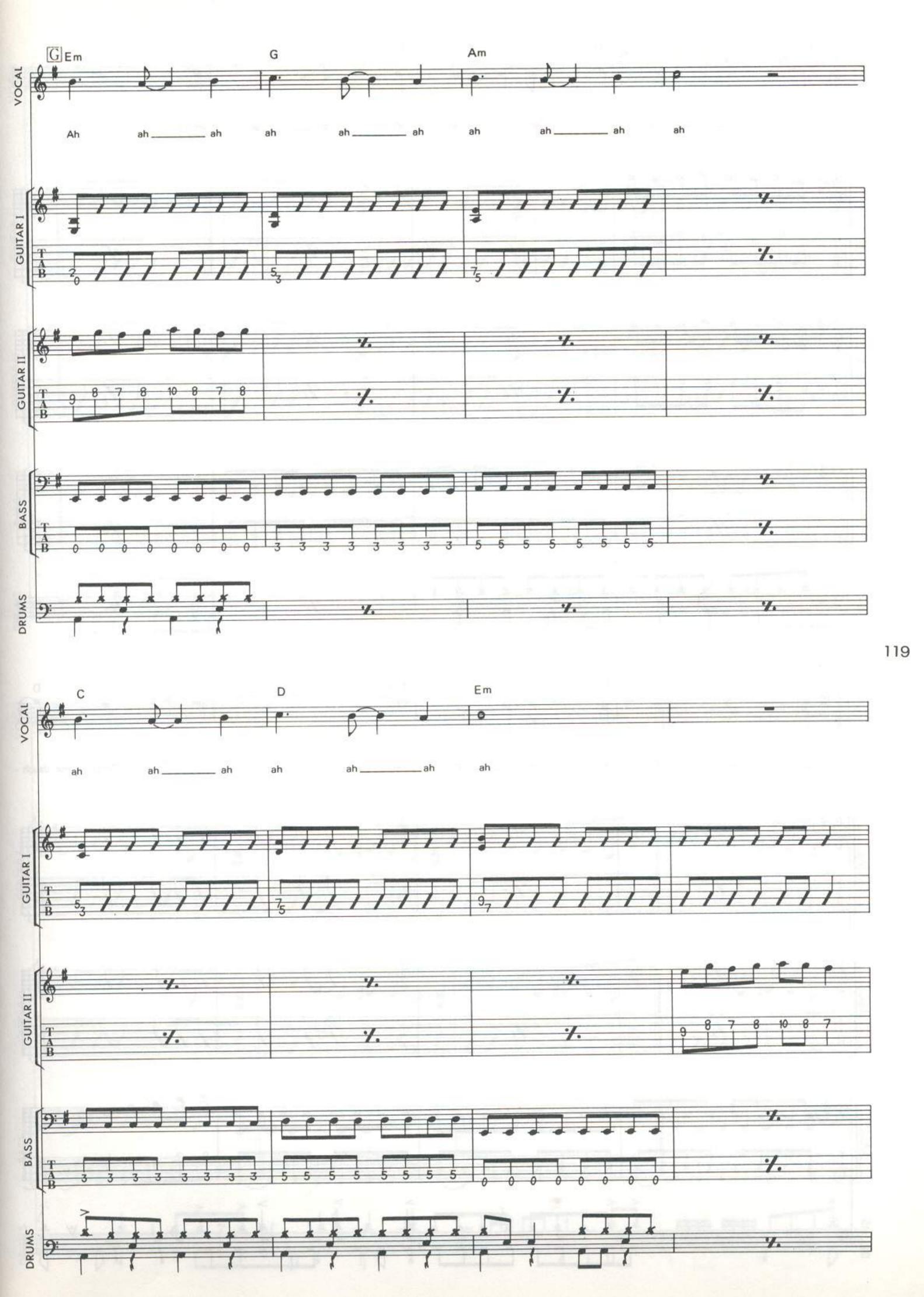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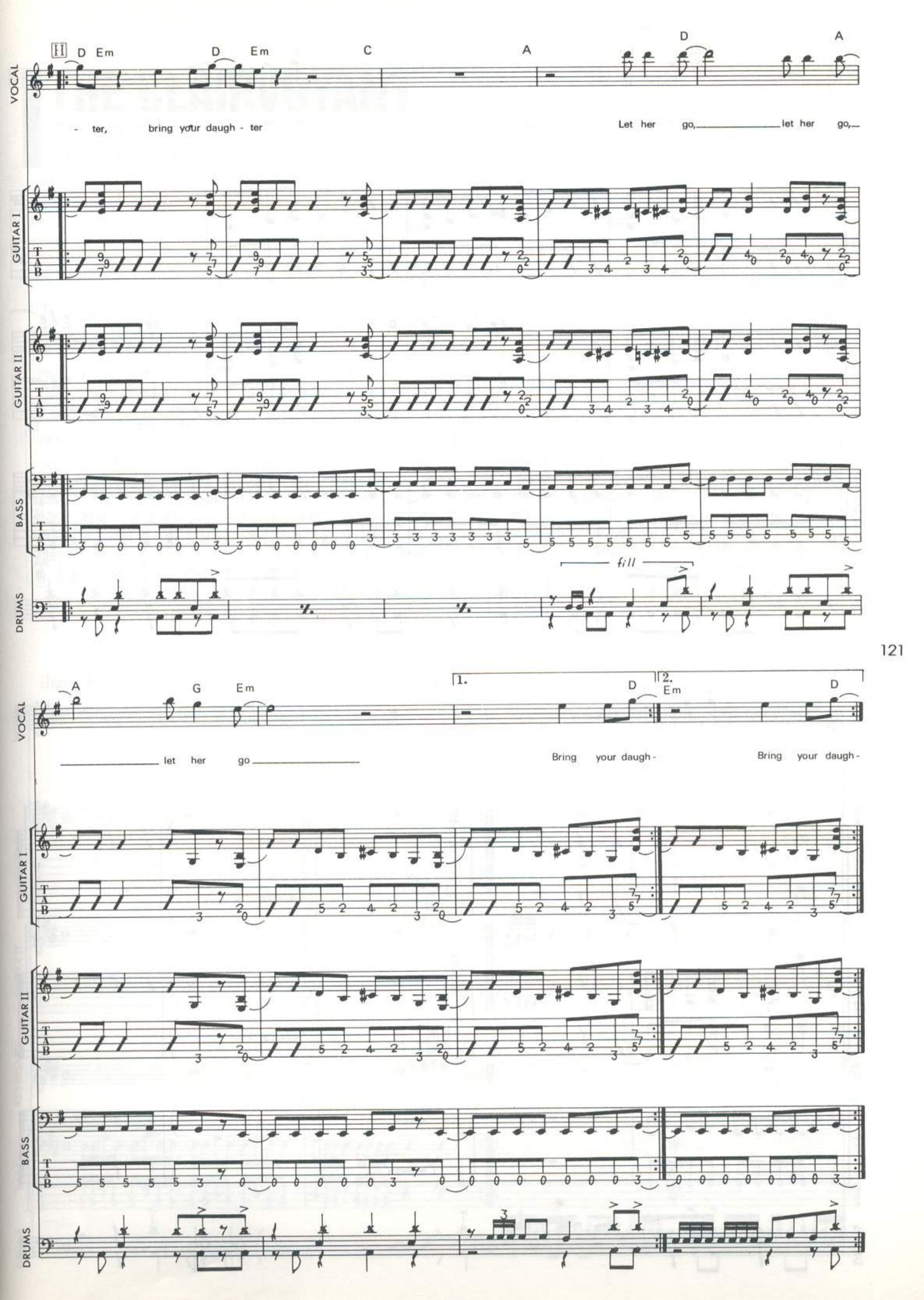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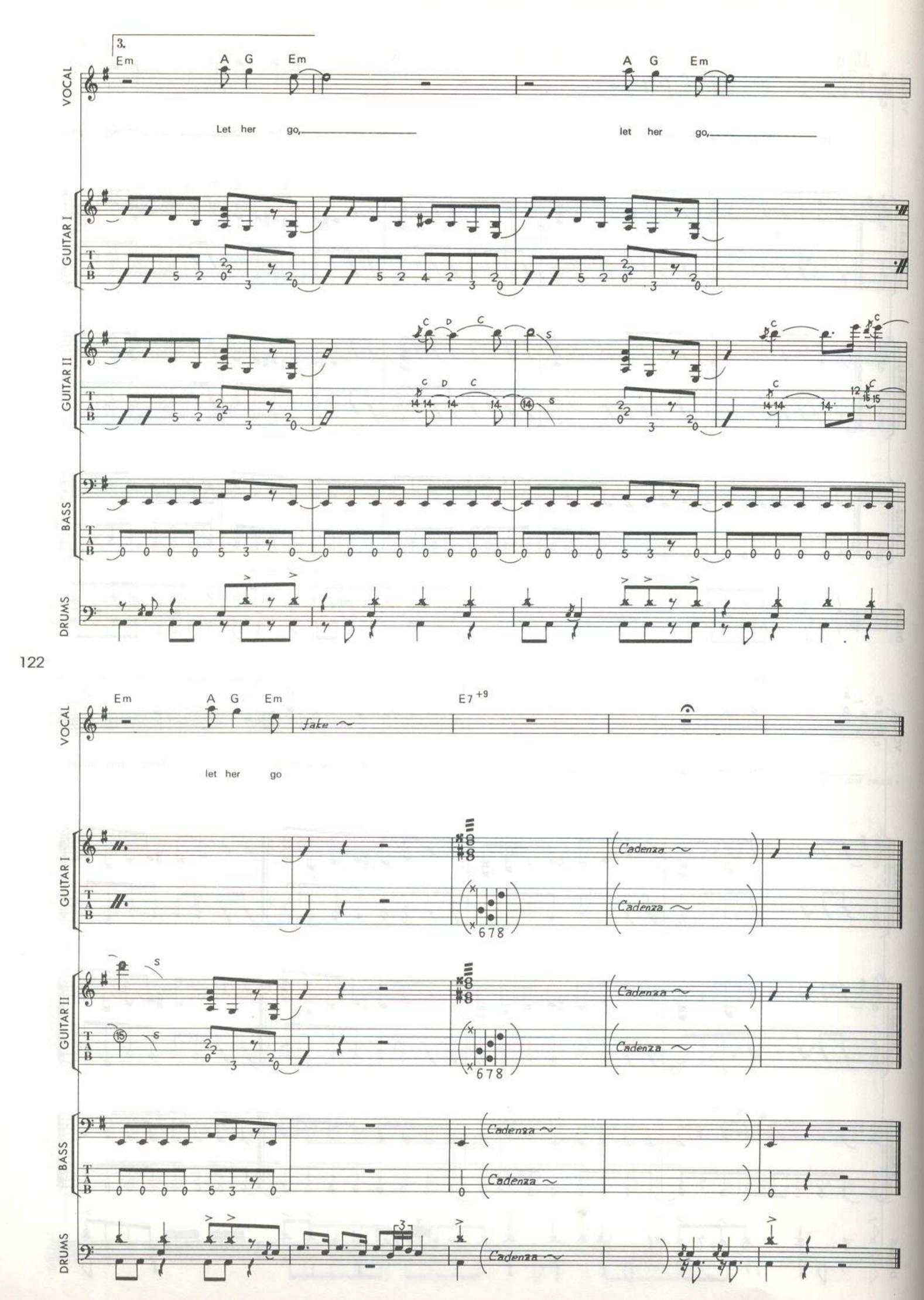












THE CLAIRVOYANT

투시 능력자

by Steven Percy Harris

 $\begin{array}{c} (연주순서) \\ Intro①(with Repeat) \rightarrow Intro② \rightarrow 1.} \rightarrow Intro② \rightarrow 2.} \rightarrow Intro③ \\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boxed{B} \rightarrow 1.} \rightarrow \boxed{A} \rightarrow \boxed{B} \rightarrow 2.} \rightarrow \boxed{C} \rightarrow \boxed{D} \rightarrow \boxed{E} \rightarrow D.S. \rightarrow \$ \boxed{A} \rightarrow \\ \boxed{-3.-} \rightarrow \boxed{C} \rightarrow \boxed{D} \rightarrow to \oplus Coda \rightarrow \boxed{F} \rightarrow \boxed{G} \\ (주법해설) \end{array}$

라스트 가까이에서 더욱 스피드감 넘치는 곡이다. 그다지 어렵다고는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최대의 포인트는 비트가 변하는 [D]이다. 1박 전이 계기가 돼 있으므로 앞곡에 비해서 쉬울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숙련은 필요할 것이다. 그곳에서 전원이 호흡을 맞추어 주면 쉬울 것이다. 또 [E]나 [G]의 1박전에서 $\frac{5}{4}$ 박자로 변하지만 타이밍을 물린다기 보다는한 호흡 사이를 뗀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

드럼은 자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같은 패턴의 연속이므로

걱정할 일은 없다. 또 템포가 미묘하게 변화해감으로 전체를 끌어 당겨가는 기분으로 연주하자.

베이스는 우선 인트로의 리프를 완전히 누를 것, 곡 전체를 통해서 리프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므로 악센트의 위치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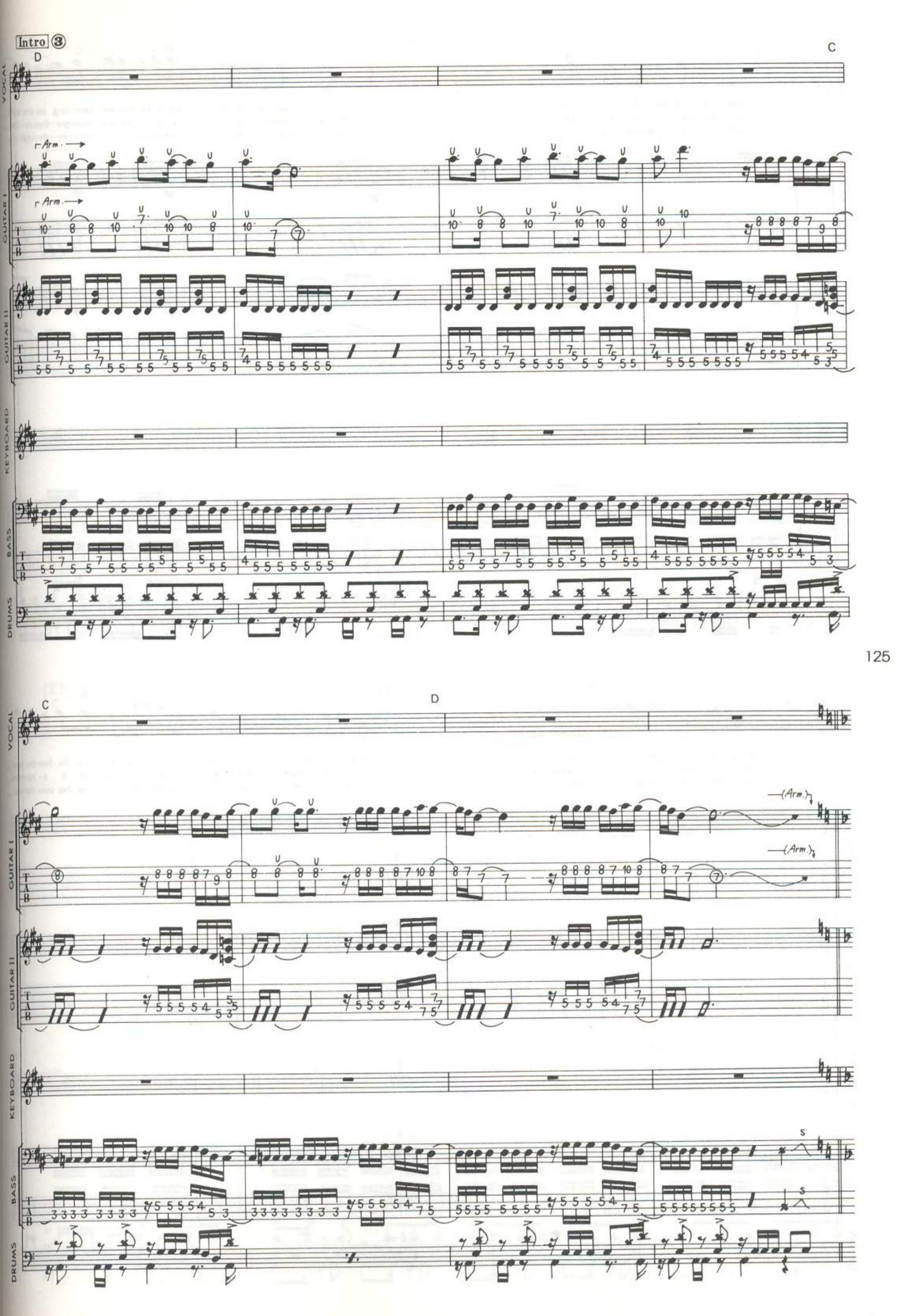
기타의 프레이즈는 꽤 팝적하다. 특히 어려운 곳은 없으므로 기분좋게 연주하자. E의 솔로도 해머링 온이나 풀링 오프를 묶은 것으므로 빠른 연주라고는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다. 템포를 느리게 하여 연습하면 마스터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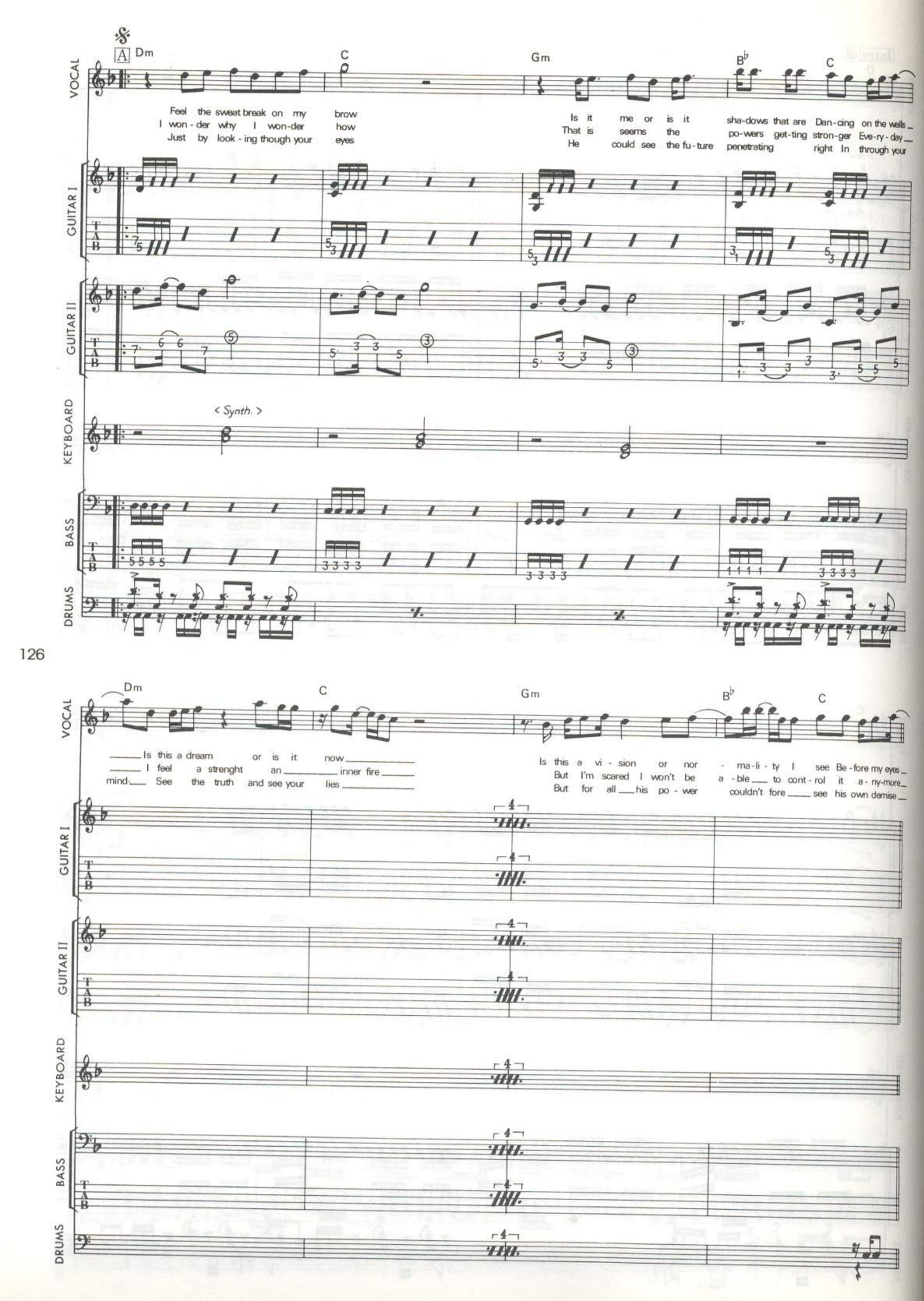
곡을 통해서 D→Dm→Cm→Dm→E→Dm의 조바꿈이 행하여지 고 있다. 대부분은 관계조를 근원으로 한 기본적인 어프로치이므로 각자 노력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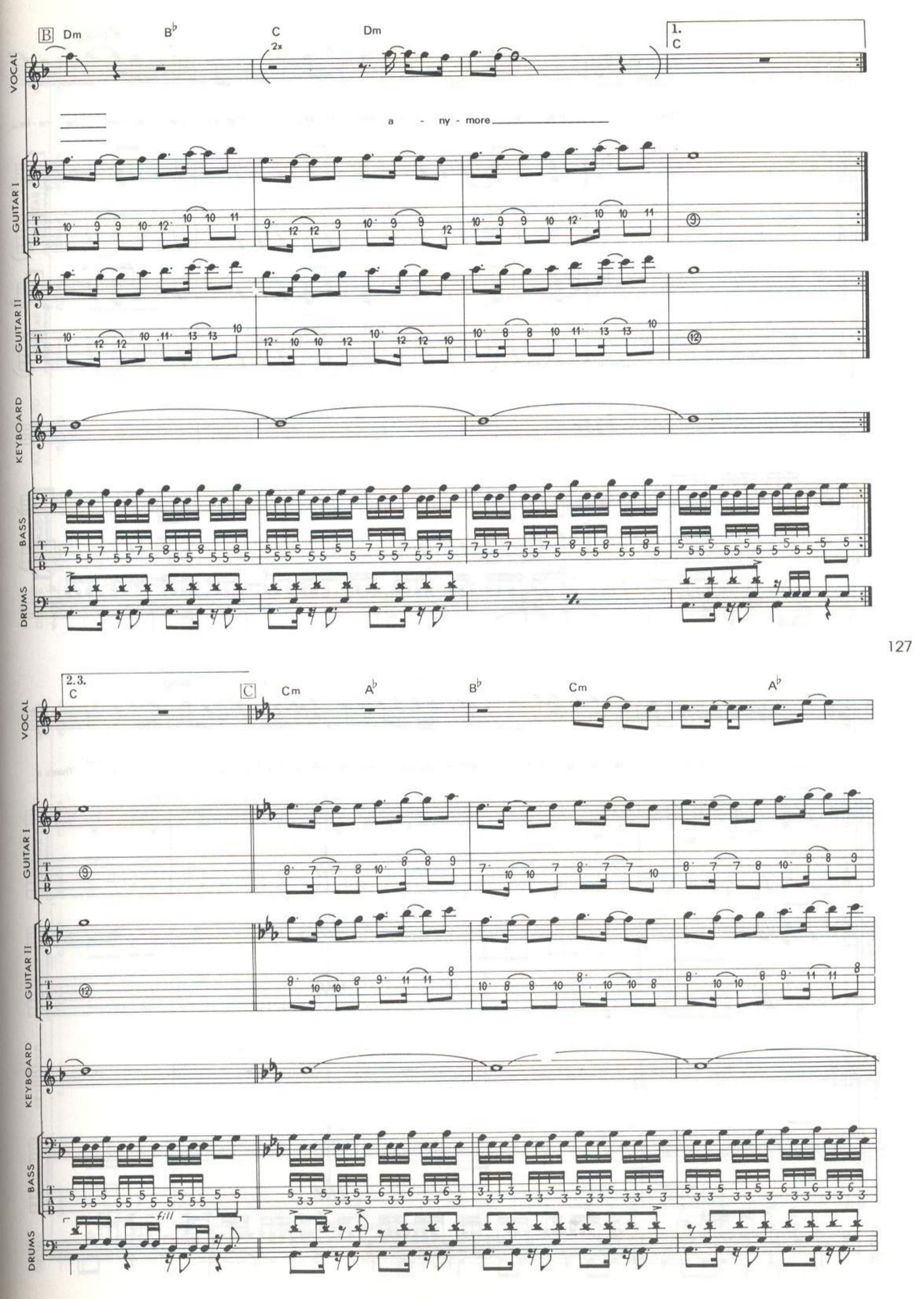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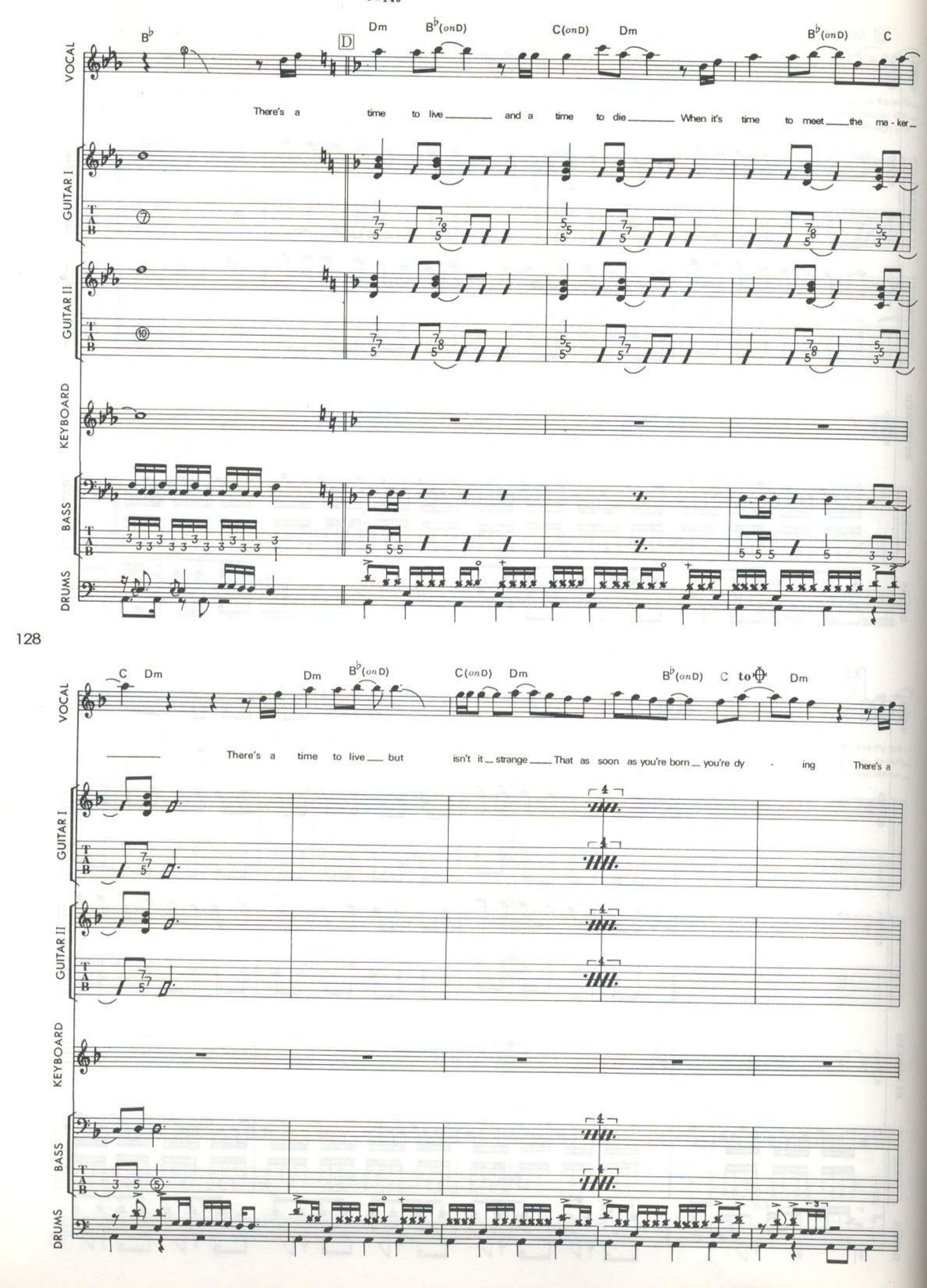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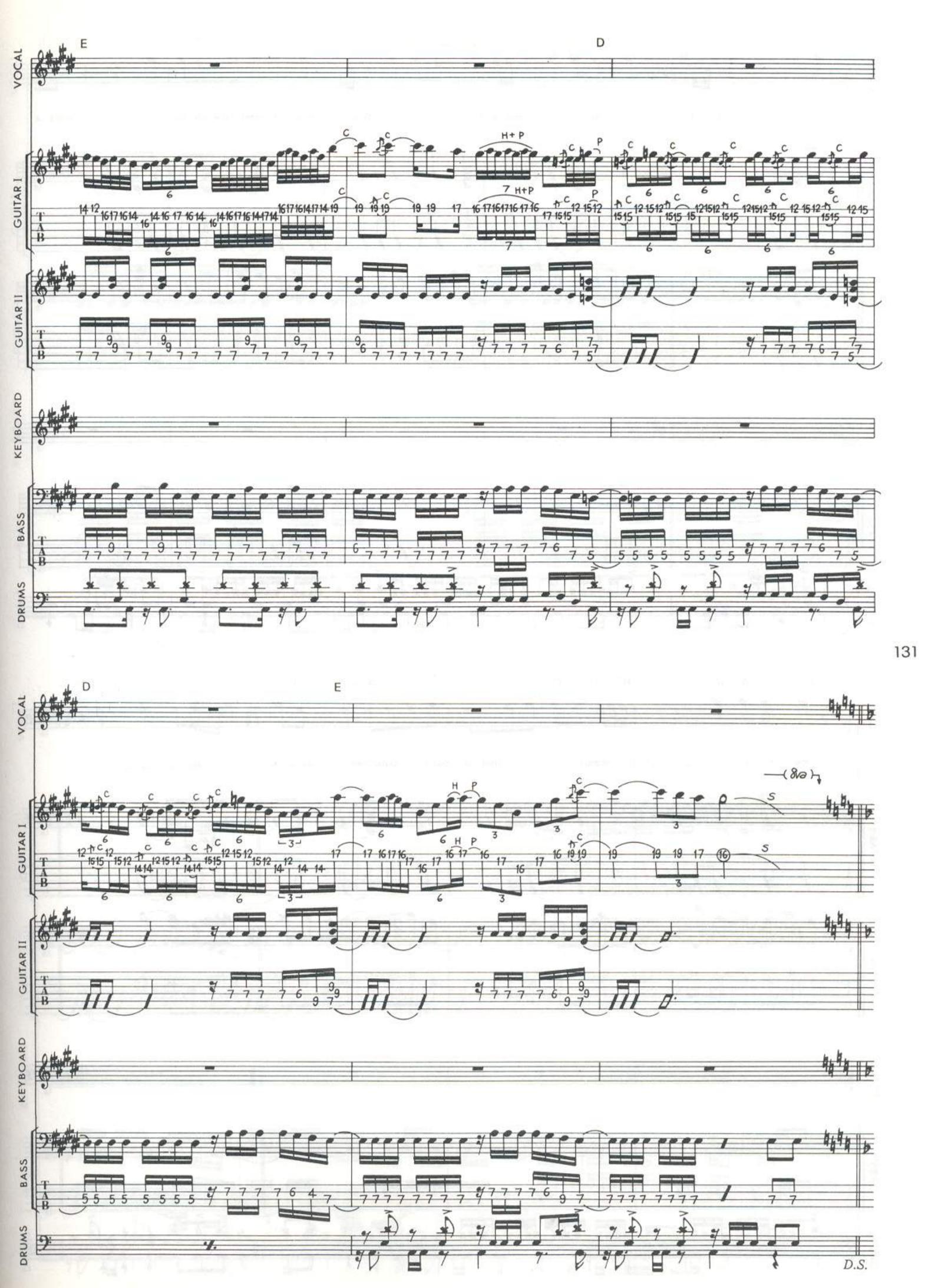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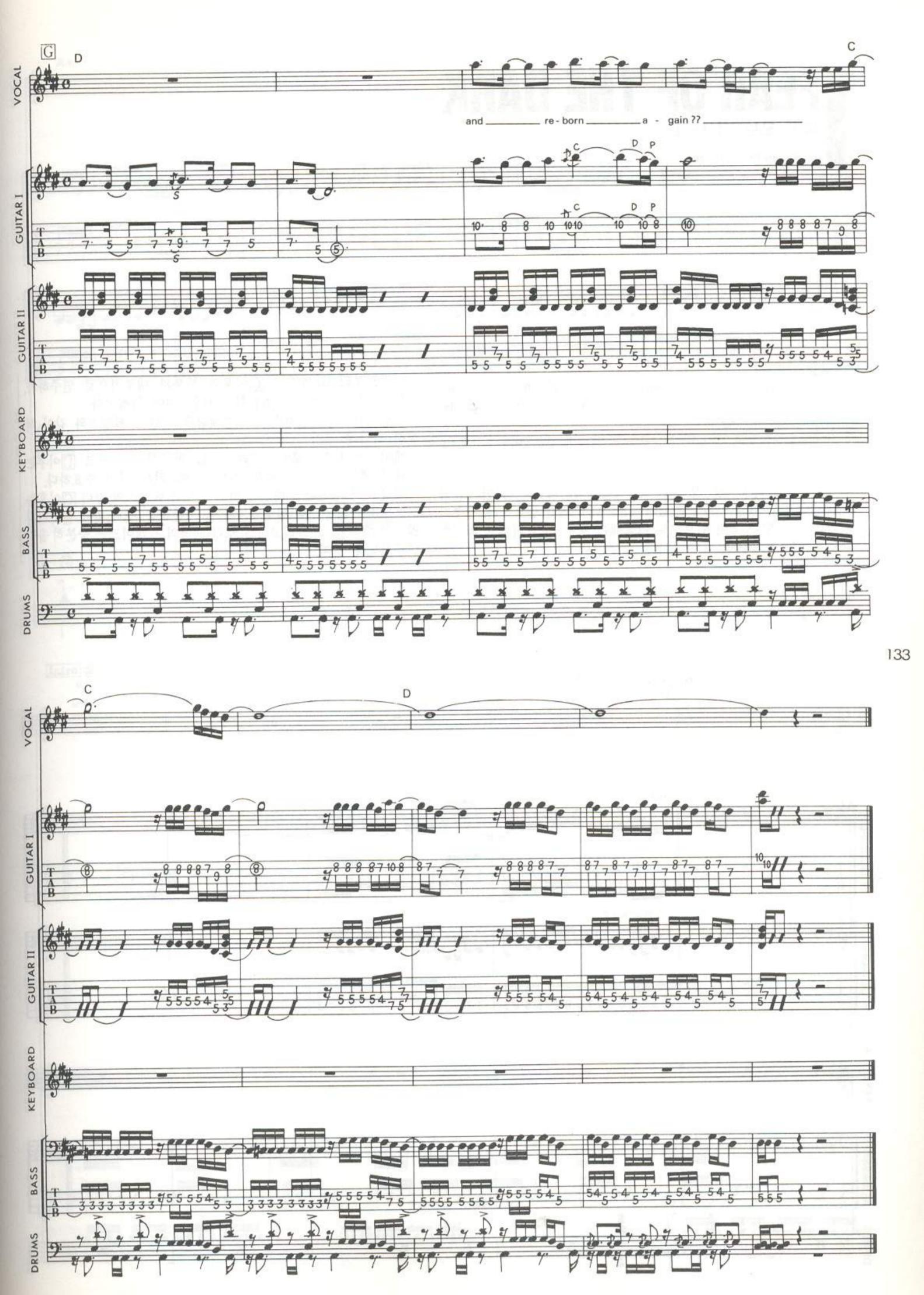












FEAR OF THE DARK

피어 오브 더 다크

by Steven Percy Harris

라이브한 라스트를 장식하는 스케일이 큰 곡이다. 다만 이 곡에서도 템포 체인지가 자주 행하여짐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초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므로 리듬때는 물론 기타 파트도 확고한 템포감을 가져두자.

인트로부터 B까지는 C이후의 부분과 대조적으로 연주하자. 같은 모양으로 엔딩을 조용히 끝내는 것이 특징이다.

드럼은 비트가 점차적으로 변해감으로 템포 체인지와 같이 확실히 파악해 두자.

베이스에서 인트로2의 프레이즈를 완전히 파악하고 [C]이후는 음표가 꽤 많음으로 세로의 라인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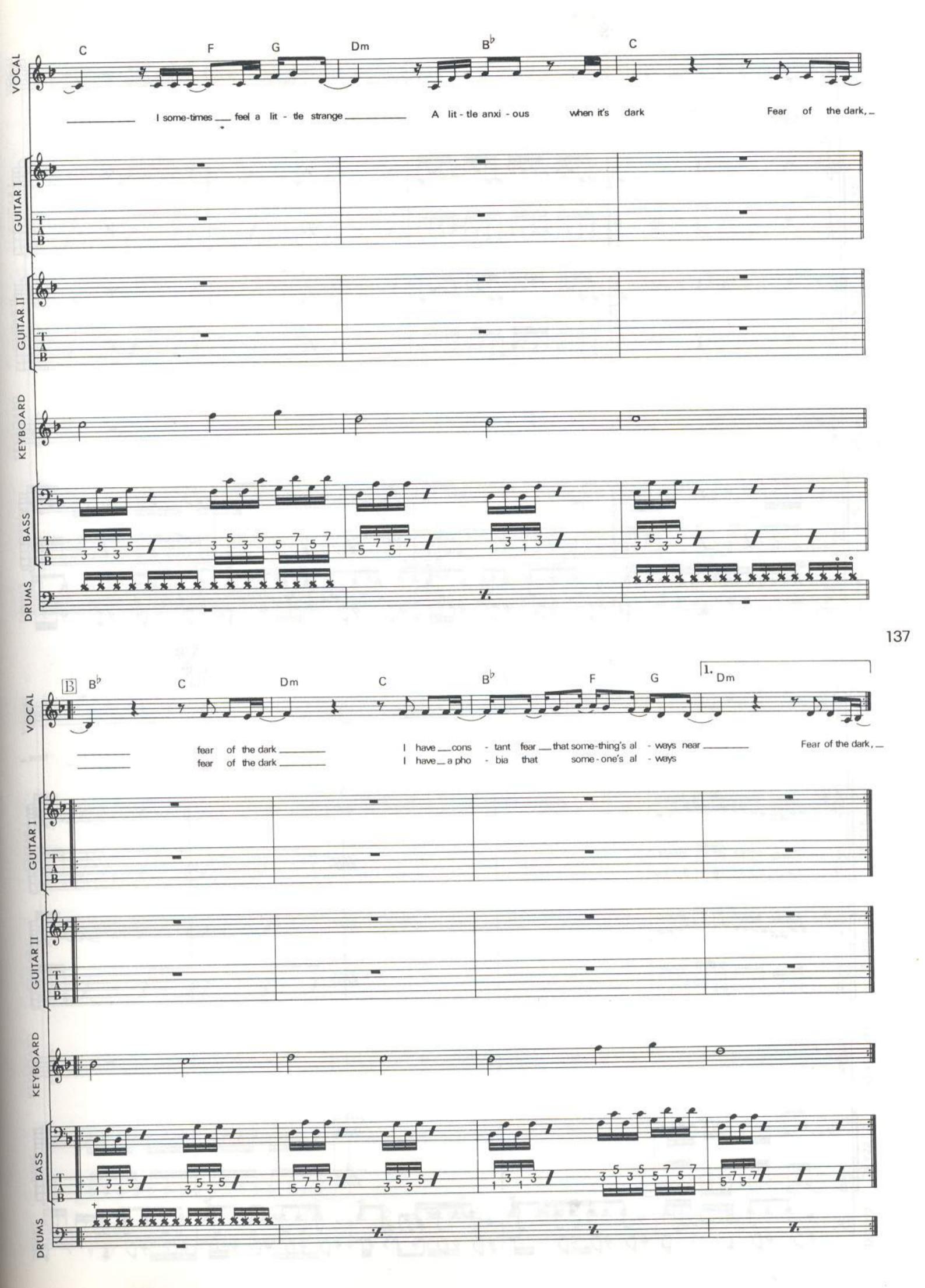
기타는 거의가 같은 배킹을 하고 있으나 베이스와 같이 [C]이후는 16분음표가 많음으로 세로의 라인을 정돈하는 것과,함께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인트로나 엔딩의 프레이즈는 충분히 울려 연주하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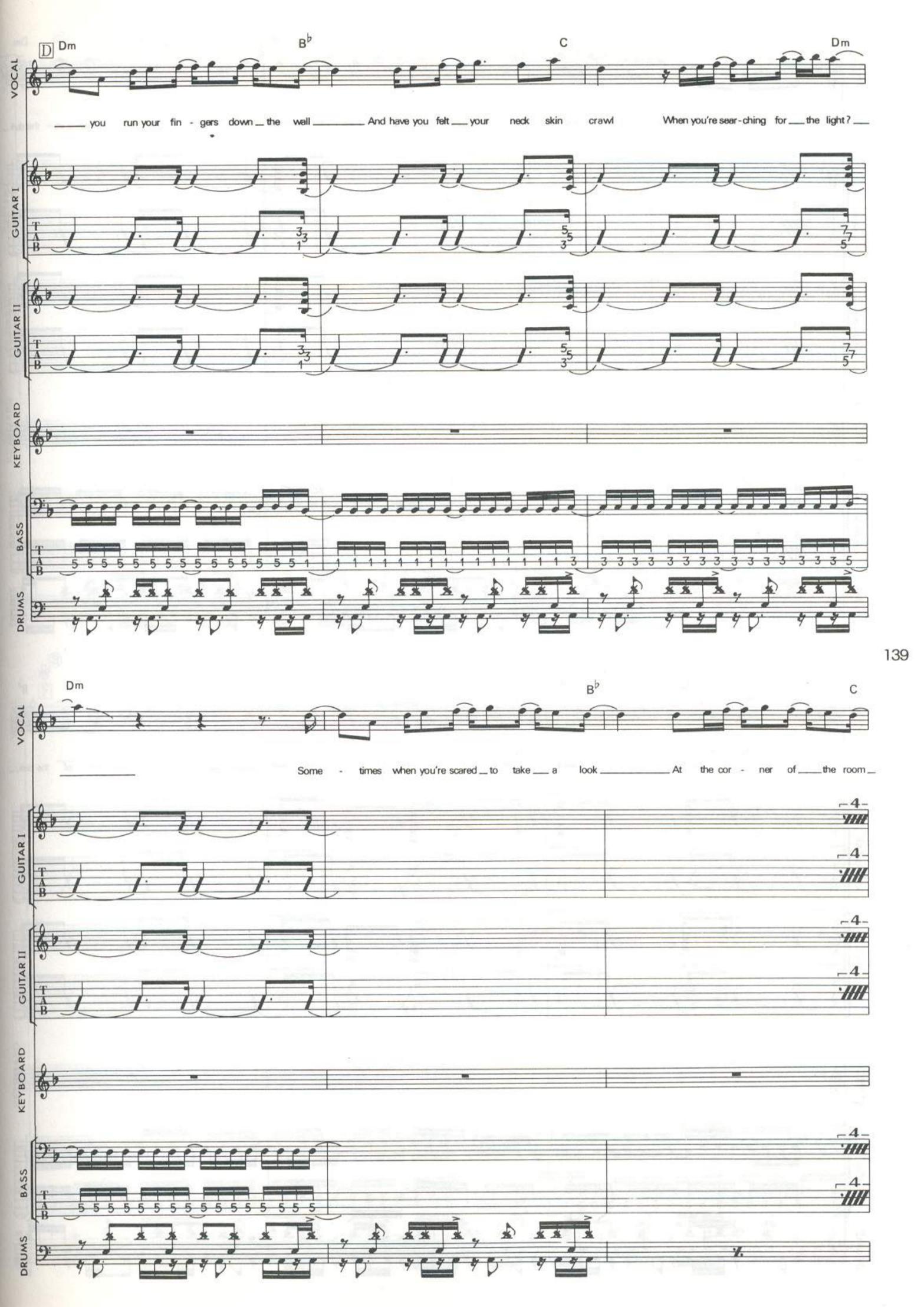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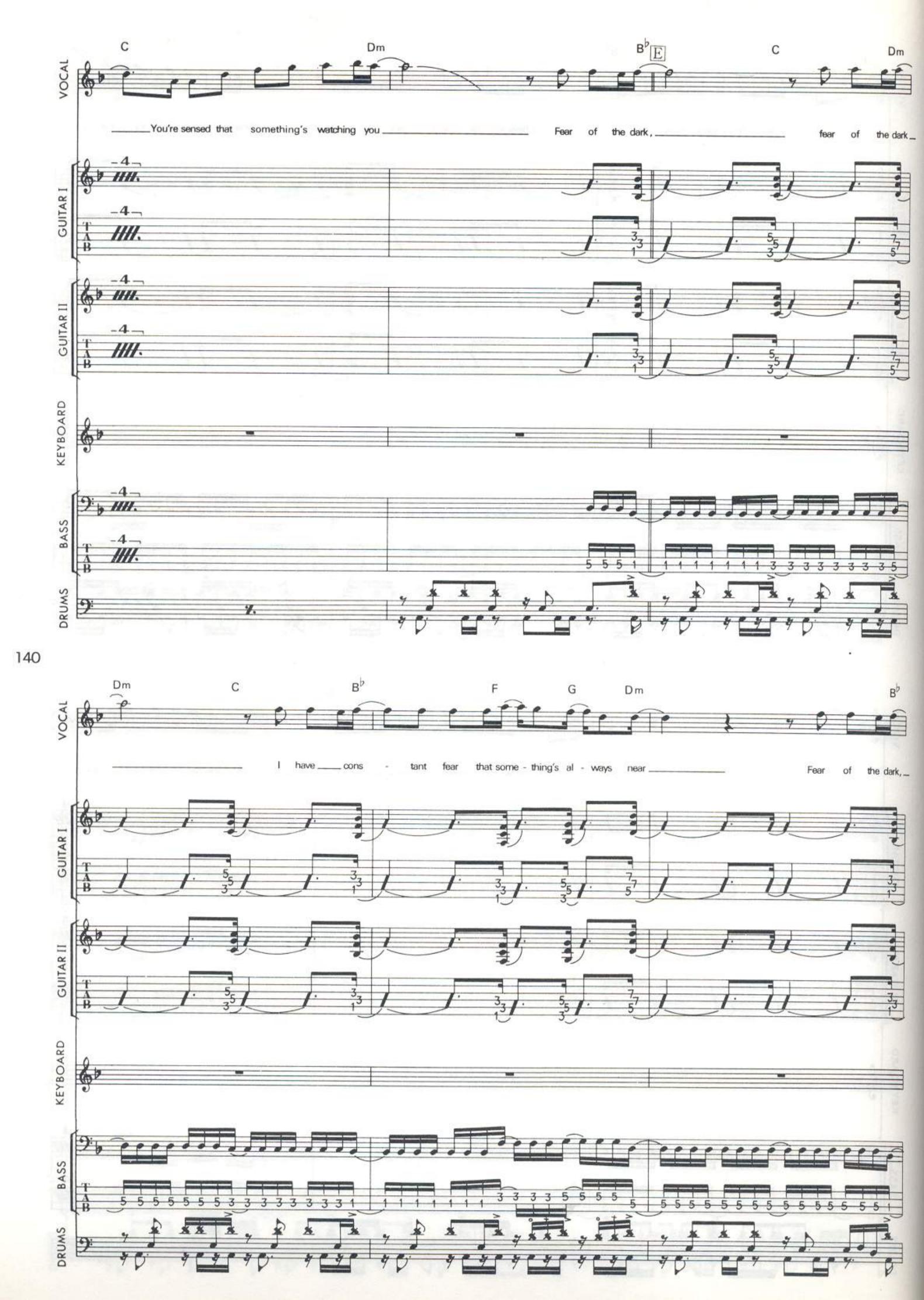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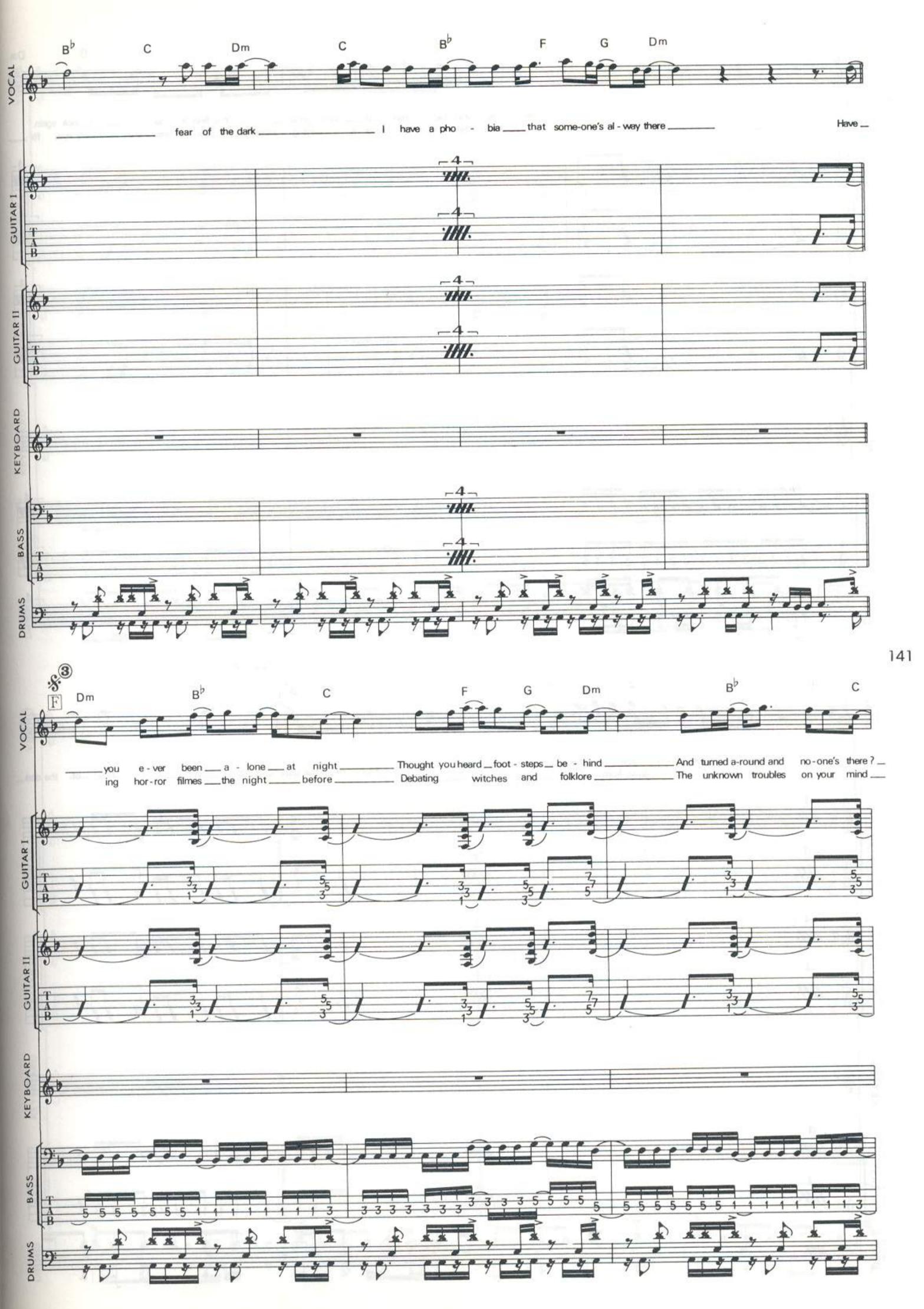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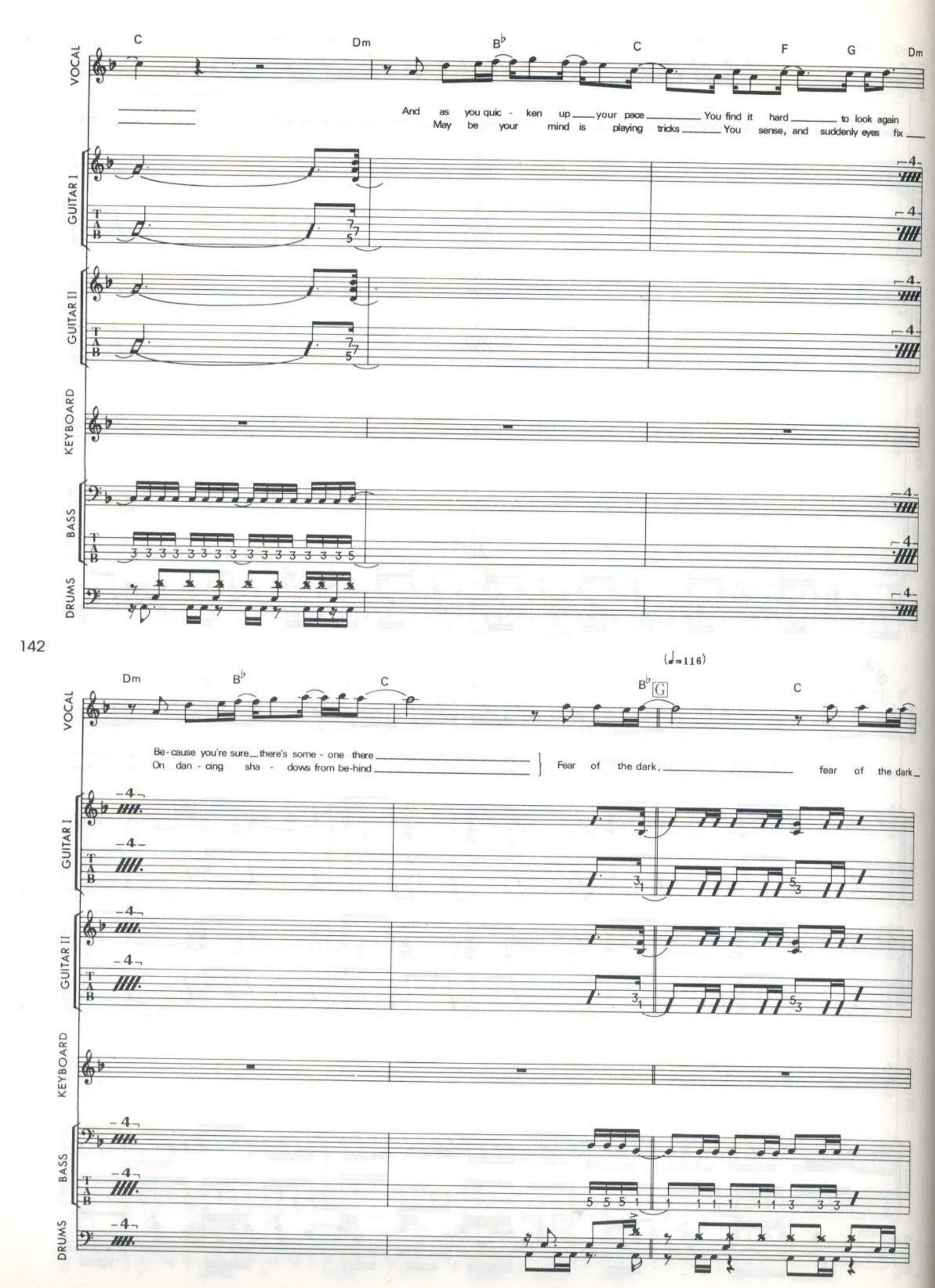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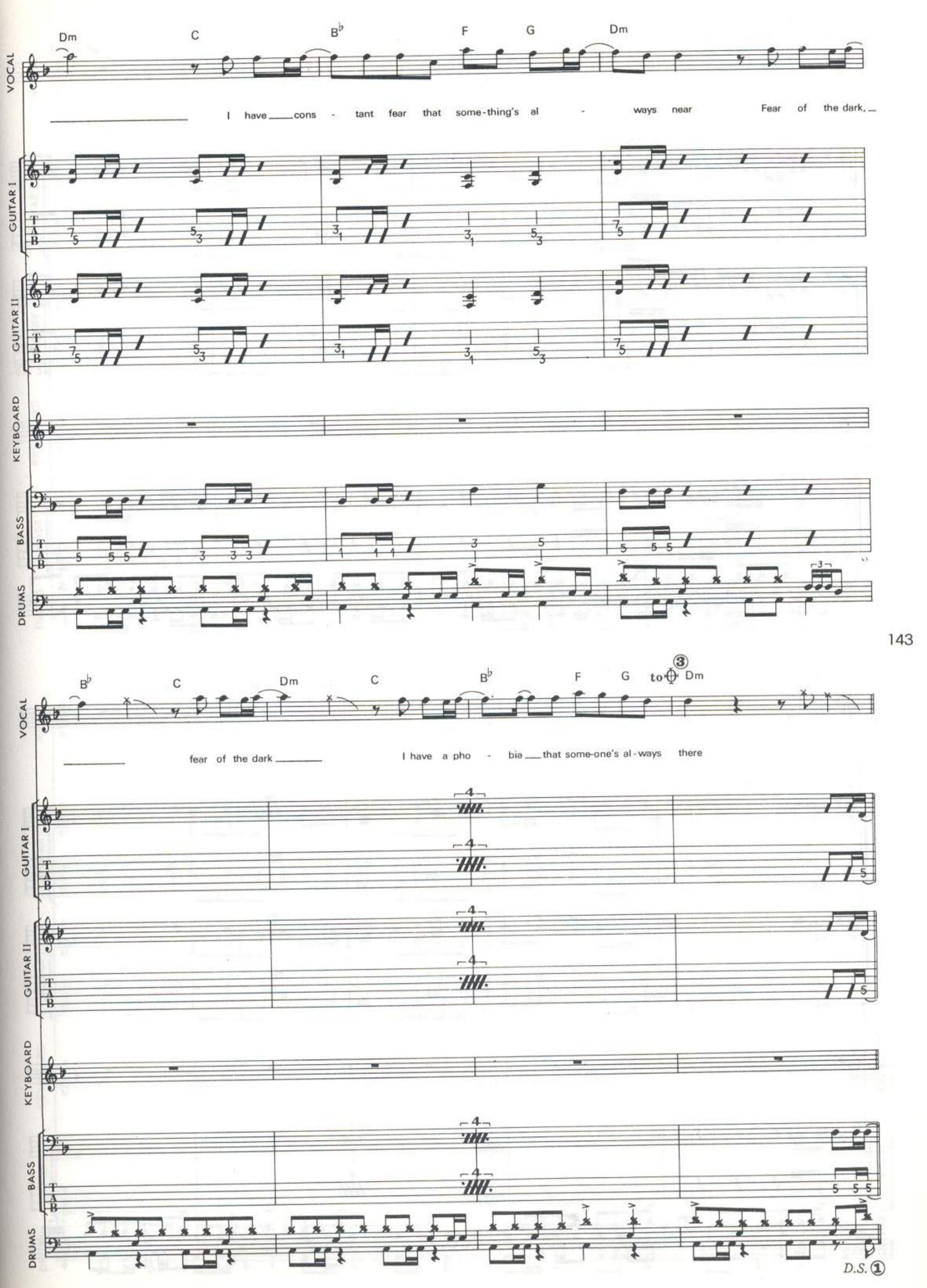














DRUMS

